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0. 2 Vol. 218

피아니스트 임동혁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국제신문 창간 63주년 기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inderella

국립발레단의

신데렐라

출연

2.19(금)	요 정	김주원
	아 빠	이영철
	신데렐라	박슬기
	왕 자	이동훈
	계 모	윤혜진
2.20(토)	요 정	김주원
	아 빠	정남열
	신데렐라	신승원
	왕 자	정영재
	계 모	김리회

※ 본 캐스트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0. 2. 19 (금) 19:30 / 20 (토) 17:00 | 총 2회 공연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 관 | 부산문화회관 Korea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입장권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문의 및 예매 | BS 부산은행 전지점 / 부산은행문화포탈 POPbusan 티켓링크 1588-7890, 국제신문 051) 500-5222,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 607-605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본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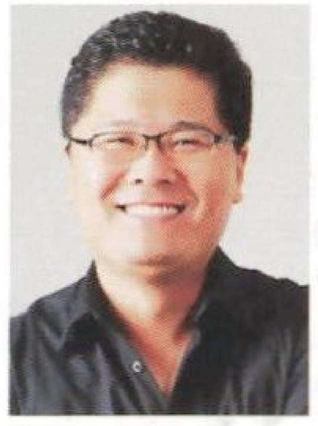
OPERA GALA CONCERT

2010 신춘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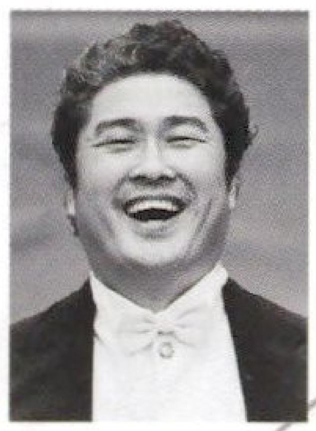
오페라 갈라 콘서트

지 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이 화 영



테너
이 정 원



바리톤
우 주 호

카운터 테너
샤 오 마

로시니 *Rossini*
「도둑까치」 中 *Overture*
「세비야의 이발사」 中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
Dunque io son...tu non m'inganni?

베르디 *Verdi*
「운명의 힘」 中 *Pace, pace, mio Dio!*
「라트라비아타」 中 *Ah fors'e lui che l'anima*
Di Provenza il mar, il suol
Brindisi

푸치니 *Puccini*
「토스카」 中 *E lucevan le stelle*
「투란도트」 中 *Nessun Dorma*
「라보엠」 中 *O Mimì, tu più non torni*
「나비 부인」 中 *Bimba dagli occhi*

모차르트 *Mozart*
「피가로의 결혼」 中 *Overture*
Non so più cosa son
Voi che sapete che cosa é amor
Sull'aria... Che soave zeffiretto
「돈조반니」 中 *Là ci darem la mano*

2010.3.5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 의 607-3111~4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피아노 10~30% 할인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본점	051-863-0900
현대백화점 8층	051-667-0747
신세계백화점 7층	051-816-0089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후문입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동백섬)	051-743-7785
장림 홈플러스 5층	051-266-4747

www.busanyamaha.com 부산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진구 양정 1동 353-2번지 T.051-868-5551 F.051-868-5552

예술에의 초대

2010. 2 Vol.218

Contents

8 커버스토리 _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10 공연화제 _ 국립발레단 초청 '신데렐라'

12 전시화제 _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14 프리뷰

18 반갑습니다 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철호

20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_ 저기 봄까치꽃 피어 · 정일근

22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음악의 수호자 체칠리아 성녀 · 백정빈

26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음악 _ 가면속의 아리아 (Le Maitre de Musique) · 이동신

28 불멸의 거장, 말러 _ 구스타프 말러의 죽음 · 김문경

29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코르시카(Corsica)
운명을 거부하는 힘이 담긴 노래 · 황윤기

30 리뷰 _ 예술이라는 가려움, 가려움의 예술 · 김만석
전국미디어를 넘어 세계미디어로 성장하는 지역미디어 · 남인용

32 그곳에 가면 _ 국내 유일의 호랑이 미술관

34 우리는 문화가족 _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

36 프로그램 가이드

50 부산문화회관 소식

52 나의 애청음반 _ 국립부산국악원 기획음반 '소리의 물결 부산을 감돌고' · 이정필

53 새로 나온 음반 · 책

55 100자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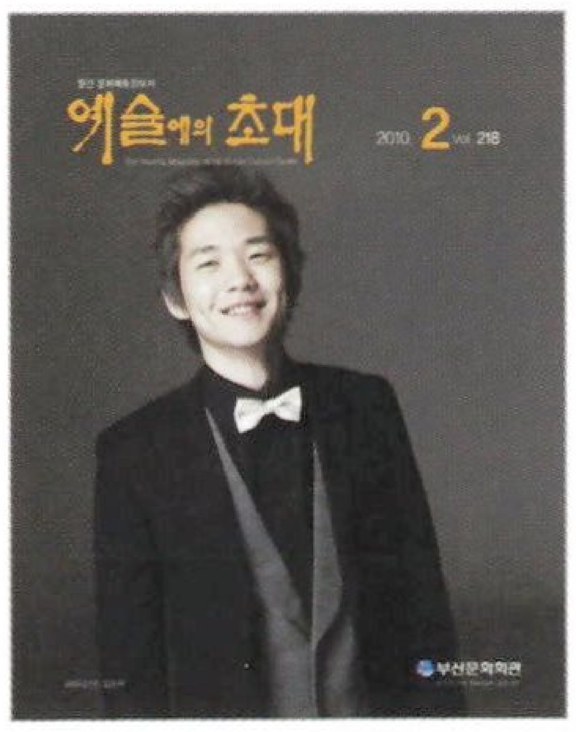
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60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8

22

32



2010. 2 Vol.218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최성달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10년 1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라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의 이상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2월 25일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2010. 2 February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01	02 소 | 한무전통예술정기공연 네번째 천지…푸리 19:00 신다희(010-5506-6263)
07 중 | 동서대학교 연기과 창설 10주년 기념공연 '맥베드' 17:00 동서대학교 연기과(320-1910) 소 | 제6회 M&M 오르프 음악원 정기연주회 17:00 김희령(010-5662-1631)	08	09
14	15	16
21 소 | 경희 바이올린 제 11회 정기연주회 15:00 김경희(010-3579-2339)	22	23 소 | 김지민 피아노 독주회 19:30 김지민(010-7576-7627)
28 대 | 베를린 캄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777코리아엔터테인먼트 (02-2277-6516, 011-9949-8897) 소 | 제 4회 향기 오카리나앙상블 페스티발 '작은 거위들의 합창' 18:00 무료/이정미(010-8544-2580)	3/1 중 |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공 선생의 시에의한 가곡의 밤' 19:00 초대(주최측 문의)/부산일보사(461-4437)	3/2

국제회의장

▶ **제 3기 시민클래식교실 '걸작 교향곡 순례'**

2월 3일(수) - 오후 2:00
민요, 예술로 승화되다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신세계로부터'

2월 10일(수) - 오후 2:00
죽음을 앞둔 거장의 고뇌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6번 '비창'

2월 17일(수) - 오후 2:00
신에게 바치는 기도
부르크너 교향곡 제 7번

2월 24일(수) - 오후 2:00
부활을 소망하는 인간의 외침
말러 교향곡 제 2번 '부활'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전시실

▶ **세계미래교육체험전 - 대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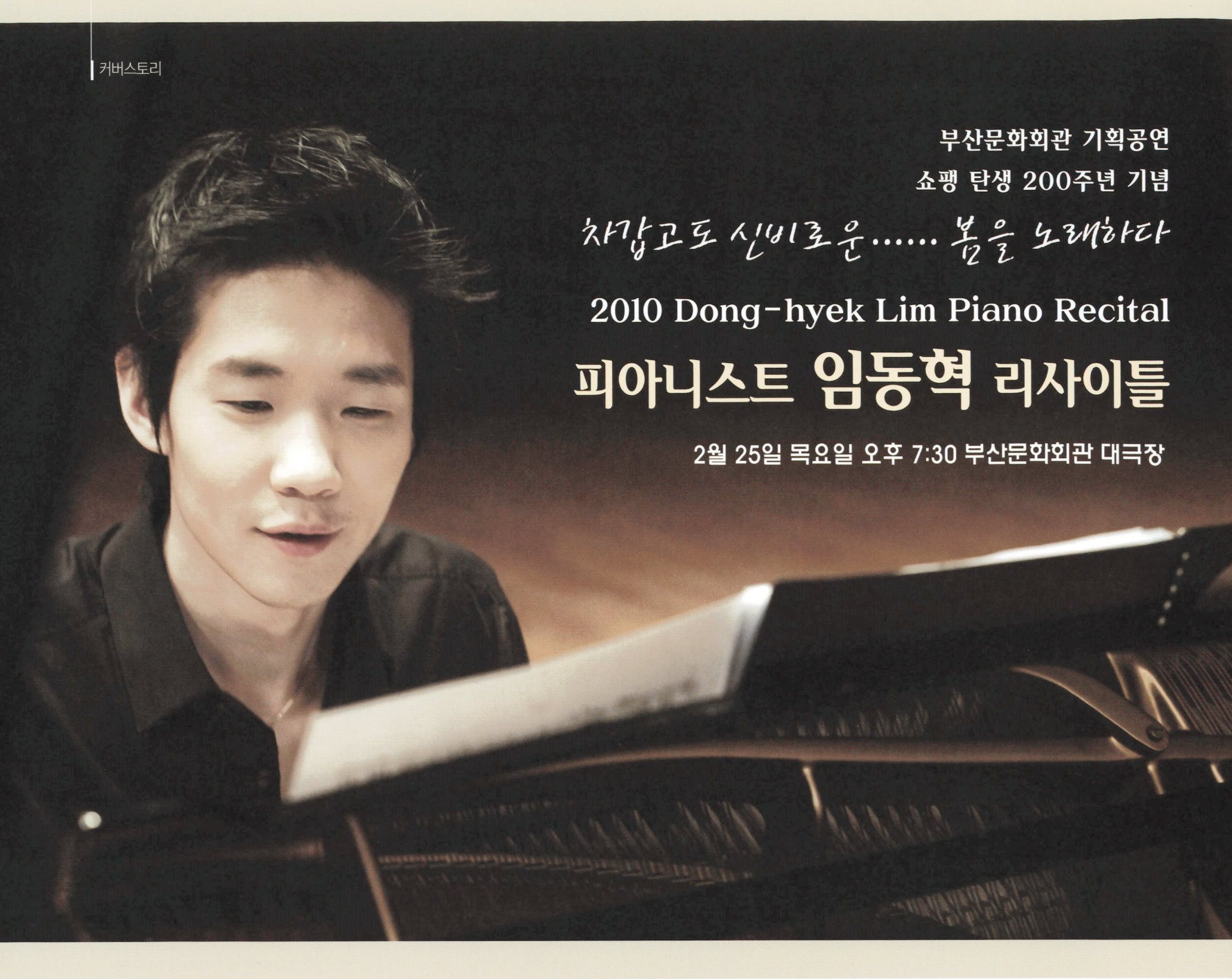
2월 21일(일)~3월 1일(월)

■ 관람료 : 학생 7,000원 · 일반8,000원 (단체 20인 이상 5,000원)

■ 문 의 : 세계미래교육체험전 조직위원회 (070-8719-8981)

◎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3 중 | 제 21주년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 연주회 19:30 황경자(017-541-3445) 소 | 제 5회 You & You Piano Recital 19:00 한지연(338-8364, 018-684-7789)	**04** 소 | 수현음악학원 피아노 연주회 18:00 안영미(010-5656-5966)	**05**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악기가족 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06** 대 | 러브 & 발렌타인 재즈콘서트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E-Zen엔터테인먼트(904-8881, 010-9513-7876) 중 | 동서대학교 연기과 창설 10주년 기념공연 '맥베드' 17:00 동서대학교 연기과(320-1910)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10 중 | 이화영 플루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플루트하우스(02-3487-2462)	**11** 소 | 이예슬 피아노 독주회 19:30 이예슬(010-4579-8715)	**12**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악기가족 이야기-뿌우뿌우 나팔가족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3**
17	**18**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10:30 균일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9** 대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신데렐라' 19:30 10만원 · 8만원 · 6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소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6 – 세렝게티' 20:0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20** 대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신데렐라' 17:00 10만원 · 8만원 · 6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중 |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17:00 부산YMCA오케스트라(010-4227-8512)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봄~새로운 희망노래'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24 소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0 우리들, 작은이야기' 19:30 무료(주최측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25** 대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중 | 사랑과 영혼 부산콘서트 19:00 3만원 · 2만원 · 1만원 미래기획(070-7123-3884) 소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0 우리들 작은이야기' 19:3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26** 소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악기가족 이야기-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10:30 1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7** 중 | 인코리안 유스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19:00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017-842-6688)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3/3	**3/4** 중 | 2010 안주경의 춤 19:30 3만원 · 2만원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055-751-6201)	**3/5**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 전경화 귀국 피아노독주회 19:30 전경화(010-4471-1128)	**3/6** 소 | 토요상설무대-부산가야금연주단 연주회 16:00 초대(선착순)/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차갑고도 신비로운…… 봄을 노래하다

2010 Dong-hyek Lim Piano Recital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의 이상적인 변모를 보여주며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2월 25일 2년 만에 솔로 리사이틀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을 찾아온다.

1984년 서울에서 출생한 임동혁은 형 임동민과 함께 7세의 나이에 피아노를 시작했다. 임동혁은 1996년 최연소로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 참가해 형인 임동민은 1위에, 임동혁은 2위에 나란히 입상하면서 세계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임동혁은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가브릴로프, 부닌 등을 길러낸 명교수 레프 나우모프(Lev Naumov)를 사사하며 젊은 거장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왔다. 레프 나우모프는 "임동혁은 황금 손을 가졌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임동혁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다.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에서 입상한 임동혁은 이듬 해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에서 1위 수상과 더불어 솔로 리사이틀상, 오케스트라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파리음악원 학생상, 마담 가비 파스키에상 등 5개 상을 휩쓸며 2001년을 화려하게 마감한다. 2003년에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편파 판정에 불복, 수상을 거부하며 전 세계 클래식계에 핫 이슈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2005년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형인 임동민과 함께 2위없는 3위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했고, 2007년 6월, 제 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1위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는 누구보다 임동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몇몇 음악 페스티벌에서 임동혁의 인상적인 연주를 지켜본 아르헤리치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베르비

"임동혁은 황금손을 가졌다."

- 모스코바 국립음악원 레프 나우모프 교수 -

"...아름다움과 편안함,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그의 연주에 압도당했다."

- BBC Music Magazine -

에 페스티벌 등에 임동혁을 초청하였으며, EMI 클래식의 '젊은 피아니스트' 시리즈에 임동혁을 적극 추천하였다. EMI 클래식은 아르헤리치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동혁과 레코딩 계약을 체결, 데뷔음반 〈Chopin, Schubert, and Ravel under the 'Martha Argerich Presents'〉을 출시했다. 임동혁은 이 음반으로 '황금 디아파종 상'을 수상했다. 당시 아르헤리치의 추천으로 음반이 발매된 4명의 연주자 중 임동혁만이 유일하게 2집을 출시하였는데, 그의 두 번째 음반 '쇼팽 리사이틀' 역시 프랑스의 '쇼크상'을 수상하며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임동혁은 최근 더 이상 신동의 모습이 아니라 세계 클래식계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샤를르 뒤트와와 정명훈 지휘 아래 NHK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뉴 재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으며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이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쿠르트 마주어의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하였다.

2008년 시즌에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전국 투어 공연과 EMI 음반을 발표했으며, 6월에는 실내악에도 도전, 앙상블 디토의 멤버로 활동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2009년 시즌에는 노던 신포니아(지휘/토마스 제트 마이어)와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협연무대와 오랜 시간 그를 지지하고 있는 피아노의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초대로 벳부 페스티벌 한국공연을 함께 했다.

클래식 연주자로서는 전무후무하게 인터넷 팬 카페 회원수만 4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 임동혁은 지난 2004년, 2006년의 리사이틀에서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 2,500석 전석을 매진시키며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스페셜리스트로 다시 음악애호가들을 만나는 임동혁은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더욱 정제된 감수성으로 쇼팽 재해석에 도전한다. 뿐만 아니라 라벨과 프로코피에프 등 또

다른 감성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레퍼토리로 선택하여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그가 선택한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는 피아노 4대 난곡 중 하나로, 라벨 작품의 극치로 손꼽히기도 한다. 더불어 폴란드의 활기찬 민속춤곡으로 '박자에 취한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제목의 쇼팽의 '마주르카',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음악 걸작 중 하나이며 고난이도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피아노 소나타 6번' 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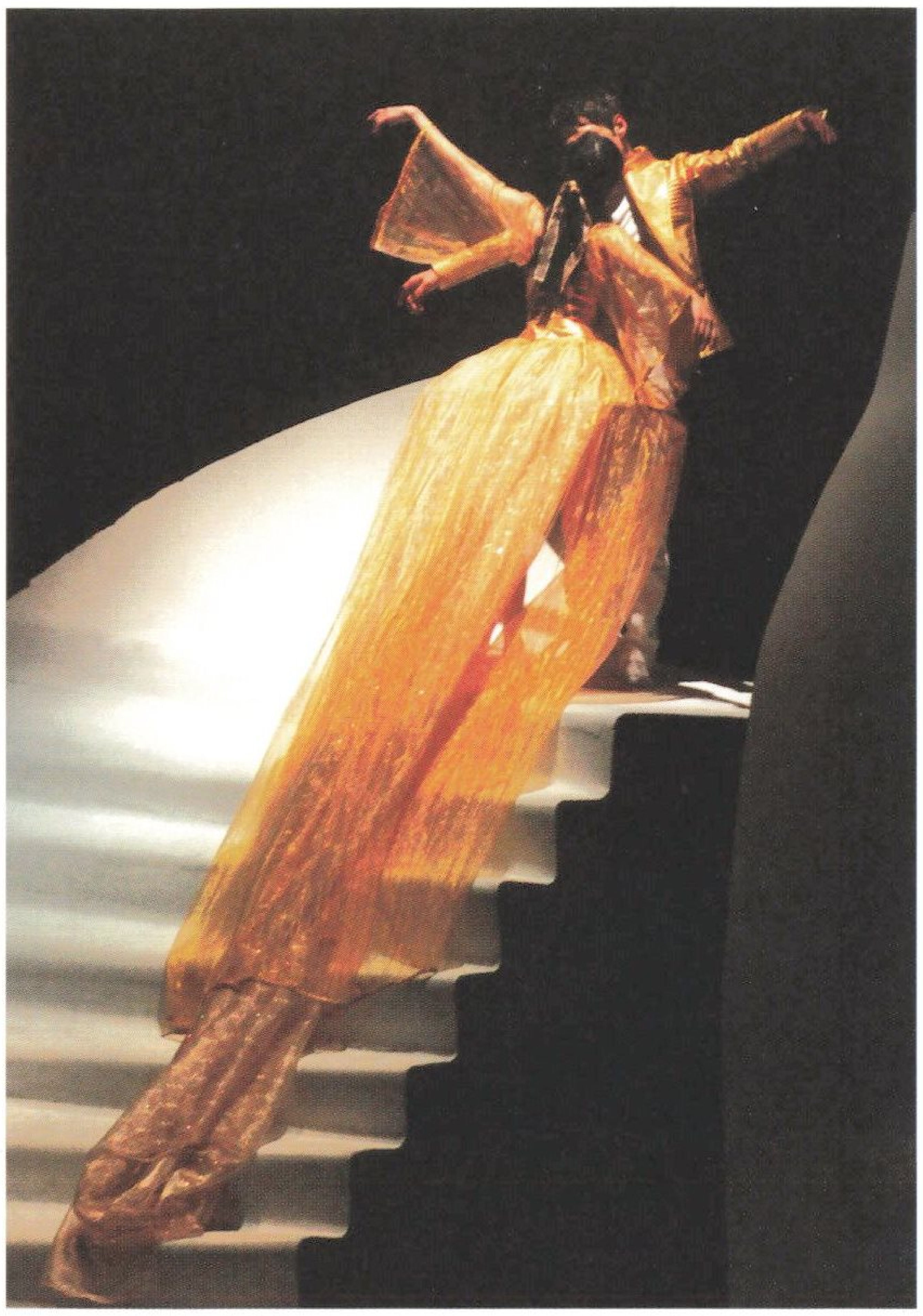
PROGRAM

라벨_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벨_ 밤의 가스파르
쇼팽_ 마주르카 마단조, Op.17, No.2
쇼팽_ 마주르카 다장조, Op.56, No.2
쇼팽_ 마주르카 올림다단조, Op.63, No.3
프로코피에프_ 피아노 소나타 No.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공연 드라마틱 발레의 진수 '신데렐라'

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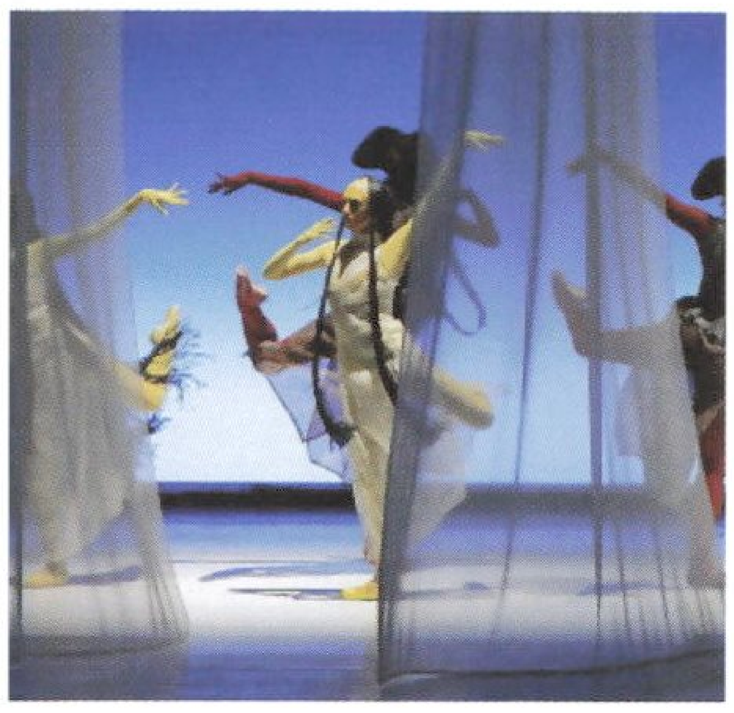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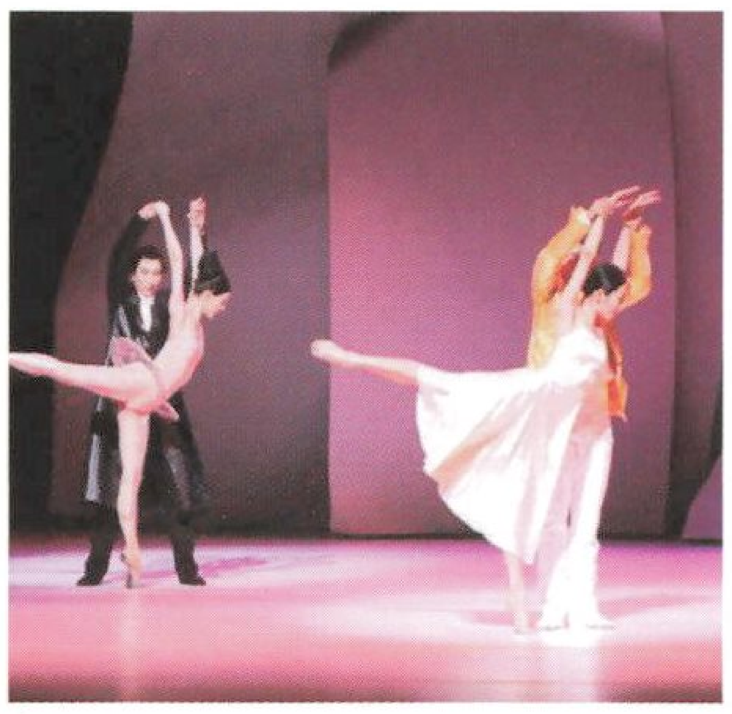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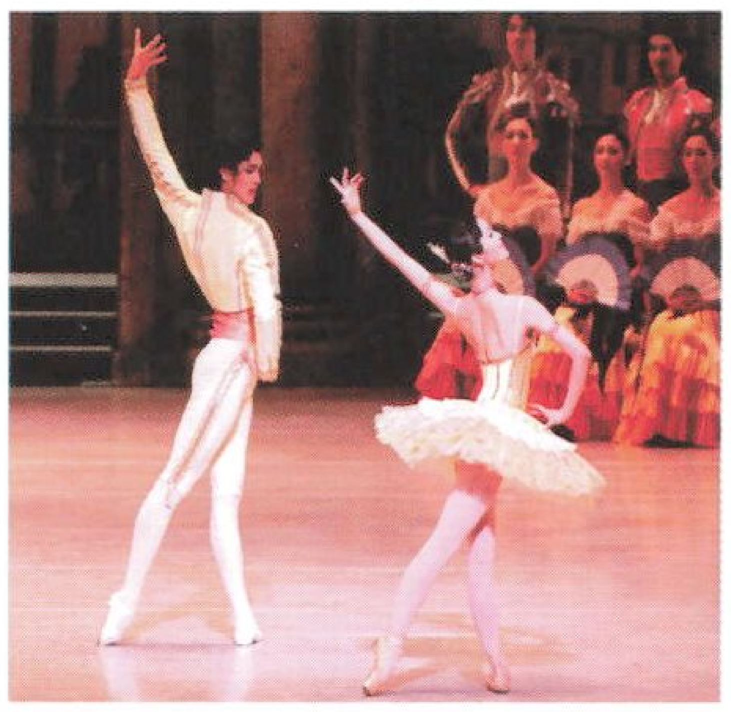
천재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새롭게 창조해낸 국립발레단 발레 '신데렐라'가 2월 19일과 20일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예술의전당 재개관기념 작품으로 무대에 올려진 '신데렐라'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의상 디자이너 제롬 카플랑, 가장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하는 에른스트 피뇽-에른스트, 빛으로 사랑을 그리는 도미니크 드리요가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와 만나 이루어낸 또 하나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레 '신데렐라'는 전세계적으로 1945년 '로스티슬라브 자하로프'가 안무한 러시아 계통 작품과 1948년 '프레더릭 에쉬턴'이 안무한 영국 계통 작품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국립발레단은 1997년 '로스티슬라브 자하로프'의 '신데렐라' 전막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전의 작품이 원작 신데렐라를 충실히 재현해 동화적인 모습이 강한 전통적인 작품이었던 반면 2009년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새롭게 안무한 '신데렐라'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마이요만의 독특하고 신선한 비틀기가 중심이 된 작품으로 파격적이고 새로운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마이요의 신데렐라는 기존 작품과 다른 캐릭터와 이야기 구조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기존의 신데렐라와 왕자로 대표되는 2인 주인공 구도를 탈피, 신데렐라 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사랑, 계모의 비뚤어진 아버지에게로의 사랑 등 여러 유형의 감정이 표현된 5인 주인공 구조로 재구성되었고 기존의 단편적 구성을 벗고, 현대소설과 같은 복잡한 등장인물들 간의 내면적 갈등을 부각시킨다. 원작에 없는 신데렐라 엄마가 요정으로 다시 등장, 신데렐라와 왕자의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신데렐라 엄마는 때로는 아빠와 못다 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때로는 장난기를 가진 요정으로 변하면서 작품전체를 사랑의 마술로 지휘한다.

이 작품에서 마이요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신분상승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원작과는 달리 토슈즈를 벗기고 기존의 격식과 선입견에서 해방된 순수의 상징으로 신데렐라를 재탄생시켰다. 육감적이고 아름다운 요정으로 부활한 신데렐라의 친엄마와 죽은 엄마를 잊지 못하는 신데렐라의 아버지를 부각시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신데렐라와 왕자의 사랑으로 이어져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안무가인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Jean-Chritophe Maillot)는 1977년 17세의 나이로 로잔상을 수상하고 함부르크 발레단에서 5년간 주역으로 활동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쉽게도 솔리스트로의 활동을 접은 그는 1983년 안무가와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983년 마이요는 추후 국립안무센터가 되는 고향의 Tours 대극장 발레단의 감독으로 20여 개의 작품을 창작하고, 1985년 무용축제 'le Choré graphique'을 창설하기도 했다. 이후 모나코의 초청으로 제작한 'Le Mandarin Merveilleux'의 대성공으로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고문이 된 후 1993년 그의 팬을 자청하는 모나코의 하노버 공주의 강력한 지원으로 몬테카를로 발레단 감독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몬테카를로 발레단에서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는 '로미오와 줄리엣' '파우스트' '신데렐라' 등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에서부터 Noces, Opus40과 같은 근현대적 작품까지, 다양한 범주에 이르는 장르의 창작 활동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마이요는 1999년 모나코 왕실에서 수여하는 문예진흥상, 2001년 〈라 벨르〉로 모나코 댄스포럼의 '니진스키 어워드' 최고안무상, 2002년 이탈리아 비평가들의 'Danza & Danza Prize' 베스트쇼상, 2008년 브누아 드 라당스 최고안무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2006년 발레계의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브누아 드 라당스에서 '완벽한 상체 라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등극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주원(신데렐라 엄마, 요정)을 비롯하여 이영철(19일, 신데렐라 아빠), 정남열(20일, 신데렐라 아빠), 박슬기(19일 신데렐라), 신승원(19일 신데렐라), 이동훈(19일 왕자), 정영재(20일 왕자), 윤혜진(19일, 계모), 김리회(20일, 계모) 등이 출연한다.

PROLOGUE

ACT. Ⅰ

1장 _ 신데렐라의 집1

2장 _ 신데렐라의 집2

3장 _ 왕자의 등장

4장 _ 이야기 속 이야기

5장 _ 무도회장

ACT. Ⅱ

6장 _ 무도회장

7장 _ 자정

ACT. Ⅲ

8장 _ 왕자의 여행

9장 _ 신데렐라의 집

10장 _ EPILOGUE

· 예술감독/최태지
· 음악/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 안무/장-크리스토프 마이요
· 무대/에른스트 피뇽-에른스트
· 의상/제롬 카플랑
· 조명/도미니크 드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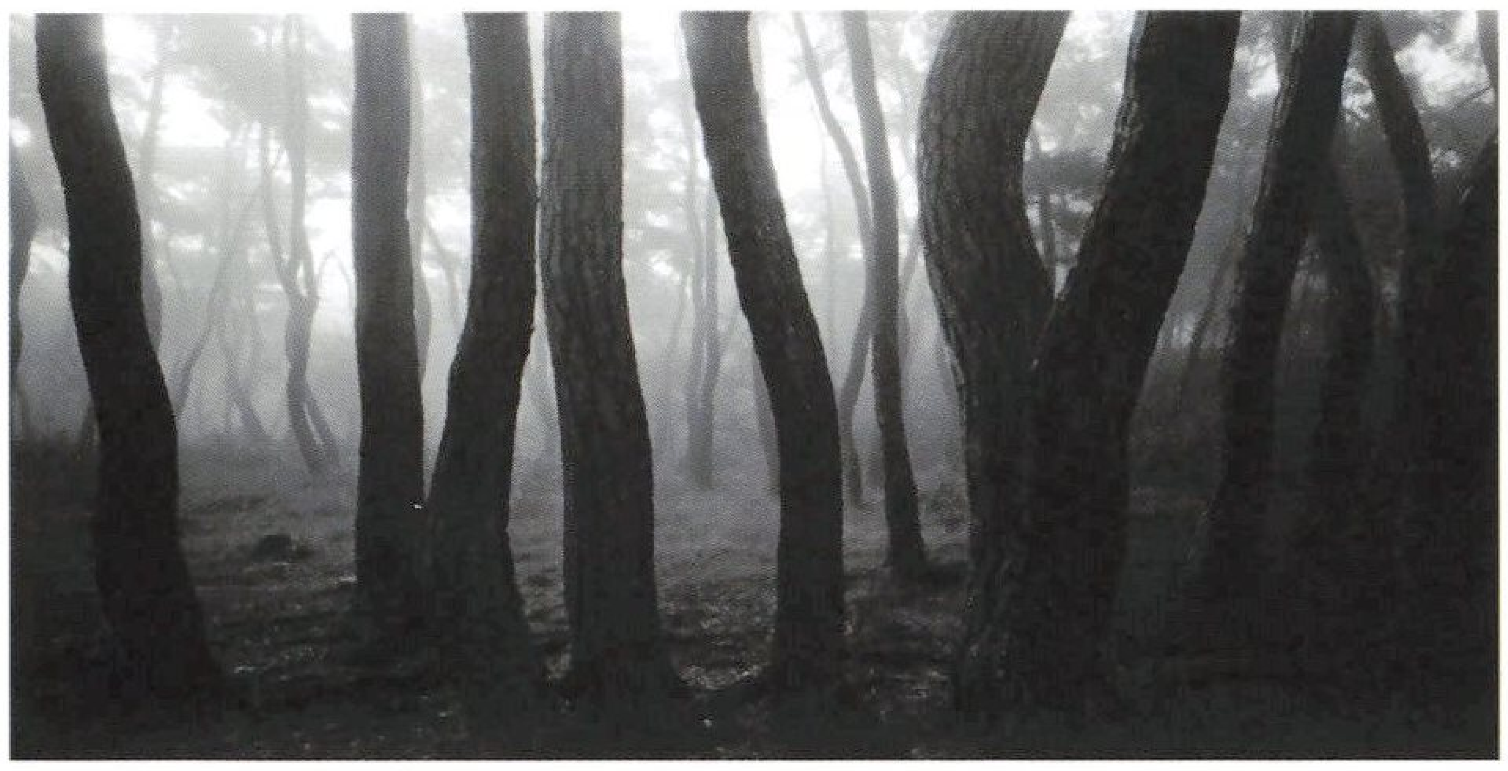
■ 관람대상 8세 이상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국제신문(500-5222)

부산시립미술관 다채로운 기획전

배병우 사진전, 김창렬展,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부산의 작고작가전


배병우-sea1a-020h(178×303cm_2007)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들의 작품전에서부터 부산의 주목받는 신진작가, 그리고 새롭게 조명되는 부산의 작고작가 작품전까지 부산시립미술관에 가면 다채로운 기획전을 만날 수 있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온가족이 함께 미술관 나들이를 해보자.

우선 한국과 한국인의 깊은 심상에 잠재한 소나무의 기상을 화폭 속에 담아내 '소나무 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작품전이 2월 7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시실에서 펼쳐진다.

'미술가가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사진으로 자연을 그리는 예술가'라는 호평을 받으며, 빛과 선을 통해 한국적 미감을 구현하는 그만의 독특한 회화적 사진세계를 선보여온 배병우는 2006년 스페인 문화재관리국 요청으로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궁을 2년간 촬영하면서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소나무 사진을 비롯해 부산바다 풍경, 한국과 이슬람의 궁정양식과 정원을 대표하는 창경궁과 알함브라궁의 작품사진 37점이 전시된다.

작가 김창렬의 작업실

'물방울'이라는 대상을 통해 동양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렬 작품전은 2월 15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대전시실에서 펼쳐진다.

백남준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의 현대미술작가이자 한국 현대미술사를 헤쳐나온 산증인인 김창렬은 1969년 미국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수학시절부터 1970년대 프랑스 파리 근교에 정착한 이후 '물방울'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유럽과 미주 지역 미술관에서 가진 전시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김창렬은 그가 작품활동을 가졌던 프랑스 정부로부터 1990년 기사작위를, 1996년에는 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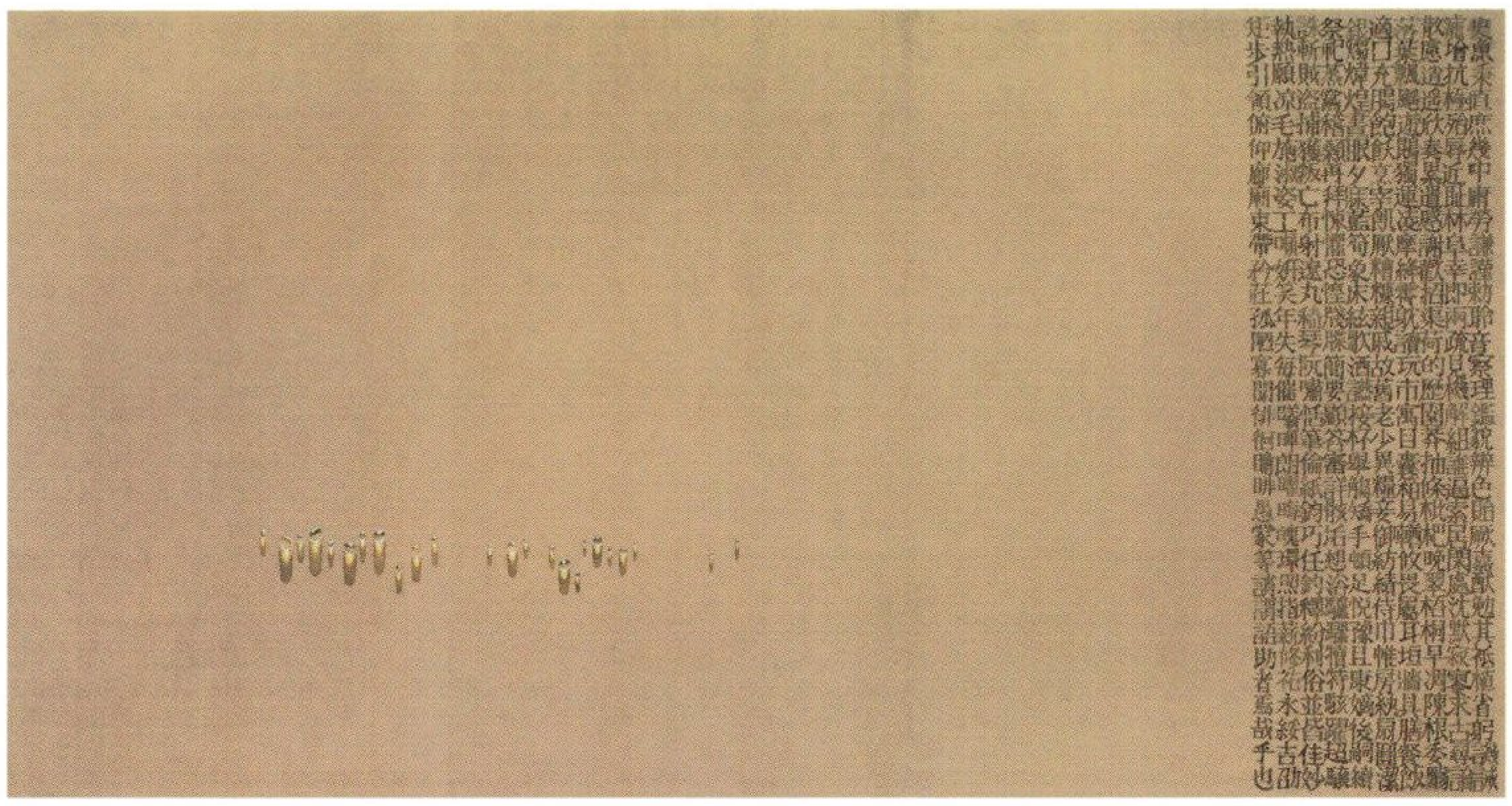
그의 대표작인 '물방울'은 캔버스 위로 뭉글거리는 형상으로 무언가 솟아오르려는 1960년대 초창기 작품부터 하얗고 커다란 한 방울의 물방울이 노란 캔버스 위로 명확히 떠오른 미국 체류시절 당시의 작품, 이후 미국을 떠나 프랑스로 이주하면서부터는 물방울이 더욱 맑고 투명해졌으며 한자, 모래, 나무, 삼베 등 다양한 밑바탕 작업을 통해 자연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나는 사색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물방울'이 탄생하기 전 초기작품에서부터 미발표작을 포함한 최근작까지 작가 평생에 걸친 작품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최근 1~2년 사이 참신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 집중 조명함으로써 젊은 작가들에게 창작의지를 북

돋우고 관객들에게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는 2월 15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지문, 김대홍, 박성란 등 세 명의 신진작가를 선정, 작가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 담긴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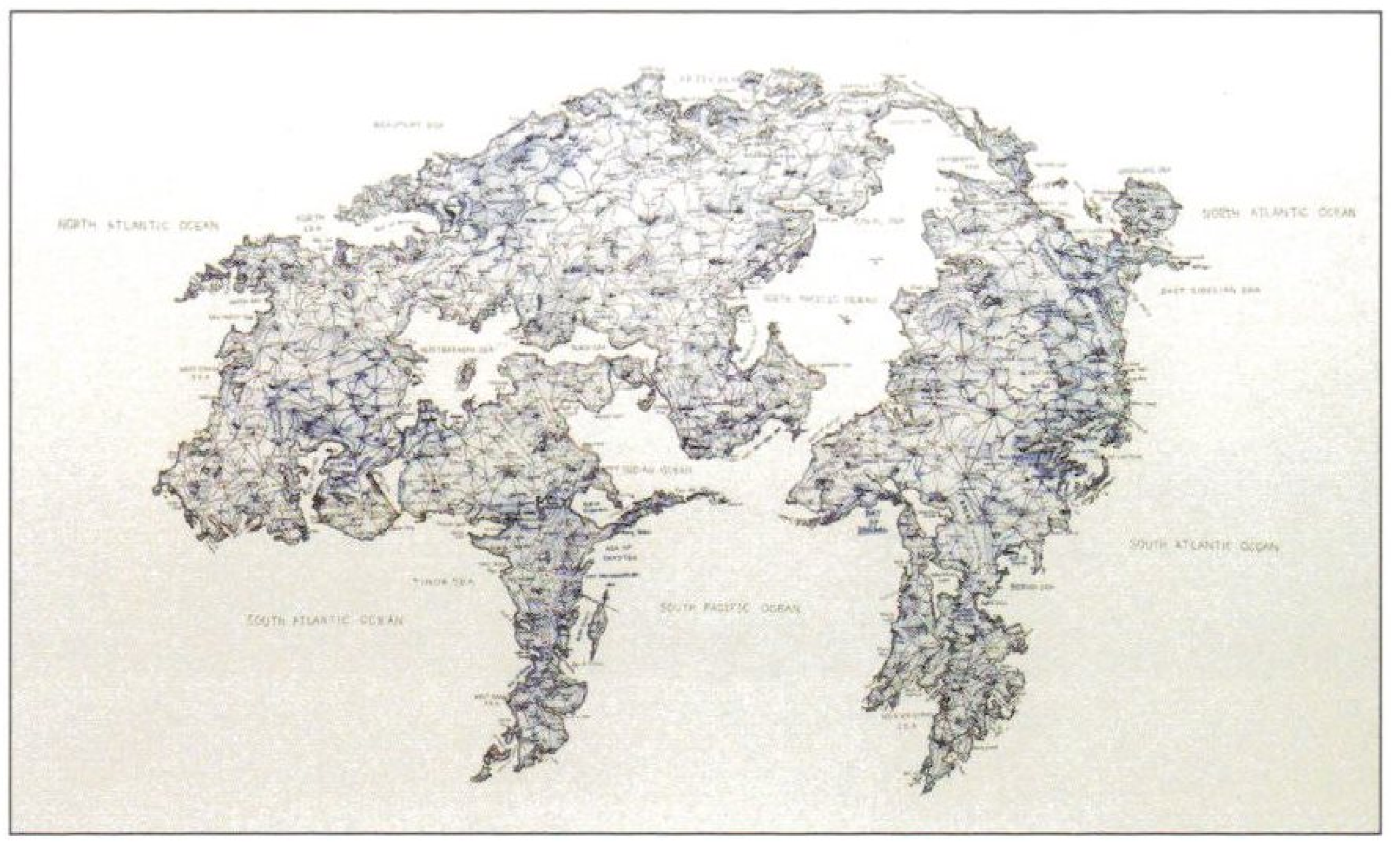
김창렬-회귀(260x500 캔버스에 유채 1989)

작가 김지문은 세계지도를 부위별 명칭으로 구성된 한 마리의 정육점 돼지에 비유해 세계가 구성되는 권력적 구조를 비판하고, 박성란은 도시에서 쏟아져나오는 산업폐기물을 꽃, 나비로 형상화시켜 존재의 무수한 잠재성을 이야기한다. 설치작품 '자기만의 방' 을 선보이는 김대홍은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관객을 안내해 현실 속의 비현실을 구성, 또 다른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작업과정과 인터뷰를 담은 영상자료를 함께 제공해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밖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잊혀진 부산 작가를 소개하는 '부산의 작고작가전' 은 2월 21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산 서양화가들의 모임인 '토벽' 동인으로 활동하다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작가 김경과 17세의 나이로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입선하면서 그림의 천재로 주목받았으나 역시 재능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여성작가 김천옥,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 (매주 금요일은 오후 8:00까지, 월요일 휴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rt.busan.go.kr)



김지문-세계지도The World #03
(97cmX162cm 종이에 수성펜 2005)

박성란-Allegory-서로다른이야기_02_
(161x132cm종이에_콩테_과슈200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 이야기

●2월 5일(금), 12일(금), 18일(목), 26일(금)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10년 미취학 아동들의 친근한 음악선생님으로 어린이 친구들과 만난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 이야기'는 오케스트라 악기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부산색동어머니회 이소영이 동화구연을 하고, 악기 설명,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클래식 명곡 연주, 직접 악기를 만지고 연주해보는 악기 체험 등으로 구성,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높여줄 계획이다.

악기가족 이야기는 지난해 7월 가진 쇼케이스 공연에서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춘 새로운 형식의 음악회라는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8회의 음악회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1월에는 21일 북구문화빙상센터공연을 시작으로 3회의 공연이 펼쳐졌고 2월에는 5일과 12일 뿌우뿌우 나팔가족이야기, 18일과 26일 쿵쿵탕탕 타악기 가족이야기, 25일 찌까찌까 바이올린 가족이야기가 펼쳐진다.

안명기, 박종원, 박의근, 정우철, 송인봉, 이은정이 연주하는 뿌우뿌우 나팔가족이야기는 대표적인 금관악기인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로 스토리를 구성, 재미있는 나팔 가족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영립, 이은정, 전영수, 조용길, 박용갑, 김왕진이 연주하는 쿵쿵탕탕 타악기 가족이야기는 팀파니, 스네어 드럼, 차임, 마림바, 실로폰, 큰북, 트라이앵글, 베이스 드럼 등 다양한 타악기들을 만날 수 있다.

김동욱, 김영희, 박영주, 정현숙, 정명호, 이은정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가족이야기는 아빠 더블베이스, 엄마 첼로, 누나 비올라, 막내 바이올린이 등장,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음악회를 열어준다.

□ 일 정

2월 5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8일(목)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2월 25일(목)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2월 26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관람료** _ 균일 1,000원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박물관 2010 호랑이띠 展

●1월 19일(화)-3월 1일(월) ●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송하호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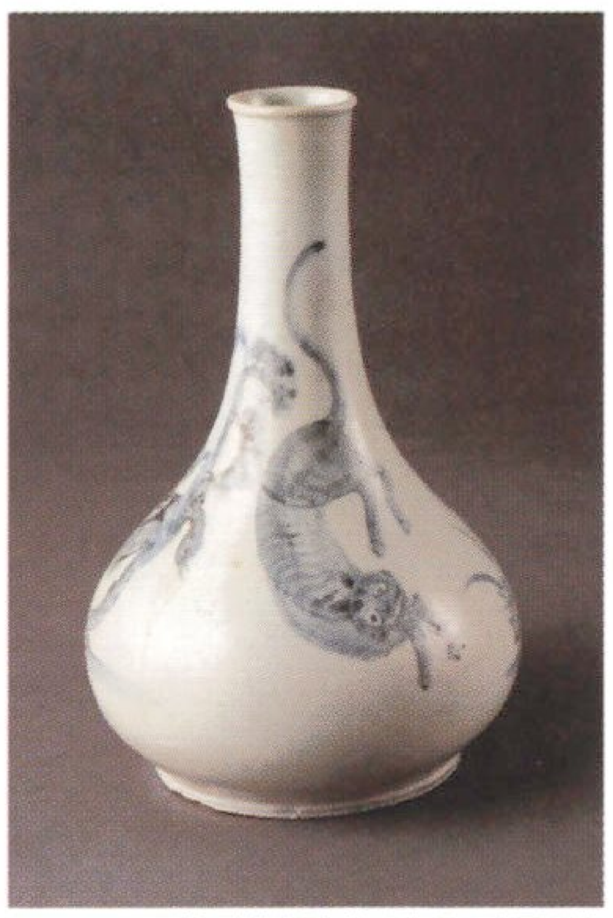
2010년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부산박물관에서는 '호랑이 해'를 기념하는 '2010 호랑이띠 展'이 열리고 있다.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세 번째 동물인 호랑이는 힘과 용맹함의 표상으로, 예로부터 우리민족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정초에 호랑이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부적에 그려놓으면 행운을 가져준다고 했으며, 호랑이의 뼈나 이빨, 수염, 가죽 등 신체의 일부나 혹은 호랑이를 나타낸 그림이나 조형물 등을 집 안팎에 비치하거나 휴대하면 잡귀를 물리친다고 여겼다. 또,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임에도 불구하고 보은이나 권선징악을 들려주는 각종 설화에 등장해 우리 민족과는 가장 친근한 동물로 사랑받으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호돌이' 마스코트가 탄생되기도 했다.

특히 속담과 민담 등 문학작품과 민화, 자기 등 미술품, 생활용품 등 각종 유물에도 호랑이가 많이 등장해 예로부터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 문헌 '후한서' 동이전에는 우리나라를 '호랑이를 신으로 받들어 제사지내는 나라'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 우리 문헌상에도 신라 헌강왕 때 호랑이가 궁궐에 나타났다는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삼국사기'를 비롯해 단군신화가 실린 '삼국유사', '고려사' 등에 호랑이와 관련한 기록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 민족의 신앙과 설화, 예술, 생활 등 문화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호랑이의 상징체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나전베갯보와 자수병풍, 백자청화병, 필통, 담배함, 동경 등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허리띠장식, 흉배 등의 복식, 상여장식 및 십이지호석 탁본 등 장례 관련 유물, 그림 등 23점의 작품이 전시되는데, 특히 까치호랑이 그림 가운데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된 희귀한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
(토요일 무료관람, 월요일 휴관)



백자청화송하호작문병

▶ **관람료** _ 일반 500원 · 청소년 300원 · 어린이 무료
▶ **문 의** _ 부산박물관(610-7142)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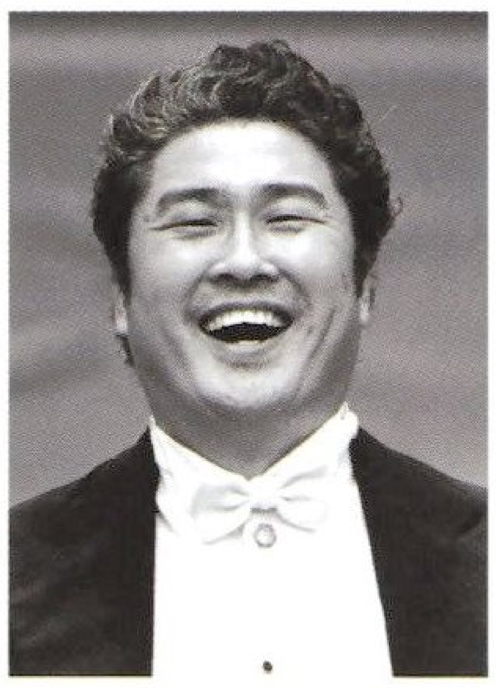
●3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리 신차오

소프라노 이화영

카운터테너 샤오 마

테너 이정원


바리톤 우주호

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3월 5일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담은 신춘음악회로 2010년 봄맞이에 나선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2010년 첫 무대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소프라노 이화영, 테너 이정원, 바리톤 우주호, 중국 최고의 카운터테너 샤오 마의 협연으로, 전 세계 음악애호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오페라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들려준다.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는 지난해 6월 취임이후 특유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음악성으로 국내외 음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국립 교향악단(CNSO)의 상임지휘자로 2002년 일본, 호주,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순회연주를 펼친 리 신차오는 CNSO의 도쿄 공연 후 언론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리의 지휘 스타일은 세이지 오자와를 닮았다" "마에스트로의 지휘를 보고 있노라면 동양의 음악인임에도 서구 음악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그를 보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일이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싱그러운 봄소식을 전해줄 소프라노 이화영은 Maria Caniglia콩쿠르 1위를 비롯해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비오티국제성악콩쿠르 등 다수 콩쿠르에 입상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 '아이다'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친숙한 테너 이정원은 프랑코 코렐리 국제 성악콩쿠르와 마리아칼라스 콩쿠르, 티토 스피카 국제성악콩쿠르 1위 입상 후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지의 국립극장에서 '한국인 칼라프'로 화려하게 주목 받아왔다. 2006년 시즌에는 프랑스 마르세이유 극장의 오페라 '투란도트', 이탈리아 나르니 오페라 페스티발의 '아이다', 프랑스 투롱극장 오페라 '투란도트', 2007 세계적인 오페라 페스티발 중 하나인 핀란드 사본린나 오페라 페스티발 초청공연 등을 가지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왔다.

2008년 4월 한국인 테너로는 처음으로 라 스칼라 극장에서 오페라 '맥베드' 중 '막두프'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가진 이정원은 풍부한 성량과 초점이 정확한 발성, 매끄러운 고음처리, 호소력 짙은 해석으로 깐깐한 이탈리아 청중들의 찬사를 받았다.

바리톤 우주호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이탈리아로 유학, 베네벤또 국립음악원, 빼로지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세토 베르디 콩쿠르 특별상, 국제 라우리 볼피 콩쿠르 3위, 프란체스코

국제 콩쿠르 1위, 비냐스국제콩쿠르 특별상 등 6개 콩쿠르에서 두각을 보이며 유럽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페라에서 줄리아노, 니꼴로지, 미켈레, 스텔라, 크리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활동하면서 그 자신의 음악을 성숙시켜온 우주호는 베르디와 푸치니 음악의 가사에서 오는 극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는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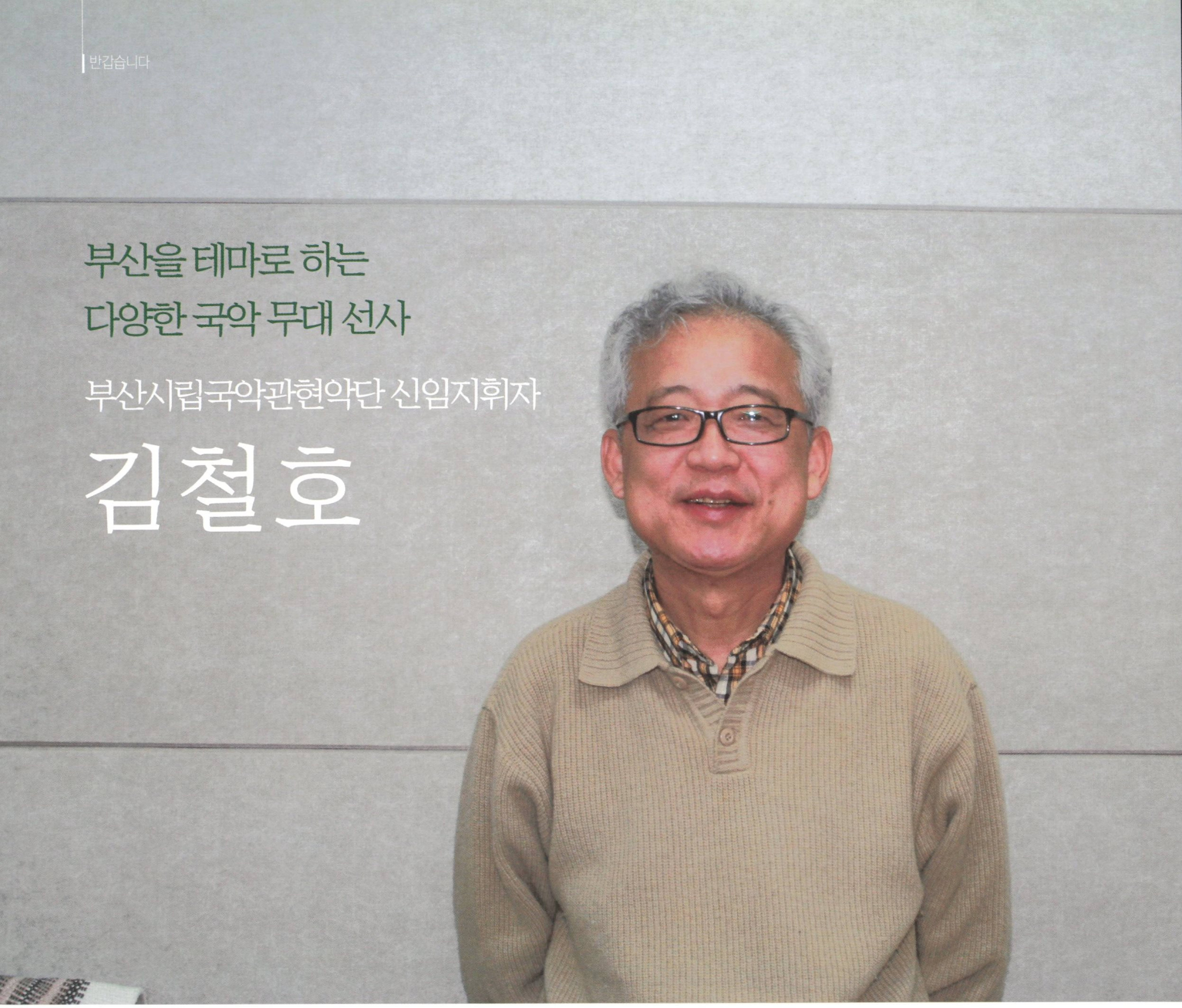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카운터테너 샤오 마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음악 뿐만 아니라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 등 다양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 카운터테너 중 한사람이다. 2007년 '골든벨컵' 중국국립성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광저우), 2008년 중국국립성악콩쿠르 3위(하얼빈)에 입상한 샤오 마는 2006년부터 중국의 수많은 오케스트라들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2007-2008년 상하이오페라단과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케루비노' 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샤먼, 푸저우 공연을 가졌고 지난해는 미국 리릭 오페라 노스웨스트가 제작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케루비노' 역으로 시애틀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로시니 '도둑까치' 서곡으로 막을 여는 이번 무대는 1부에서는 소프라노 이화영이 베르디 '운명의 힘' 중 '평화, 평화를, 신이여',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를, 테너 이정원이 푸치니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바리톤 우주호가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중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을'을 들려준다. 1부 마지막 곡은 소프라노 이화영과 테너 이정원이 이 푸치니 '나비 부인' 중 '아름다운 그 눈으로'로 감동을 전한다.

모차르트와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으로 선곡한 2부 무대는 카운터 테너 샤오 마의 무대에 기대가 모아진다. 샤오 마는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내 자신을 알 수 없네' '사랑의 고통을 그대는 아는가'를 들려준다. 샤오 마는 소프라노 이화영과 '피가로의 결혼' 중 '산들바람에… 오 부드러운 바람', '돈조반니' 중 '우리 손을 맞잡고' 등을 함께 노래한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9월 1일 이전 가입한 정기회원은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이후 가입한 정기회원은 20% 할인됩니다.)

▶ **문　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부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국악 무대 선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지휘자

김철호

작곡자로, 연주자로, 지휘자로 우리 국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철호 지휘자가 2010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 지휘자로 부산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우리 국악관현악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지휘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음악에 큰 발전을 이루어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김철호 지휘자는 부산과 인연이 많다. 그는 사하구 괴정동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어린시절 부산을 떠나 부산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부산의 정서가 살아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는 지난해 제 147회 정기연주회를 객원지휘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연주회 장소인 을숙도문화회관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괴정을 둘러보며 50여년의 세월을 거슬러 추억에 젖기도 했다.

"지난 객원 연주에서도 느꼈지만 부산에 오기 전까지는 부산의 연주자들이 진지함과 치열함이 다소 부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런데 기우였어요.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 잘해보려는 의욕들이 넘쳐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1월 4일 2010년 시무식과 함께 본격적인 부산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보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의욕적인 단원들의 모습에 큰 힘을 얻는다.

김철호 지휘자는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만들어온 좋은 전통을 잘 이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관현악단이 되기 위해 단원들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는 전통문화를 현대화하는 창작 작업과 부산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기획공연 등 보다 다양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잊고 지내는 전통적인 절기의 의미를 함께 하는 공연을 기획, 음악으로 우리의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작업도 해 나가고 싶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1월 28일 우리전통음악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신년음악회로 2010년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풍금도 귀하던 어린 시절, 음악을 좋아해 합창 단원으로 활동한 그는 국악학교(국악사양성소)를 다니던 이웃집 형의 권유로 우연히 국악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국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에 진학했지만 그 음악이 너무 좋았지요. 공부가 어려워서 많은 친구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어요."

대금을 전공한 김철호 지휘자는 김성진, 김기수, 김주헌 선생에게서 대금을, 김중섭 선생에게 단소를 배웠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국악원 대금연주자로 활동한 그는 88올림픽을 앞두고 연주에 필요한 편곡 작업을 맡은 것을 계기로 편곡, 작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관현악곡 '금산' 과 무용곡 '꽃신' 은 그의 대표작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연주되고 있다.

지휘자로 활동 영역을 넓힌 김철호 지휘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와 청주시립국악단,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상임지휘자로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왔다. 국립국악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한 김철호 지휘자는 재임시절 정악단과 민속악단, 창작국악단을 창단하는 등 우리 음악의 현대화 작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연주자, 작곡자, 지휘자,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지만 그 자신은 연주 활동에 큰 매력을 느껴왔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인만큼 연주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대에서 청중들과 교감하며 혼신을 다할 때의 즐거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작곡자나 지휘자는 우리 음악의 세계를 넓히고 우리 국악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행정가로서는 그 자신이 악기 연구소 창립과 국립부산국악원 개원을 주도했던 것처럼 정책적인 비전을 세우고 펼쳐 나갈 수 있어 그 나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국립국악원장 재임 중 건립한 국립부산국악원이 개관되어 부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가 많아져 무엇보다 기쁘다. 앞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이 자기 색깔을 유지하며 진지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그는 단원 개인이나 단체가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해 비전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하루하루 예술가로서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연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냉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산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김철호 지휘자는 3월 17일 취임연주회에서 백호의 밝고 의연한 기상을 담은 흥겨운 우리 음악을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글/백경옥)

저기 봄까치꽃 피어

정일근 _ 시인

사진/정일근

은현리에 '봄까치꽃' 이 피었습니다. 한겨울 속에서 봄까치꽃이 피어 꽃이 까치처럼 울어야 은현리에도 봄이 옵니다. 봄까치꽃은 현삼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 그 키 작은 풀에 콩알보다 작은 하늘색 꽃이 수북하게 무리지어 피는데, 마치 때까치들이 모여 멀리 있는 봄을 향해 어서 빨리 찾아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현리에서 10년째 은현리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봄까치꽃은 처음 몇 년 동안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꽃이

은현리 풍경에서 詩를 읽다

었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길가에 피어있는 흔한 꽃이었는데도, 은현리에서 새해 들어 가장 먼저 피는 반가운 꽃이었는데도, 봄까치꽃과 시인이 첫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 해가 지나야 했습니다.

봄이 먼 어느 날, 햇살 따스한 곳에 쪼그리고 앉아 마을버스를 기다리다 처음 봄까치꽃과 첫인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은현리에서 가장 빨리 피는 꽃이 매화인 걸로 알았는데 햇살이 쏟아지는 제 발 아래 수북수북 도록도록 무리지어 피어있는 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먼데 벌써 꽃이 피다니! 저는 하늘과 땅이 사람에게 겨울이란 고통을 주실 때 봄까치꽃이란 선물도 함께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입춘(立春)보다 먼저 일어서 당당히 피는 꽃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있는 것이어서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사람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겨울추위를 저 작은 꽃이 피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봄까치꽃을 만나면 항상 무릎을 꿇고 인사를 청합니다. 만약 신(神)이 있어 그 꽃을 보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도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볼 수 있는 꽃이 봄까치꽃입니다.

까치마저 숨어버린 찬 바람 부는 자리에 봄까치꽃이 핍니다. 봄이 그러하듯이 희망 또한 그러하듯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꽃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리지도 않는 봄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 봄까치꽃을 볼 때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이기고 돌아오라' 중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그리운 그대 얼굴도 보고파 눈물은 흘러 나의 볼을 씻네. 나 누구를 위하여 울고 있나.' 봄까치꽃은 해마다 겨울을 이기고 돌아와 시인을 눈물나게 하는 꽃입니다. 그 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꽃을 주신 하늘과 땅에 감사를 드리는 일 뿐입니다.

민망스럽게도 봄까치꽃의 본명이 '개불알풀' 입니다. 작은 열매의 모양이 콩팥을 닮았는데 그것을 보고 꽃이 알면 화라도 낼 것 같은 이름을 사람이 붙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문자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연의 이름을 장난치듯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건 분명 언어폭력입니다. 애기똥풀, 방가지똥풀, 며느리배꼽풀, 며느리밑씻개풀, 며느리밥풀꽃, 미치광이풀, 노루오줌풀……, 그런 이름들 앞에서 저는 참 미안합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스스로 아름다운 꽃 피우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사람이 꽃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개불알풀이란 이름 대신 봄까치꽃이란 좋은 이름을 다시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 꽃이 봄까치꽃이란 이름을 가졌기에, 까치소리를 들은 봄이 지금 이 겨울 속으로 걸어 걸어 은현리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체칠리아 대성당 내부

음악의 수호자 체칠리아 성녀

백 정 빈 _ 이탈리아 통신원

유럽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로마에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로마 시를 관통하여 서해안 바다, 티베리안해로 흐르는 테베레(Tevere)라고 불리는 강이 있다. 이 강 주변에는 트라스테베레(Trastevere)라는 지역이 있다. 문자 그대로 '테베레 강 건너편' 이라는 뜻이며, 자존심 세고 독립심 강한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로마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로마에서 가장 볼 만한 구시가지인 이곳에서는 아직도 먼 옛날의 전통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로마에서 가장 볼 만한 중세 성당들 몇 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성당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종탑이다. 성녀 체칠리아 대성당(Basilica di Santa Cecilia)은 로마 중세의 성당을 대표하는 성당들 중 하나로, 이 성당은 230년에 자신의 집에서 순교한 성녀 체칠리아 집터에 지어지게 되었다.

체칠리아 성녀의 생애

체칠리아의 이름은 고대 라틴어로는 케킬리아, 영어와 에스파냐

어로는 세실리아, 이탈리아어 및 중세 라틴어로는 체칠리아, 프랑스어로는 세실리이며 중세의 어원론에 따르면 이 이름은 하늘(Caeli)과 백합(Lilia)과 관련하여 '천상의 백합'을 뜻한다.

성녀 체칠리아는 로마 제국의 유서 깊은 명문 귀족 집안의 규수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부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랐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은 원치 않았지만 발레리아누스라는 청년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체칠리아는 자신의 결혼식 때에 마음속으로 오직 하느님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그에게 동정 서약을 하는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였기 때문에 정작 결혼 음악과 환호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체칠리아는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종교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종신 동정을 서원했음을 밝히고 이를 지키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면서 수호천사가 자기를 보호해 주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교도였던 발레리아누스는 체칠리아가 말한 수호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그녀에게 그 천사를 보여 주면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체칠리아는 그를 교황 우르바노 1세에게 보내 교리를 공부하게 하여 결국 자신의 동정유지를 남편으로부터 승인 받음은 물론 더 나아가 남편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켰다. 그러자 남편은 신기하게도 체칠리아의 수호천사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천사로부터 발레리아누스는 장미관을, 체칠리아는 백합관을 받았다. 발레리아누스는 역시 기독교로 개종한 동생 티부르시우스와 함께 사치스러운 생활을 피하고, 재산을 팔아 빈민들을 위한 자선활동에 전념하고 전교활동을 하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행정관 알마치우스에 의해 체포되어 심한 매질을 당한 후 막시무스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참수당했다.

체칠리아는 이 3명의 순교자들을 장례 지낸 뒤에 체포당했다. 그녀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노라고 표명하였다. 결국 그녀의 믿음을 도저히 꺾을 수 없다고 여긴 알마치우스는 그녀에게도 사형을 언도하였다. 체칠리아에게는 뜨거운 목욕탕의 증기로 죽이는 처형법이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체칠리아는 자신의 집 목욕탕에 들어가서 24시간(일설에 의하면 3일)이나 갇혀

체칠리아성녀의 임종

있었지만 죽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알마치우스는 그녀를 참수형에 처하기로 다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형리가 3번이나 그녀의 목을 친 뒤에도 3일 동안이나 모진 고통 속에서도 목숨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체칠리아 성녀를 방문했으며 그 중 우르바노 1세 교황도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체칠리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느님께 3일의 시간을 청했었다고 한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녀는 오른쪽 손가락 3개와 왼손의 검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자기는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믿고 그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표시하여 자신의 믿음을 알렸고, 교황에게 자신의 집을 봉헌하며 성당으로 개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말을 남긴 후 4일째 되는 날, 체칠리아는 순교하였다. 그녀의 유해는 성 갈리스도 카타콤바에 매장되었다.

체칠리아 집터에 세워진 체칠리아 대성당

체칠리아 대성당(Basilica di Santa Cecilia)은 바로 230년에 순교한 체칠리아의 집터에 세워진 성당이다. 초기에는 체칠리아 성녀의 집은 가정교회(Domus ecclesiae) 중 하나로,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던 초기 신자들이 모여 성찬례를 행하고 함께 기도하던 장소였는데, 4세기경 세례당이 발견됨으로써 9세기에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이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

스테파노 마데르노가 조각한 성녀의 조각상

체칠리아 성녀 무덤 정면 모자이크

고 있다. 그 후 성 대그레고리오 교황(590-604)에 재건되었고, 821년 교황 파스칼 1세가 성당을 보수하면서 성 갈리스도 카타콤바에서 발견된 성녀의 유해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녀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 못했던 파스칼 1세의 꿈속에 성녀가 나타나 자신의 유해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발견된 그녀의 석관을 열어 보니, 수백 년이 지난 후인데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그 유명한 손가락 모양도 그대로였다고 한다.

이에 감복한 교황은 예식을 갖추어 그녀를 성녀로 인정하고, 유해를 성 체칠리아 대성당의 지하묘소에 안치하였다. 1599년, 이듬해의 성년을 준비하면서 교황 클레멘스 8세에 의해 새롭게 성당이 복원되어 체칠리아 성녀의 석관을 다시 열게 되었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목에 남은 칼자국과 오른쪽 손가락 3개와 왼손의 검지를 펴고 있는 모습이 여전했다고 한다. 교황은 당시의 유명조각가 스테파노 마데르노(Stefano Maderno)에게 대리석으로 성녀의 그 모습을 조각하게 하였고, 그 유명한 조각상은 현재 체칠리아 성당 제대 밑에 자리하고 있다. 유해가 발견된 성 갈리스도 카타콤바의 그 자리에서는 이 조각의 복사품을 볼 수 있다.

이 조각상 아래에 위치한 지하묘지에는 체칠리아 성녀뿐만이 아니라 남편 성 발레리우스, 그의 형제 성 티부르시우스, 로마군인이었던 성 막시무스와 함께 성 우르바노 1세와 성 루치오 교황의 유해도 같이 모셔져 있다. 제대로부터 연결된 계단을 통해 내려가게 되어 있는 이 지하묘지 경당에는 12개의 기둥이 아취 형의 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취에 장식된 정교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는 1902년 죠반니 바티스타 죠베날레(Giovanni Battista Giovenale)의 작품이다. 또한 이 성당 뒤편의 이층가대에는 13세기 작품인 삐에뜨로 까발리니(Pietro Cavallini)의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 벽화가 유명하다. 성당의 건축은 오리지널 바로크 양식이며 현재의 모습은 1724년 프란체스코 아꽈비바(Francesco acquaviva) 추기경에 의해 복원된 것이다.

성녀 체칠리아가 음악의 수호자가 된 동기

가톨릭 교회는 체칠리아 성녀를 음악의 수호자로 모시고 있다. 성녀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음악의 수호자가 되었는가는 대단히 불분명하다. 실제로 성녀 체칠리아와 음악의 명시적인 연관이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은 후기 중세이다.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성녀의 축일 미사 입당송 라틴어 경문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그 문제의 라틴어 경문은 'Cantantibus organis, Cecilia virgo in corde suo soli Domino decantabat dicens: fiat Domine cor meum et corpus meum inmaculatum ut non confundar' (악기들이 연주되는 동안 마음 속으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노래 불렀다. 주님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제 몸을 티 없게 하소서)인데, 이 문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이 내용이 체칠리아의 결혼 잔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악기들을 연주하는 가운데 체칠리아는 마음 속으로 하느님께 노래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더욱 왜곡된 번역으로 건너가는 것이 더 쉬워졌는데, '체칠리아는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 하느님께 노래 불렀다' 는 해석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15세기부터 성녀의 성화는 옆구리에 작은 오르간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실제로 더 오래된 문헌에는 이와는 다른 입당송 경문이 나타난다. 이 경문은 cantantibus나, 그와 동의어인 canentibus로 시작하는 경문 대신 candentibus organis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오르간은 라틴어로는 현재 알려진 악기가 전혀 아니

고, 고문도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입당송은 빨갛게 달구어진 고문도구들 사이에서 마음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체칠리아를 묘사하는 것이 된다. 즉 이 입당송은 결혼잔치가 아니라 순교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라틴어 텍스트의 와전으로 인해 15세기부터 성녀 체칠리아는 음악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보편적인데, 19세기 후반부터는 '체칠리아 운동'이라고 하는 모임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차차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1956년에 마에스트로 도메니코 바르톨루치(Domenicom Bartolucci)에 의해 탄생된 바티칸의 식스틴 성가대의 소년부 뿌에리 깐또레스(Pueri Cantores)는 매년 성녀의 축일인 11월 22일의 미사 중에 새 단원들의 선서식을 행하고 있다.

성녀 체칠리아의 베네딕도 수녀원

성녀의 무덤과 성당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약 9세기에 이곳에 수도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수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베네딕또 수도원(Monastero di Santa Cecili) 원장 마리아 죠반나 발렌찌아노(Maria Giovanna Valenziano) 수녀의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는 우밀리아띠라는 이름의 남자 수도원이 있었지만, 16세기에 폐쇄되고, 1527년에 여자 수도원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 수도원은 동방교회의 성 바실리오의 수도승 생활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로마로 올 때 나찌안조의 성 그레고리오(S. Gregorio Nazianzeno)의 유해와 아주 오래 된 '우리의 변호자(avvocata nostra)'라고 불리던 성모 마리아의 이콘을 가져왔다. 바로 이러한 교회일치적 표시가 세계 각지에서 온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수도공동체에 넓은 지평을 열어 주었을 것이다.

이 수도원의 수녀들이 하는 일들 중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바로 교황이 매년 6월 29일에 그 해에 새로 임명된 대주교들에게 수여하는 빨리움(Pallium) 제작이다. 매년 1월 20일 성녀 아녜스 축일에 로마의 트레 폰타네(Tre Fontane)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태어난 아기양 한 쌍이 교황에게 봉헌되는데, 교황의 강복을 받은 후 성녀 아녜스의 무덤에 잠깐 놓아 두었다가 이 수도원으로 옮겨와서 그 해 성 목요일까지 키운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어린양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에 도살되는데, 바로 그 양들의 털로 빨리움이 만들어지게된다. 실제로 이 트라스테베레 지역은 전통적으로 양모수공업으로 유명했던 지역으로서 현재는 바로 이 수도원에서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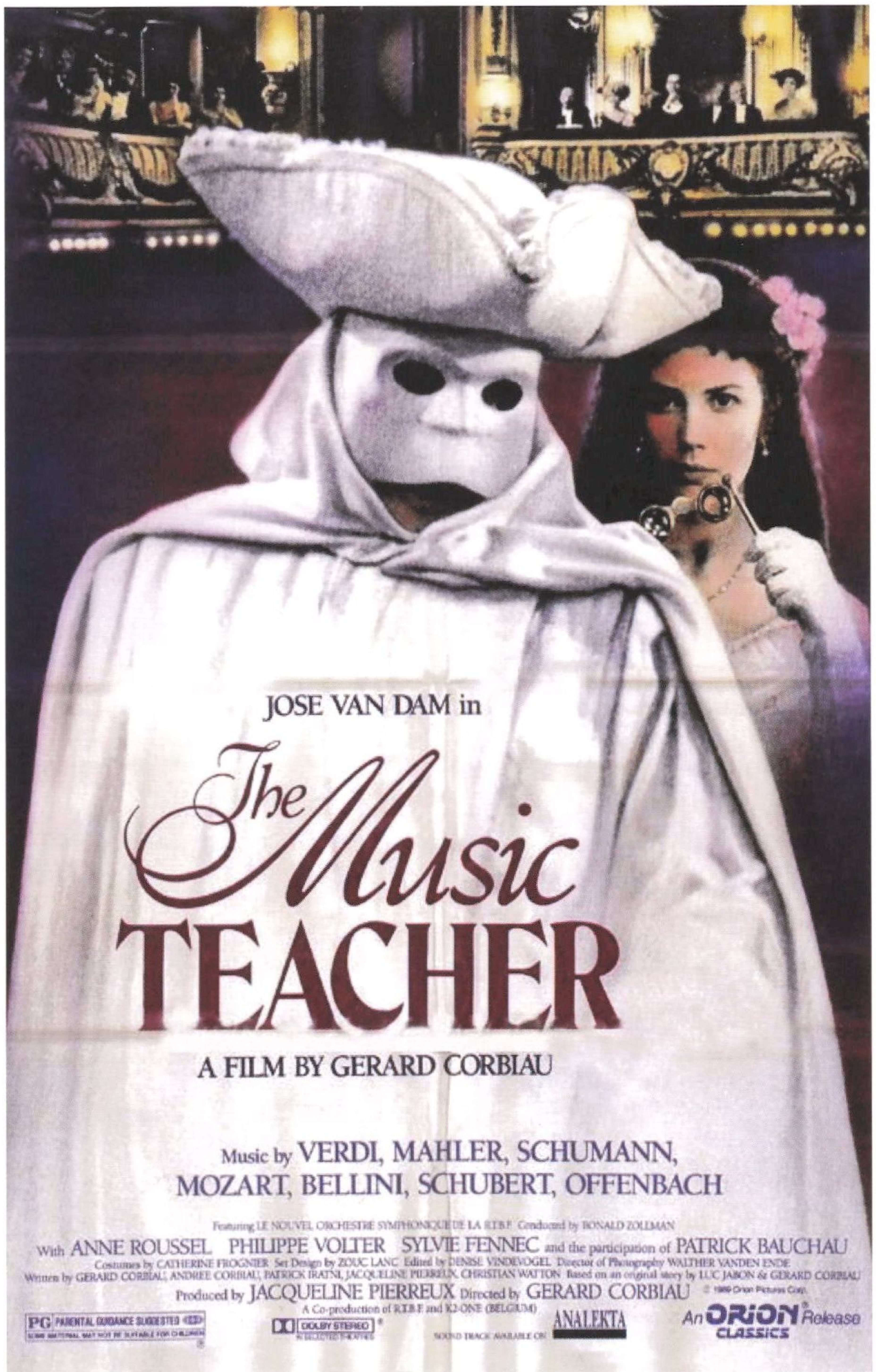
성당안 천장화

체칠리아 성녀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과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성당에 자리한 수도원은 대도시 한 가운데서 수도승 전통과 현대인의 영적 갈망과 필요를 조화롭게 통합해가는 장소로서, 아름다움과 희망의 표지가 되고 있다. 특별히 로마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녀 앞에서 사랑을 서약하고 혼인성사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성당의 특징 중 하나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음악인으로서 전 세계 음악인들의 수호자인 체칠리아 성녀의 생애와 성녀를 모시고 있는 이 성당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미 앞서간 많은 대선배 음악가들이 말했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보다는 내면적이며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음악도가 되고 싶다는 염원을 더욱 키우게 된다.

이탈리아 통신원 백정빈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립성음학교와 프로시노네 L.Refice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프로시노네 L.Refice국립음악원 성악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가면속의 아리아
Le Maitre de Mus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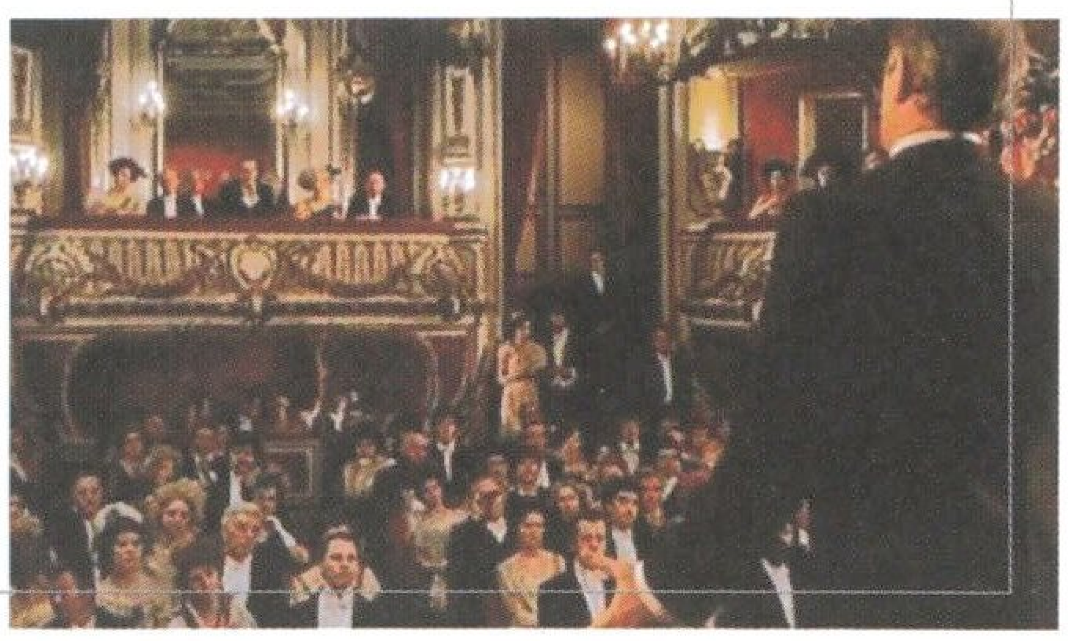
이 동 신 _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어떻게 하면 클래식음악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와 함께 듣는다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된 영상과 어우러지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율처럼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가면속의 아리아〉는 〈파리넬리〉, 〈왕의 춤〉 등으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 음악영화의 거장 제라드 코르비오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다. 은퇴한 바리톤 요아킴과 그의 반주자이기도 했던 부인,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음악을 전수시키려는 젊은 소프라노와 거리에서 우연히 발탁한 젊은 테너, 이렇게 네 사람이 펼치는 미묘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음악가들의 삶을 잔잔하게 그린 클래식음악 영화의 수작이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한 성악가의 독창회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건강악화로 현역활동에 한계가 왔음을 느낀 바리



톤가수 요아킴의 고별무대. 은퇴 후 그는 단 한 명의 제자인 소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소피는 요아킴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고 요아킴 또한 소피에게 애정을 느끼지만 스승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소피가 부르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 질다의 아리아 〈그리운 그 이름〉은 소피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소피가 요아킴에게 레슨 받는 모차르트의 아리아 〈나는 모른다. 이 따뜻한 애정이 어디서 오는지〉와 두 사람이 나들이를 갈 때 부르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 중 유명한 이중창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역시 그들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소피가 스승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위로 흐르는 말러의 교향곡 제 4번 3악장의 아름다운 선율도 잊을 수 없다. 여제자의 고백에 스승은 낮고 온화한 목소리로 '넌 아름다워, 하지만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라고 달랜다.

어느 날 요아킴은 시장에서 경쾌하게 노래를 부르는 소매치기 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성악가의 재능을 발견한 그는 장을 집에 데려와 혹독하게 가르친다. 엄한 수업 끝에 장이 처음 부르는 노래는 말러의 〈대지의 노래〉 중 3악장 〈청춘에 대하여〉. 경극풍의 힘차고 간드러진 음악이 장의 젊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장 또한 점차 소피를 사랑하게 되던 중 이들은 오페라가수 경연대회 소식을 접한다. 주최자는 20년 전 노래대결에서 요아킴에게 패한 후 복수를 꿈꾸는 스코티 공작. 그는 아르카스라는 제자를 키워서 요아킴에게 도전해오고 장이 스승을 대신해 아르카스와 재대결을 펼친다. 가면을 쓰고 벨리니의 오페라 〈비앙카와 페르난도〉 중 아리아 〈많은 슬픔에〉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르는 두 성악가의 대결은 마치 스포츠 시합을 보는 것처럼 긴박하다. 결국 승리는 요아킴의 제자 장에게로 돌아가고 기쁨에 들뜬 소피와 장에게 스승의 부음이 전해진다. 요아킴의 시신을 실은 배가 안개 낀 강물위로 멀어져가는 장면에서 들려오는 말러의 가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는 이 영화의 백미이다.

〈가면속의 아리아〉라는 이 영화의 원제는 〈음악선생님〉(The Music Teacher)이다. 제라드 감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세계적인 바리톤 호세 반 담에게 자신의 첫 영화의 주연을 부탁했고 호세 반 담은 놀라운 연기로 이에 화답한다. 가슴 저린 메시지와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한 이 영화는 1988년 칸 영화제에 특별 초대되었고 1989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20세기 초반의 유럽 상류사회를 충실하게 재현시킨 미술과 의상, 수려한 촬영, 치밀하면서도 정감이 넘치는 연출 등이 모두 좋지만, 역시 전편을 수놓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다. 1980년대의 대표적인 음악영화 〈아마데우스〉에 비해 극적 구성은 단순하지만 섬세한 영상과 절제된 대사가 음악과 잘 어울려 한편의 훌륭한 음악회를 본 것 같은 뿌듯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아름다운 영화이다.

구스타프 말러의 죽음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1911년 2월 21일 말러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이탈리아 콘서트'가 열렸다. 시니갈랴의 서곡으로 시작하여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마르투치의 피아노 협주곡, 부조니의 '비애의 자장가', 보시의 '골도니아니' 간주곡으로 끝맺는 올 이탈리안(all Italian) 컨셉트의 프로그램이었다. 공연 전날부터 말러는 편도선의 심한 염증과 더불어 고열의 증상을 보여왔다. 주치의인 요제프 프렌켈은 말러에게 콘서트 홀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말러는 지휘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여러 옷으로 두껍게 싸인 상태로 연주회장에 도착하여 공연을 겨우 끝마치게 되었다. 이 공연이 그의 생애에 있어 마지막 콘서트가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이탈리아 콘서트' 다음날부터 말러는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열병의 징후가 훨씬 심하게 나타났다. 병세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말러의 혈액에서 많은 세균의 군락이 발견되었고 특히 Streptococcus viridans라는 균이 다수 검출되었다. 말러의 사인(死因)은 잦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심장판막으로 옮아가 패혈증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당시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었더라면 말러가 좀더 오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문의들의 권고로 말러는 그 해 4월 8일 부인, 딸, 장모와 함께 뉴욕을 떠나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서 파스퇴르 연구소에 있던 샹트메스 교수가 치료를 담당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병이 나은 후 같이 이집트로 여행갈 계획에 이야기하는 등 쾌유에 대한 희망도 있었으나 그의 병은 인간이 손쓸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벗어났다. 여러 치료들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말러는 결국 정신적인 고향인 빈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5월 12일 빈으로 향하는 여정은 부인 알마의 말대로 '죽어가는 제왕의 마지막 행차'였다.

세상을 뜨기 하루 전, 말러는 정신착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1911년 5월 18일 천둥이 치는 가운데 임종의 순간이 왔다. 여동생 유스티네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알마'를 연속하여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모차르트'를 두 번 외치며 11시 5분경 죽음과 입맞춤하였다. 그토록 심란하고 난폭한 음악을 만들었던 말러도 결국에는 티없이 맑은 음악의 대명사인 모차르트를 꿈꾸었던 것일까? 말러의 시신은 빈의 북서쪽 외곽에 있는 그린칭 지역의 공동묘지로 옮겨졌다. 장녀와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대로 마이어니히에 있던 장녀의 유골도 그린칭으로 옮겨졌다. 5월 22일, 비오는 날씨 속에 치러진 장례식은 말러의 유언대로 그 어떤 연설이나 장례음악 없이 진행되었다. 말러의 관을 나르자 갑자기 비가 그치고 나이팅게일이 지저귄 다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는 증언이 있다. 100명에 달하는 조문객들은 일시에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말러의 무덤은 빈 분리파 미술가인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했다. 묘비에는 생몰년도도 없이 오직 '구스타프 말러'라고만 적혀있다. 작곡가가 "나를 찾아오는 이는 내가 누군지 알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말러가 세상을 떠난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시대를 앞선 고독한 이방인의 음악이 이제는 세계 곳곳의 콘서트 홀을 밝히며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불멸의 거장, 말러'는 이번호로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집필해주신 김문경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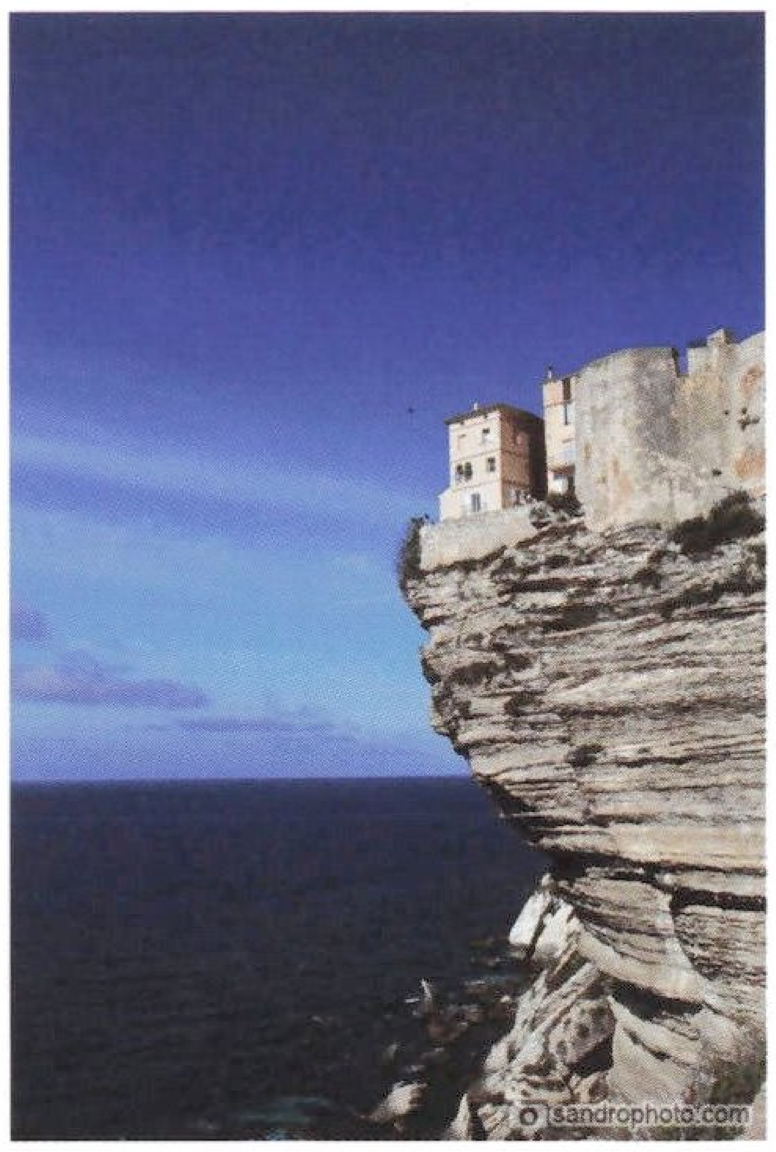
코르시카(Corsica)
운명을 거부하는 힘이 담긴 노래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사람의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는 합창음악은 악기의 사용 없이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음악 형태이다. 월드뮤직 속에는 각 지역이나 민족의 개성을 담고 있는 고유한 합창음악의 전통이 전해 오고 있다. 줄루족의 전통을 계승하는 남아프리카의 합창음악이나, 신비로운 마력을 지닌 불가리아 여성 합창음악의 전통이 그 고유한 개성으로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바 있으며, 지중해의 섬인 코르시카와 사르데냐의 전통적인 합창음악도 빼놓을 수 없는 월드뮤직의 한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코르시카의 남성 합창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통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령의 사르데냐 섬과 함께 지중해의 보석으로 불리는 코르시카는 지중해에서 가장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섬이다. 하지만 4천년이 넘는 코르시카 사람들만의 역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영향을 받았다. 지중해 북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그리스와 카르타고, 로마 등 그 패권을 장악하려는 주변 강대국들에 시달려왔다. 그렇게 이어진 고단한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은 프랑스령의 땅이 되어 있다. 그러나 코르시카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온 그들은 코르시카 사람으로서의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인정하는 코르시카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國歌)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그들의 강인한 기질은 프랑스 정부에 대한 독립의 의지로 이어져 한때 무장 투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이런 코르시카 사람들을 하나의 정신으로 묶어 줄 수 있었던 고유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통적인 남성 합창음악 양식이다. 역사에 맞서 싸워야 했던 거친 섬 문화의 특성과 그 속에서도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했던 강한 기질, 그리고 중세 유럽의 가톨릭 문화가 정서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음악적으로는 교회 음악의 영향 속에 지중해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이 담긴 세속적인 합창음악이라 할 수 있으며, 멜리즈마 창법이 드러나는 아랍적인 영향도 지니고 있다. '코르시카의 폴리포니'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합창 음악은 대체로 세 개의 성부로 나누어진다. 주선율은 중간음역의 목소리인 '세꼰다'가 진행을 하고, 고음부의 '떼르자'와 저음부의 '바쑤'로 구성된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이 세 개의 성부가 서로 충돌하는 듯한 느낌과 동시에 강렬하게 뒤엉켜가면서 곡의 전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각 성부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반적인 합창음악과 다른 코르시카만의 이 느낌이야말로 이들의 음악이 특별한 인상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전형적인 무반주 합창으로, 또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사운드 속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세계 음악애호가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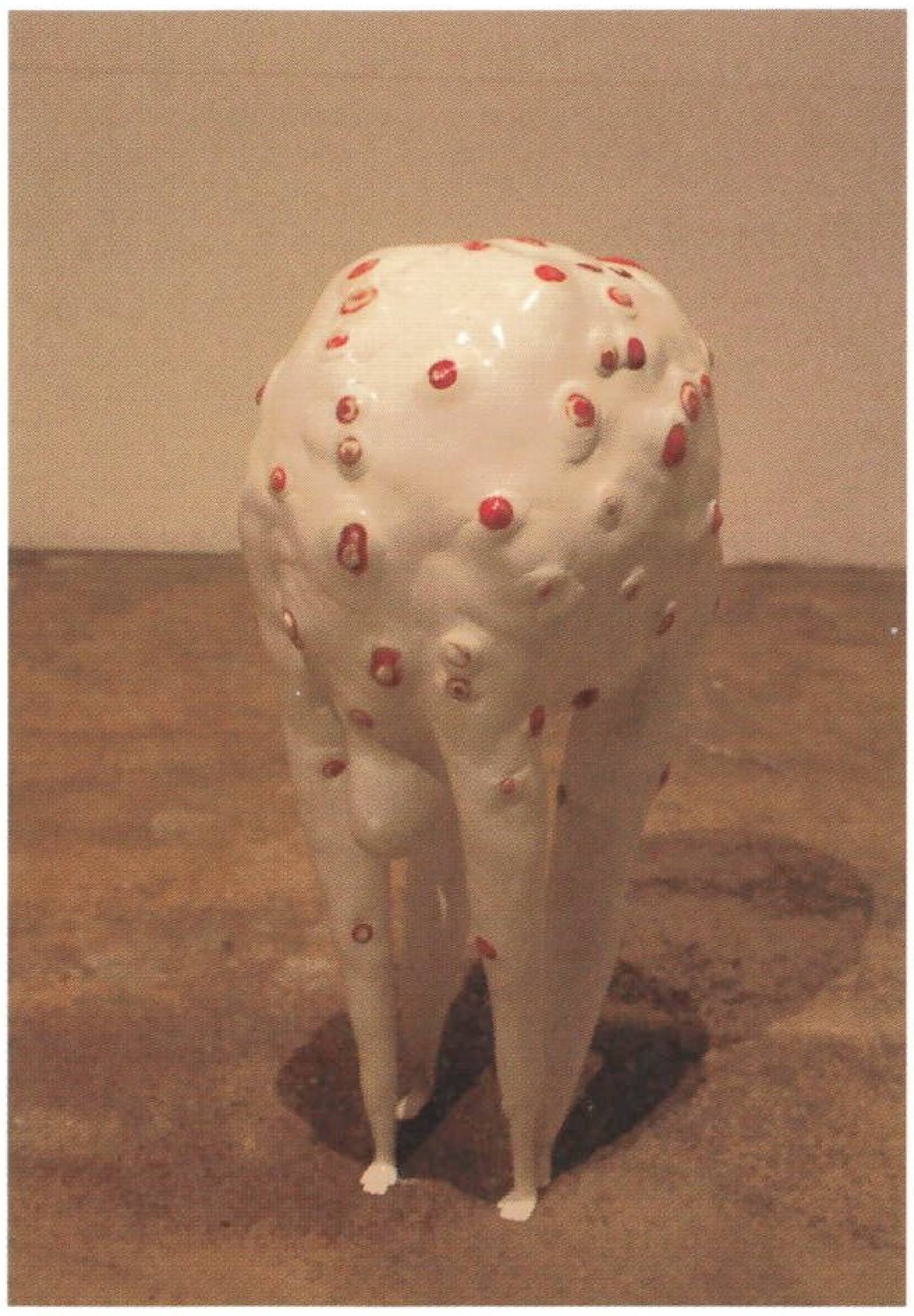


격동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결코 자신들의 신념을 잃지 않는 문화적 표현방식이라 할 수 있는 이 독특한 합창음악의 전통은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이 지닌 한의 정서를 담고 이제 월드뮤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애호가들에게도 월드뮤직 명곡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코르시카(Corsica)'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자 현대적인 코르시카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페트루 구엘푸치(Petru Guelfucci)'를 비롯해, 그가 참여해 코르시카 폴리포니의 정수를 보여주었던 '보체 디 코르시카(Voce di Corsica)', 전통과 대중성을 조화시킨 음악을 들려주는 '아 필레타(A Filetta)'와 '이 무브리니(I Muvrini)'와 같은 그룹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을 비롯한 세계무대에 코르시카를 각인시켜 왔다.

예술이라는 가려움, 가려움의 예술

김성철 '가려운 밤'展, 공간화랑 1월 22일~29일

김 만 석 _ 미술평론가


가려움

김성철은 가려움을 다룬다. 가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에게 가려움은 의식이 가렵다고 의식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추적하는 하나의 단초이다. 이른 바 부지불식간에 형성된 '사건'을 포착하기 위해 김성철은 가려움이 일어난 그 시점을 통해 가려움이 일어나기 이전과 그 이후를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물론 가려움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성철에게 가려움이 생기기 전의 몸은 사실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그의 드로잉에서 나타난 '몸'은 가려움으로 인해 온통 반점이나 돌기가 몸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김성철에게 몸은 가려움이 생긴 상태가 몸의 조건이다. 혹은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을 주는 것은 바로 가려움이다. 그러니까, 가려움이 없다면 김성철에게는 몸이 없다. 가려움이 생겨야만 몸이 '된다'.

하지만 김성철이 포착한 가려운 몸에 돋은 반점들은 무섭다거나 치명적인 외상은 아니다. 이들 붉은 반점들은 심지어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에게 가려움을 통해 형성된 돌기나 반점은 일상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질환임에도 이를 삶의 조건으로, 몸이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마치 시인 이성복이 '아픔은 〈살아 있음〉의 징조이며 〈살아야겠음〉의 경보'라고 했듯, 붉은 반점/돌기들은 삶의 가능성이며 생명과 생존의 원천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아니, 하나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 바깥과 끊임없는 접속을 반복해야만 하고 몸이 외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른 바 가려움이 발생한다면 김성철의 작업은 근원적으로 생명과 생명에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에 가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성철의 작업에서 가려움으로 몸이 부풀어 있는 형상은 기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훨씬 현실적인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가려움을 막기 위해 모기장을 둘러쳐도 어느 사이에, 그러니까 '의식'이 미처 외부 세계를 통제하기도 전에 의식의 요구/명령과 달리 몸은 항상 이미 몸 바깥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인간 의식이 집요하게 외부 환경을 기술과 지식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를 폭력적으로 다스려왔던 '문명'이 일상을 위생적으로 '표백'하려고 해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가려움을 피할 수 없으니, 이 가려움을 예술적으로 사유해야만 세계와 '공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될 터이다. 문명이 파괴한 환경에 인간 신체가 과연 적응할 수 있겠는가?

아토피가 유럽 사회에서는 일종의 정치적 문제로 주어져 있음을 상기해보라. 아토피가 콘크리트와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집이 일으키는 피부질환이라면, 아니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일 때, 아토피가 정치의 영역인 것은 당연하다. 달리 말해, 아토피뿐만 아니라 몸이 여러 요인들에 반응한 결과인 가려움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무시할만한 사소한 증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려움으로 인해 생성되는 몸의 사소한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김성철의 작업을 사회적인 문제로 그리하여, 정치적인 것으로 되돌려주는 일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성철이 비록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작업은 필연적으로 이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그의 작업에서 일어날 사유의 궤적을 꼼꼼히 되짚어 볼 것!

전국미디어를 넘어 세계미디어로 성장하는 지역미디어

남 인 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2월 초에 지역대학의 교육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누리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위원을 맡아 각 사업단을 찾아볼 기회를 가졌다. 평가 과정에서 지역 대학들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분투하여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누리사업의 우수한 성과들은 우리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듯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좋은 사업성과가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대부분의 사업단이 일만 열심히 했을 뿐, 사업 과정이나 성과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이 부족했다. 지역미디어에서는 간혹 보도하였지만, 전국미디어를 통해 지역대학의 우수한 성과가 알려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방대학들을 지원하는 누리사업이 단명하고 전국의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교육지원 사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원인으로 누리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성과가 홍보부족으로 전국단위에서는 묻혀버리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지역미디어가 전국미디어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지역의 미디어들도 지역 단위에 안주하기보다 전국미디어로서 영향력을 갖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미디어의 근본적인 혁신과 성장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어떠한 노력이나 성장도 전국단위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껏 지역미디어와 지역주민들은 외부의 시선에 맞추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산책로와 운동 공간이 적절히 갖추어진 온천천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갑갑한 느낌을 주는 청계천보다 훨씬 나은 여가공간일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온천천은 부산지역 내에서만 알려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온천천은 청계천과 같은 자부심과 긍지의 대상이 되기보다 그저 소박한 동네 시냇물 정도로 여겨진다.

부산MBC 라디오 '안동진의 생방송 시사터치'

어떻게 해야 지역미디어가 전국미디어가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다. 가능성을 묻는 사람에게 가능성은 없다. 스스로 지역미디어임을 자처하며 지역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미디어는 고사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지역을 넘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전국으로, 전세계로 팔 수 있어야 한다. 지역미디어에 대한 비난은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의 입맛에 맞거나 주민의 감정적인 반응에 영합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 집중된다. 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 근거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례로 부산MBC 라디오의 '안동진의 생방송 시사터치' (진행: 안동진, 월-금요일 매일 오후 6:10-6:50)를 들 수 있다. 외신, 길거리 뉴스, 지역뉴스, 여론을 묻습니다, 뉴스브리핑, 집중진단, 화제의 인물 등 각 코너에서 활발하게 각종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분야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화제의 인물' 이 돋보인다. '화제의 인물' 코너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핵심 인물들을 초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지역의 뉴스도 전국적인 견지에서 다루어진다.

지역미디어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신세한탄의 도구나 출향인사들의 출세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미디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역의 낙후된 점에 대한 공감대를 감정적으로 형성하면서 대책 없는 논의만 반복하여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중앙 정가에 출향인사의 비율이 얼마정도인가를 따지면서 출향인사가 발탁되기를 고대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본사는 지역에 두지만 세계적인 시각을 갖는, 전국미디어를 넘어 세계미디어로 성장하는 지역미디어의 모습을 기대한다.

경인년 '백호의 해' 각광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호랑이 미술관

호랑이 미술관 전경

2010년 경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신년부터 '호랑이' 열기가 거세다. 특히 올해는 60년만에 찾아온 '백호의 해'라 그 어느 해보다 신년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호랑이 해'가 열리면서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 바로 국내 유일의 호랑이 전문미술관인 '호랑이 미술관'이다.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에 자리한 '호랑이미술관'은 40여년 넘게 호랑이만을 그려온 화가 윤성지 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2010년 새해가 밝으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호랑이는 먹이를 잡으면 영혼까지 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절대적 힘을 가진 호랑이의 강인하면서도 용맹스러운 위세를 이어받아 호랑이 해인 2010년 경인년에는 모두가 웅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랑이 해'를 맞아 누구보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윤성지 관장. 입소문을 타고 신년 벽두부터 찾아온 관람객들을 맞느라 하루하루가 분주하기만 하다. 특히 윤성지 관장은 지난 1월 '호랑이해'를 맞

윤성지 관장

아 서울 인사동 갤러리 북스에서 기획한 '호랑이 미술제'에 초청받아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치기도 했다.

윤성지 관장이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68년도 부터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호랑이와 인연을 맺은 그는 우리민족의 기상을 대변하는 영물 '호랑이'에게 푹 빠져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호랑이만을 그려오고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림을 배운 적 없는 그이지만 호랑이 그림만큼은 처음 그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그의 이런 못말리는 호랑이 사랑은 작품 2천여점 담겨 미술관에 오롯이 전시되고 있다.

몽돌로 '虎'자를 적어놓은 자갈마당을 지나 미술관 출입구에 서면 호랑이와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의 '호연문(虎緣門)' 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현판을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자 사방을 가득 메운 '호랑이들'과 마주치게 된다. 입을 크게 벌린채 포효하는 실물 크기의 호랑이 그림 앞에는 선생이 즐겨 인용하는 '호랑이는 먹이를 잡으면 그 생명, 영혼까지 삼킨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호랑이로부터 배우는 인간탐구를 적은 철학서적 '황금과 병법-백마리 호랑이와 백한번째 푸른 호랑이'를 출간하기도 한 윤성지 관장은 다양한 작품과 함께 그의 철학이 담긴 글귀를 함께 적어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십이지신상 조각이 일렬로 늘어선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 전시실 역시 호랑이 작품들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바로 '맹호백태도(猛虎百態圖)'이다. 폭 5m, 높이 1m의 '맹호백태도(猛虎百態圖)'는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우리나라의 명산과 함께 호랑이 101마리를 그려놓은 대작이다. 작품명은 '백태도(百態圖)'이지만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뜻으로 호랑이 100마리에 호랑이 한 마리가 더 그려져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호랑이 101마리가 제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의 또다른 대표작인 '백호도(白虎圖)'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질주하는 호랑이 무리를 그린 작품이다. '백태도'와 달리 '백호도'에서는 제목과는 달리 100마리의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까닭을 묻자 '일부는 이미 지나갔고 일부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그림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렇듯 운이 좋다면 윤성지 관장의 재미나는 해설과 함께 미술관을 둘러볼 수 있다.

호랑이 미술관을 관람한 후에는 인근 '호랑이 무덤'을 찾아보자. 미술관에서 5분여 거리에 위치한 호랑이 무덤은 조선의 성리학자 김종직 선생의 생가 뒤편에 자리하고 있다. '호랑이 무덤'에는 김종직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다가 무덤 앞에서 죽었다는 호랑이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 지금은 이 의로운 호랑이를 기리는 의호비(義虎碑)가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호랑이 무덤과 함께 성리학의 대두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생가와 무덤도 함께 돌아보면 좋다.

(글 · 사진/정복엽)

■ 문의/호랑이 미술관(055-356-4395~6, blog.naver.com/bn12424)

폭 5m, 높이 1m의 맹호백태도

2천여점의 호랑이 그림이 전시된 호랑이 미술관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는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새어나온다. 매주 화요일은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 정기모임이 있는 날,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자 프랑스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자끄 루시에가 연주하는 바흐의 '이태리 협주곡' 연주실황 영상이 한창 상영되고 있다. 은은한 커피향 속에 둘러앉은 10여명의 회원들은 저마다 편안한 자세로 음악에 귀기울이고 있다.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는 지난 2006년 9월 15일 첫 감상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두차례 음악감상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를 방문했던 지난 1월 19일 정기모임이 벌써 141회째를 맞는다.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는 운영자인 김중옥 씨를 비롯해 클래식음악을 좋아하는 22명의 회원이 매주 모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김중옥 씨를 빼놓을 수 없다. 음악전공자는 아니지만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클래식음악을 들어온 음악애호가인 김중옥 씨는 클래식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매주 음악감상회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그의 집이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모은 3천여장의 음반으로 매주 음악감상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음악감상회는 오전과 오후 두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에 열리는 감상회는 주로 주부회원들이 참가하고 저녁시간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찾는다. 초창기에는 한살림 지역 공동체에서 인연을 맺은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음악감상회에서는 매주 김중옥 씨가 직접 선곡한 연주곡을 그의 해설과 함께 감상한다. 지난 1월 19일 열렸던 제 141회 음악감상회에서는 수원시립합창단과 안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정다운 우리가곡과 알비노니 '바이올린 협주곡 내림나장조 작품 10',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제 1번',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 5번 '황제' 등을 감상했다. 당당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베토벤 피아노협

주곡 '황제'는 2010년 새해를 맞은 회원들에게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 김중옥 씨가 특별히 선곡한 곡이다.

"아무래도 작품 선곡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이나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혹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곡들을 선택합니다. 또, 올해로 탄생 200주년을 맞는 쇼팽, 슈만과 탄생 150주년을 맞는 말러처럼 사후, 탄생 기념일을 맞는 음악가들의 작품 역시 중요한 선곡 대상이 됩니다."

김중옥 씨는 일단 감상에 필요한 연주곡이 결정되면 선곡된 작품의 이해를 돕기위한 해설집을 직접 제작한다.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출력한 소박한 해설집이지만, 연주곡에서부터 연주자, 음반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개인적인 감상평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 클래식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친절한 가이드북으로 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

음악감상회는 클래식 소품과 가곡, 오페라 아리아, 팝 등 가벼운 곡들로 진행되는 1부와 그날의 메인연주곡인 교향곡, 협주곡 전곡을 감상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상에 앞서 김중옥 씨의 해설로 곡의 이해를 돕고 편안한 자세로 연주곡을 감상한다. 1, 2부 사이에 있는 다과시간에는 서로가 느낀 감상도 주고받고 살아가는 이야기로 회원들간에 따뜻한 정도 나눈다. 김중옥 씨의 든든한 조력자인 부인 이옥주 씨는 차와 간식으로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이끈다. 이제는 4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 모두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긴다.

회원들 중 맏언니인 회원 김중희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열성회원이다. 음악감상회 결성 초기부터 활동해온 그는 활동기간만큼이나 감상회에도 열심히 참석하면서 지난해에는 참석율이 가장 높았던 회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른 음악감상회와는 달리 초보자라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만의 매력이라는 김중희 씨.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감상회 시간이 그 어느때 보다 행복하다.

이제 가입한 지 일년이 조금 넘은 회원 문명숙 씨 역시 서로 챙겨주고 정을 나누는 '음악'이라는 공통어로 뭉친 한가족 같은 회원들이 있어 감상회 활동이 즐겁기만 하다. 요즘 들어 음악감상회에서 만나는 열정적인 연주자들의 모습에서 느슨해진 자신의 삶을 다잡게 된다는 그는 클래식음악을 한 곡 한 곡 알아가는 재미에 음악감상회가 열리는 화요일이 기다려진다.

'음악감상회에 참석하고 나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이원자 씨. '집이나 차에서 들을 때 보다 음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좋다'는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휴식같은 시간이라 생각한다. 회원 문정해 씨는 무엇보다 운영자 김중옥 씨가 고맙다. '음악에 대한 그의 열정과 준비가 음악감상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지난해 6월 집수리에 들어간 김중옥 씨를 대신해 그의 집에서 두차례 우정음악감상회를 열기도 했다.

감상회가 있는 날이면 멀리 다대포에서 구서동까지 온다는 송길해 회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6월 김중옥 씨의 집수리 공사를 맡으면서 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와 인연을 맺었다. 평소 클래식음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던 그는 감상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창 클래식음악의 재미에 빠져 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보니 공간적인 이유로 회원 수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여건이 된다면 음악감상회를 할 수 있는 전문공간을 마련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음악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 김중옥 씨. 같이 즐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한 그의 대가없는 소박한 음악감상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글 · 사진/정복엽)

■문의/웰빙클래식음악감상회 김중옥(010-2942-5941)

한무전통예술단 정기공연 네번째 천지… 푸리

2월 2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우리 전통을 전승 · 계승해온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부산지회 산하 한무전통예술단 정기공연.

프로그램

산조춤, 흥보가 중 두번째 박타는 대목, 수궁가 중 고고천변, 춘향가 중 쑥대머리, 입춘 등

■ 문 의 신다희(010-5506-6263)

제 21주년 재부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귀향연주회

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박지나

감경주

정주연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재학중인 부산 출신 음악도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귀향연주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고등예능실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4학년 박지나, 서울 플루트 콩쿠르 입상, 성정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3학년 감경주,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가야금병창부문 차하, 춘향국악대전 가야금병창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2학년 정주연이 출연한다.

프로그램

가야금병창/죽장망혜, 춘향가 중 사랑가

포레/시실리안느

윤이상/고풍의상

벨리니/나는 귀여운 처녀 등 수곡

■ 문 의 황경자(017-541-3445)

제 5회 You & You Piano Recital

2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온 덕양초등학교 교사 한지연과 연미초등학교 교사 홍혜민이 들려주는 You& You Piano Recital 다섯번째 무대.

프로그램

브람스/랩소디 올림마단조 작품 119

쇼팽/에튜드 마단조 작품 25

베토벤/소나타 9번, 17번 등 수곡

■ 문 의 한지연(018-684-778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악기가족이야기

2월 5일(금), 12일(금), 18일(목), 26일(금)
오전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5일 목요일 오전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미취학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음악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2010년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악기가족이야기.

연주를 곁들인 구연동화와 악기 설명,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명곡 연주, 악기체험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공연일정

2월 5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2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뿌우 뿌우 나팔 가족 이야기'

2월 18일(목)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2월 25일(목) 10:30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2월 26일(금) 10: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쿵쿵 탕탕 타악기 가족 이야기'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동화구연/이소영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발렌타인데이의 특별한 선물 러브 & 발렌타인 재즈 콘서트

2월 6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사랑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감성재즈의 아름다움을 담은 '러브 & 발렌타인 재즈콘서트'.

발렌타인데이를 즐기려는 연인, 가족, 친구들을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이병주 Quintet, 안우성 Quintet의 뛰어난 연주와 게스트 박기영이 출연, 사랑을 주제로 한 재즈, 가요 등을 들려준다.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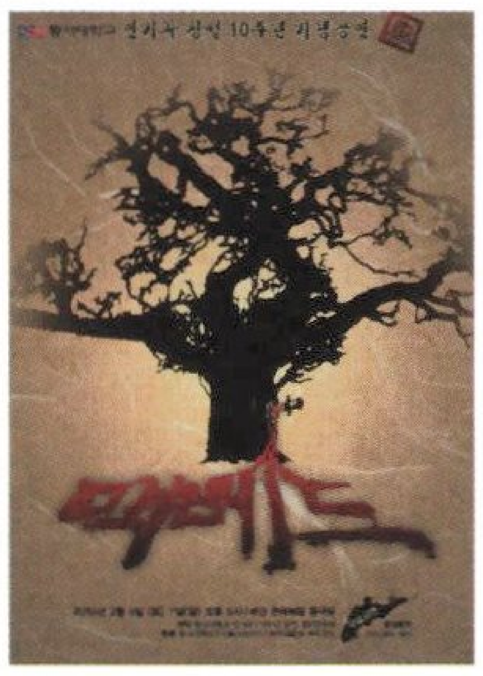
Quintet-이병주, 안우성, Geust-박기영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문 의 E-ZEN Entertainmen(904-8881,
http://www.e-zens.co.kr)

동서대학교 연기과 창설 10주년 기념공연 '맥베드'

2월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동서대학교 연기과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무대 셰익스피어 '맥베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한 작품인 맥베드를 새롭게 해석한 이번 무대는 권력의 야망에 이끌린 맥베드의 끝없는 욕망, 인간의 양심과 영혼의 절대적 붕괴를 새롭게 조명한다.

· 원작/셰익스피어 · 연출/김동민
· 지도교수/조기왕 · 악/해미르 예술단

출연

황하규, 서경화, 문성미, 홍태규, 고민규, 염시훈, 이용록,

성현일, 송혜리, 김근화, 서민수, 서귀란, 이선녀

■ 문 의 동서대학교(320-1910)

이화영 플루트 독주회

2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화영 플루트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함부르크 Musikhochschule Konzentexamen 과정을 최고점수로 졸업한 이화영은 동아, 부산 음악콩쿠르 입상, 2002년과 2006년 독일 Elise Mayer Stiftung 콩쿠르에 두 차례 입상하며 그 재능을 인정 받아왔다.

2001년 금호아시아나 영 아티스트로 선발되어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진 이화영은 함부르크에서 2회의 독주회, 함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몰도바 국립방송교향악단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텔레만/Tafel Musik 나단조
페루/Trois Pieces Orientales
빌라로보스/The Jet Whistle
슈베르트/Introduktion und Variationen 등
· 피아노/한지은(현대음악 앙상블 에클라 단원)
· 첼로/박혜준(연세신포니에타 수석)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플루트하우스(02-3487-2462)

이예슬 피아노 독주회

2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예고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음악도이예슬의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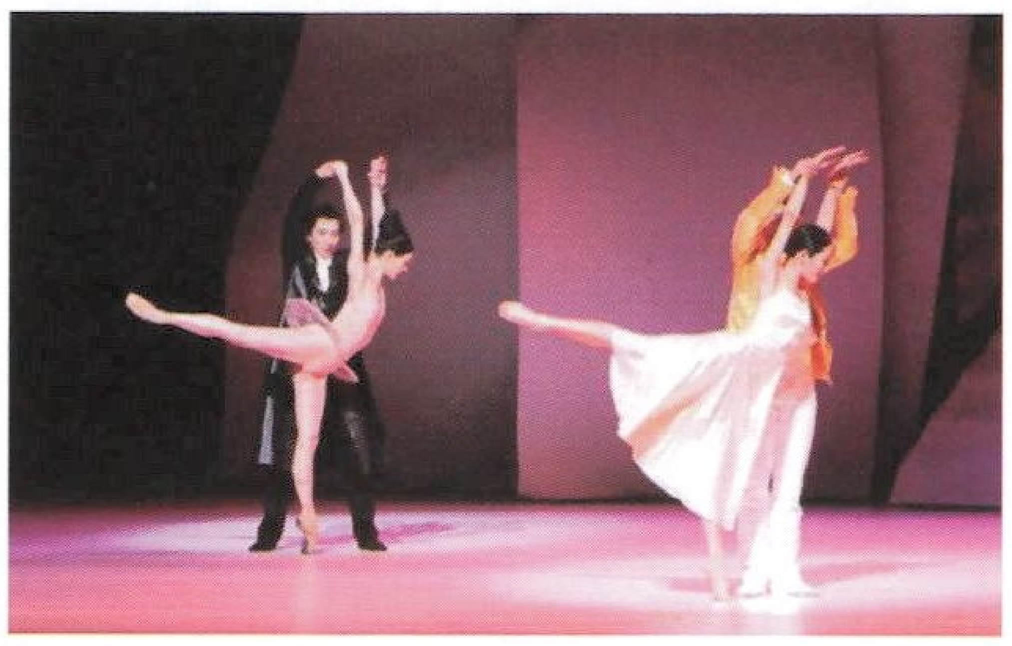
프로그램

바흐/토카타 라단조 BWV 913
모차르트/소나타 라장조 K.332
쇼팽/판타지 바장조 작품 49 등 수곡

■ 관람료 무료
■ 문 의 이예슬(010-4579-871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발레단 초청 발레공연 '신데렐라'

2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2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천재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새롭게 창조해낸 국립발레단 발레 '신데렐라' 부산무대.

1945년 '로스티슬라브 자하로프'의 러시아 계통 작품과 1948년 '프레더릭 에쉬턴'의 영국 계통 작품이 대표작으로 전해지는 신데렐라는 이전의 작품이 원작 신데렐라를 충실히 재현, 동화적인 모습이 강한 전통적인 작품인 반면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신데렐라'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마이요만의 독특하고 신선한 비틀기가 중심이 된 작품으로 파격적이고 새로운 신데렐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2006년 발레계의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완벽한 상체 라인'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여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등극한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주원을 비롯하여 이영철, 정남열, 박슬기, 신승원, 이동훈, 정영재, 윤혜진, 김리회 등이 출연한다.

· 예술감독/최태지
· 음악/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 안무/장-크리스토프 마이요
· 무대/에른스트 피뇽-에른스트
· 의상/제롬 카플랑
· 조명/도미니크 드리요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80,000원
S석 6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회원 10% 할인, 8세 이상 관람가능)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국제신문(500-522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Vol.6 세렝게티

2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소극장

열정과 감성이라는 탄탄한 두 다리로 세렝게티 초원을 질주하는 세 명의 젊은 뮤지션, 베이스의 유정균, 기타의 정수완, 드럼의 장동진의 부산무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아프로 소울 휑크(afro soul-funk) 밴드 세렝게티(serengeti)를 결성하며 홍대 씬의 파란을 예고한 세렝게티는 음악 애호가들의 극찬을 받은 두 장의 앨범을 발판으로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 등 유수의 대형 무대를 통해 절정의 연주 실력과 독보적인 그루브를 선사해왔다.

2005년 이현우 미국 투어, JK김동욱 전국 투어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이승환 콘서트,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07에서 빅마마와 조인트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세렝게티는 JK김동욱 싱글 '지브라' 전곡 편곡 및 녹음 세션, 이지형 소품집 'Coffee & Tea' 앨범 편곡 및 녹음세션, JK김동욱 4집 앨범 '낯선천국' 편곡 및 녹음세션 등에 참여하며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YMCA오케스트라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2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1998년 중 · 고등 및 대학생들의 음악교육을 위해 창단된 부산YMCA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장애우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부산YMCA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3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수차례의 특별 및 초청연주회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 개발, 청소년 음악의 폭넓은 수용 기회를 제공해왔다.

빈 국립음대와 부룩크너 주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과 및 작곡과를 졸업한 지휘자 장진이 2006년부터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바흐/신포니아
모스/영화음악 '타이타닉(Titanic)'
멘델스존/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등 수곡
· 지휘/장진

■ 관람료 무료초대
■ 문 의 부산YMCA오케스트라(010-4227-8512)

김지민 피아노 독주회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독우회, 부산피아노 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4회의 독주회를 가진 바 있는 김지민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론도
브람스/헝가리 무곡
베토벤/소나타 7번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 특별출연/김문주

■ 문 의 김지민(244-7627, 010-7576-7627)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10 '우리들, 작은이야기'

2월 24일-2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10년을 여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작은음악회 '우리들, 작은이야기'.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합창 무대가 아닌 독창, 중창, 기악 독주 등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개개인의 실력 및 음색을 고려해 동요, 한국가곡, 이태리가곡, 기악독주 등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려준다.

■24일 수요일
하얀 달무리(독창/이세민)
힘들어 오는 날(독창/유나영)
커다란 사랑(독창/이지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리코더 독주/이민경)
비오는 둑길(중창/최화성, 지유정, 정예지)
매미(독창/서민지)
별똥별(독창/이수빈)
하얀여인들(리코더 2중주/김효경, 정유경)
봄이 오면(독창/이혜민) 등 수곡

■25일 목요일
하늘나라 동화(독창/박찬일)
어머니(독창/송가온)
개미네집(독창/공선연)
버터플라이 왈츠(리코더 2중주/안수윤, 서채빈)
우정(중창/윤예연, 전혜원, 손민지, 전소정)
초가삼간(독창/박세미)
하얀달무리(독창/이지은)
Moon River(바이올린 독주/최윤지)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이아름(객원반주자)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관람료 무료(소년소녀합창단 문의)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부산시립무용단 2010 정월대보름공연 지신밟기와 기원무

2월 24일 수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전역

2010년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부산문화회관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며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등을 돌며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삶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적인 굿춤을 현대적

으로 재구성한 멋스러운 '기원무'를 대극장 로비에서 공연한다.

■ 관람료 무료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신동에서 젊은 거장으로의 이상적인 변모를 보여주며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부산연주회.

1996년 최연소로 참가한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에 2위로 입상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임동혁은 2000년 부조니 콩쿠르와 하마마쓰 콩쿠르 입상,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1위 수상과 함께 솔로 리사이틀상, 오케스트라상, 프랑스 작곡가 해석상, 파리음악원 학생상, 마담 가비 파스키에상 등 5개상을 휩쓸었다. 제 15회 국제 쇼팽 콩쿠르에서 임동혁은 형인 임동민과 함께 2위없는 3위 입상, 2007년 제 13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 1위없는 공동 4위를 수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쇼팽 탄생 200주년을 맞아 스페셜리스트로 다시 음악애호가들을 만나는 임동혁은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더욱 정제된 감수성으로 쇼팽 재해석에 도전한다.

프로그램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라벨/밤의 가스파르
쇼팽/마주르카 마단조 작품 17 No. 2
쇼팽/마주르카 다장조 작품 56 No. 2
쇼팽/마주르카 올림다단조 작품 63 No. 3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No.6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607-3100)

사랑과 영혼 부산콘서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00 중극장

김신자 앙상블 아이씽

문효진

세미클래식, 샹송, 재즈, 팝, 댄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발라드가 어우러지는 애절하고도 감동적인 무대를 펼쳐온 앙상블 아이씽의 부산무대.

소프라노 김신자, 정자영, 조자영, 임수영, 박성희 등 김신자의 앙상블 아이씽과 CCM 현대기독음악 김수연, 모던 피아니스트 문효진, 피아니스트 정영화가 출연한다.

프로그램
포스터/꿈길에서
모차르트/즐거운 웃음
번스타인/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나는 예뻐'
비발디/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등 수곡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문 의 미래기획(070-7123-3884)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제 7회 정기연주회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 사단법인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교육, 운영하고 있는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 2010년 첫 연주회.

프로그램
브리튼/현악4중주 '심플심포니' 1, 4 악장
모차르트/심포니 40번, 41번 1악장
요한 스트라우스/천둥과 번개
영화음악/해리포터 '비밀의 방', 스타워즈 '에피소드' 등
· 지휘/윤상운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인코리안유스오케스트라(017-842-6688)

베를린 캄마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2월 28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세계적인 이스라엘 지휘자 Michael Zukernik에 의해 Verein Berliner Kammer Philharmonie(베를린 시민 캄머필하모니에 연맹)으로 설립된 이래 지휘자 양성과 수많은 콘서트, 기획공연, 마스터 클래스, 자선음악회를 통한 자선활동 등을 개최하며 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주목을 받아온 베를린 캄마 필하모니오케스트라 내한연주회.

베를린 캄마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현재 Philharmonisches Kammerorchester Berlin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지휘 클래스를 개최하며 지휘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문 의 777 코리아 엔터테인먼트(02-2277-6516, 011-9949-8897)

제 4회 향기 오카리나앙상블 페스티발 작은 거위들의 합창

2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소극장

한국오카리나 교육협회 부산지회에 소속된 앙상블 팀들이 들려주는 오카리나 앙상블 페스티발 '작은 거위들의 합창'.

프로그램
오카리나 7중주 '나비' '귀뚜라미' '스피리찌' '캐논', 제주의 왕자, 타이타닉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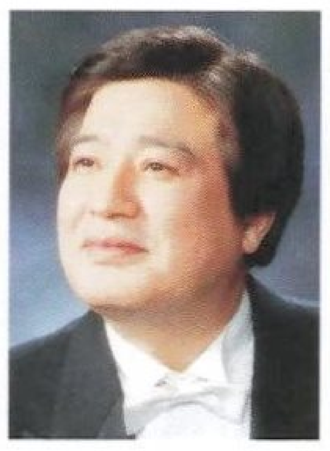
참가단체
향기오카리나앙상블, 하늬소리오카리나앙상블, 프렌즈오카리나앙상블, 가야오카리나앙상블, 소리향오카리나앙상블, 어울림오카리나앙상블, 가온오카리나앙상블, 행복오카리나앙상블, 리클향기오카리나앙상블, 목신팬플룻앙상블(찬조출연)

■ 관람료 초대(주최측 문의)
■ 문 의 한국오카리나교육협회 부산지회 이정미 (010-8544-2580)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홍 선생의 시에 의한 가곡의 밤

3월 1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엄정행



박호송

공정배

교육자이자 시인, 부산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살매 김태홍 선생의 시를 음악으로 만나는 부일신춘음악회 '살매 김태홍 선생(1925~1985)의 시에 의한 가곡의 밤'.

프로그램
설진환/훗날에도 가을에는, 에밀레, 연, 당신이 빛을
유신/자장가, 산딸기
정원상/잊을래도
하기종/시간은
하순봉/풍장, 꽃이 되어 살자고, 또 울어라 등 수곡

출연
엄정행, 박호송, 공정배, 류형광, 김경희, 윤지영, 박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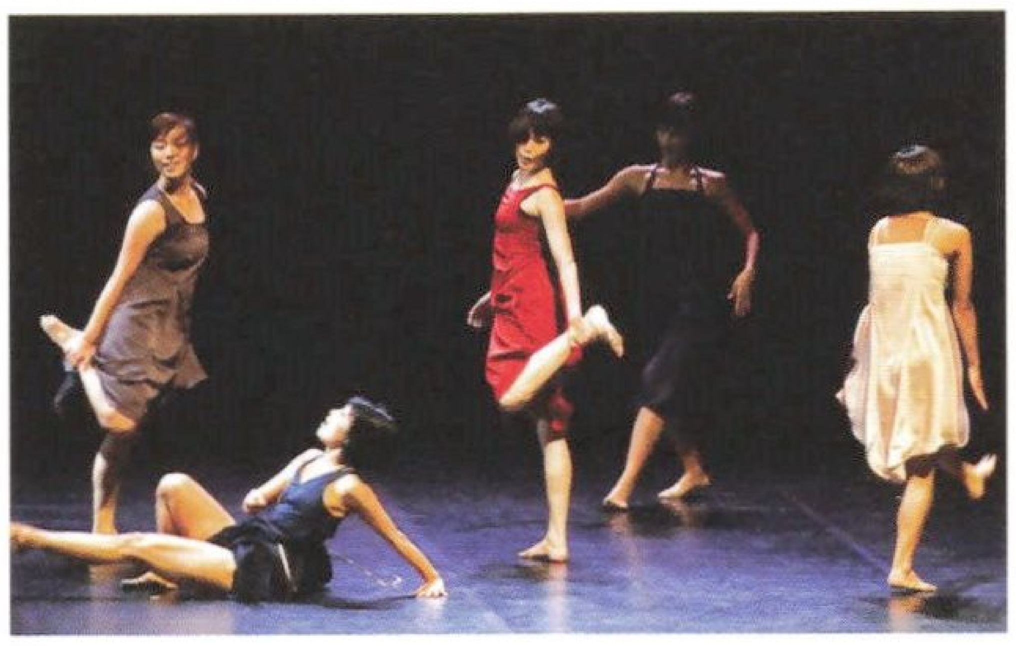
· 피아노/김정우, 서영희

■ 관람료 초대(초대권소지자에 한해 입장)

■ 문　의 부산일보 문화사업부(461-4433)

2010 안주경의 춤 Romio & Juliet zwei 'Versus'

3월 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안주경의 2010년 춤 'Versus' 부산무대.

툇마루무용단 대표와 툇마루무용단 명예회장, 무천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안주경 교수는 제 2회 PAF 안무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Romio & Juliet zwei 'Versus'는 2008년 초연된 Romiet & Julio에 이은 두 번째 후속 작품으로 Romiet & Julio이 원작의 스토리를 배제하고 두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만을 모티브로 하여 이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에 반해 'Versus'는 대립에 관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두 가문의 상대적 대립에서 벗어나 남녀의 대립, 이성과 자아의 대립 등을 두고 세상의 작거나 혹은 큰 사건들을 사랑이라는 주제를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두 명문가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아간다.

· 안무/안주경　　　　· 연출/노정식

· 대본/성진수

출연

하정오, 김하나, 이동하, 배민우, 조주연, 황인영, 최우석, 최병훈, 선정찬, 이보람, 서지은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055-751-6201)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3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생동감 넘치는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의 2010년 첫 무대이기도 한 이번 무대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를 초청, 봄 분위기에 맞는 오페라 아리아들로 꾸며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르네상스와 바로크뿐만 아니라 브리튼 등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중국의 저명한 카운터 테너 샤오 마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처음으로 만난다.

프로그램

로시니/도둑까치 서곡

베르디/'운명의 힘' 중 '평화, 평화를, 신이여'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대였던가'

푸치니/'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푸치니/'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로시니/'세비야의 이발사' 중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

베르디/'라 트라비아타' 중 '프로방스의 바다와 땅을'

푸치니/'나비부인' 중 '아름다운 그 눈' 등 수곡

· 지휘/리 신차오

· 소프라노/이화영

· 카운터테너/샤오 마(Xiao Ma)

· 테너/이정원

· 바리톤/우주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전경화 귀국 피아노 독주회

3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피아노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전경화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

전경화는 유학중 불가리아 13th ALBENA International Youth Music Competition 반주부분 2등 입상, 11th MARIA YOUDINA International Competition 피아노 듀오 부분 3등 입상, VOLOGDA Piano duo competition 특별상 입상, 폴란드 13th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Naleczow, Kazimierz Dolny 4등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10 제 3번

쇼팽/Andante Spianato & Grande Polonaise Brilliante 작품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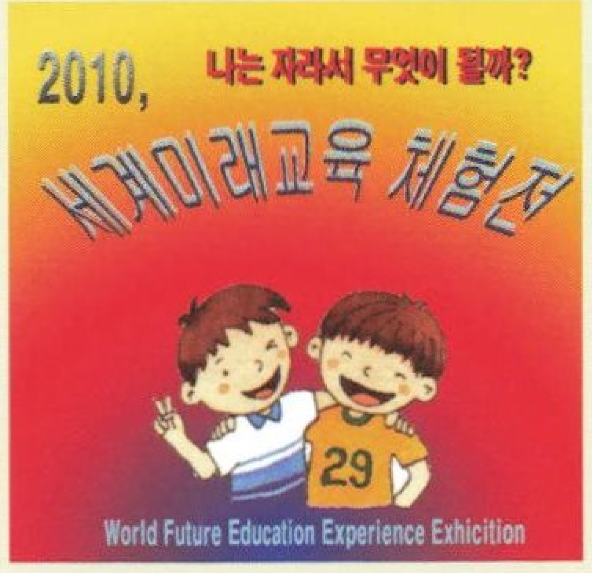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 관람료 초대

■ 문　의 전경화(010-4471-1128)

2010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 세계미래교육체험전

2월 21일(일)-3월 1일(월)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참된 교육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세계미래교육체험전 부산 전시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 대학교 정보관' '세계의 역사 인물관' '한국교육의 변천사'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관' '멀티미디어관' 등 5개 전시관으로 나누어 자기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여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관람료 학생 7,000원 · 일반 8,000원(단체 20인 이상 5,000원)
※국가유공자, 장애자,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무료

■ 문　의 세계미래교육체험전 조직위원회(070-8719-8981)

음악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을 비롯해 국악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

■2일 바이올린, 피아노 듀오의 재발견 '모차르트의 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정과 서울대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데트몰드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이진성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려준다.

· 해설/장진규

■9일 뉴프라임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하이든, 차이코프스키'

2006년 창단 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프라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하는 실내악무대.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트리오 1번 '엘레지'
하이든/현악4중주 '황제'
차이코프스키/현악6중주 '프로렌스의 추억'

· 출연/이기종, 원아름, 최희수(이상 바이올린), 강경희, 김명훈(이상 비올라), 박정열, 표명옥(이상 첼로), 임보라(피아노)

· 해설/장진규

■23일 음악세상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

공연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음악사랑이 마련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프로그램

라라라, 한번만 더, 난 아직 모르잖아요, 백년의 약속, 애인있어요, 사랑안해,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일어나 등 수곡

· 출연/설라경, 한영석, 양선호, 성유림, 김미남, 김민수, 유지현, 이창훈, 서재훈, 이태진

· 해설/장진규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www.bccenter.or.kr)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3일 차세대 비르투오조의 향연-비상V

각종 음악콩쿠르에서 수상한 바 있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무대.

프로그램

비탈리/샤콘느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32 제 5번 사장조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등 수곡

· 출연/강유라(플루트 · 부산예고), 김지민(피아노 · 부산예고), 김혜정(바이올린 · 브니엘예고), 백수화(플루트 · 울산예고), 성윤미(바이올린 · 부산예고), 윤은지(오보에 · 부산시예술영재교육원), 정예슬(피아노 · 부산예고)

■10일 배수정 & 강지영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Pescara 아카데미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배수정과 세종대학교 및 동대학원, 독일 카셀국립대 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강지영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러시아 낭만주의 전통의 마지막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모음곡 제 1번과 제 2번을 들려준다.

■17일 레이디스 필 앙상블 연주회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 단원들로 구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 연주회.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2006년 창단 이후 탄탄한 연주력과 품격있는 음악성을 바탕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중 '프렐류드'
차이코프스키/발레 '호두까기인형' 중 '갈대피리의 춤', '꽃의 왈츠', '러시아 춤'
드라마주제곡/보고싶다, 아베마리아, 눈의 꽃 등 수곡

· 연주/김은정, 최방주, 한아름, 양혜원(이상 바이올린), 최영화, 박소영(이상 비올라), 서승은, 전수정(이상 첼로), 임미형(더블베이스), 정선하(피아노 객원)

■24일 플루트트리오 '티움' 연주회

서울대학교와 빈시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대구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이승호와 그의 제자 이수민(이화여대 1년), 박하나(한국예술종합학교 2년)로 구성된 플루트트리오 '티움' 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제 4번 바장조 K.13
도플러/몽유병 여인 작품 42
뵘/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16 등 수곡

· 피아노/안혜림(서울공연예술원 교수)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부산 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2월 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2009년 7월 창단된 후 클래식을 비롯한 영화음악,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과 만나온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유망주를 위해 마련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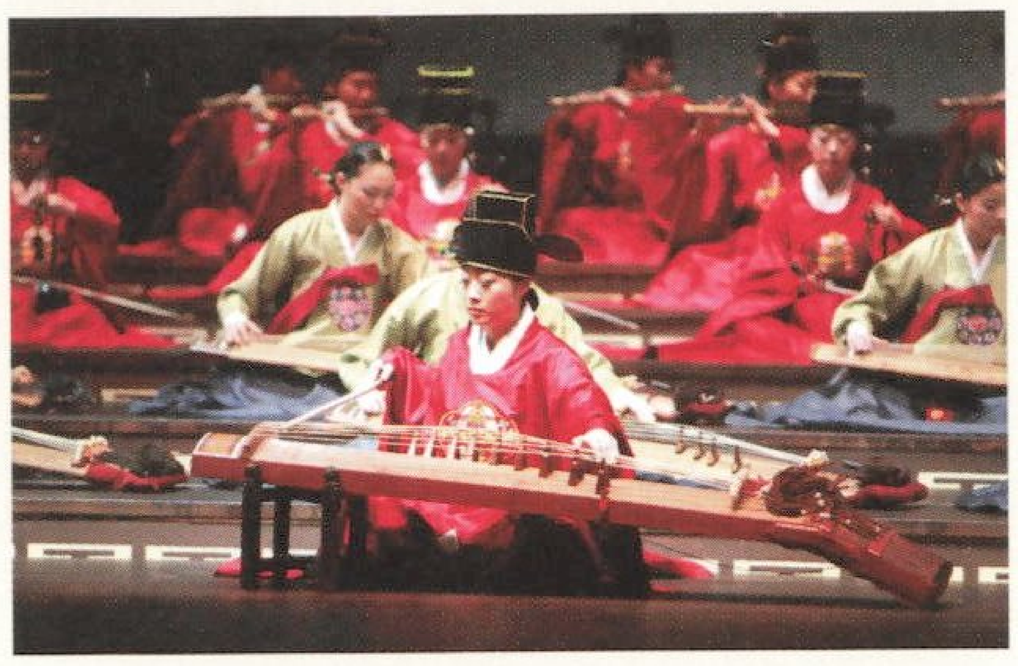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환타지'

드보르작/바이올린 협주곡 가단조 작품 53
모차르트/플루트협주곡 제 1번 사장조
베르디/운명의 힘 서곡 등 수곡

■ 문 의 정희보(010-3881-3753)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6일 프로그램

가인전목단, 가야금·해금 산조병주, 민요 '신사철가' '동백타령', 승무, 실내악 '라밤바' '오블라디 오블라다', 실내악 '판놀음', 풍류 장구춤, 사물놀이

■13일 프로그램

문굿과 비나리, 포구락, 판소리 춘향가, 강강술래, 사물놀이 협주곡 '길', 밀양백중놀이 중 '오북춤', 범부춤, 달맞이노래, 남도풍년가, 판굿과 소고춤

■20일 프로그램

향발무, 판소리 수궁가, 아쟁산조, 진주교방굿거리춤, 실내악 '거리', 동부민요 '상주모심기' '쾌지나칭칭나네' '밀양아리랑', 부채춤, 설장구 합주

■27일 프로그램

정재검무, 가야금산조, 동래 한량무, 실내악 '신 아외기 소리' '너영너영', 실내악 '멋으로 사는 세상', 산조춤, 모듬북 합주(VISION 2010)

■ 관람료 A석 8,000원 · B석 6,000원
■ 문 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리더스플룻앙상블 제 8회 정기연주회

2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트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의 8번째 정기연주회.

1991년 인터넷 동호회모임에서 출발한 부산리더스플루트앙상블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복지관, 병원 순회공연을 통해 음악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D.J.스미스/플루트마치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림스키 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등 수곡

■ 문 의 정유정(010-9441-5014)

인세냔띠 플루트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2월 9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된 인세냔띠 플루트앙상블의 4번째 정기연주회.

'인세냔띠'는 이태리어로 초등교사를 의미한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가로의 결혼 서곡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제 5번
몬티/차르다시 등 수곡
· 특별출연/김효연(바이올린)
· 찬조출연/아페르토 키즈 플루트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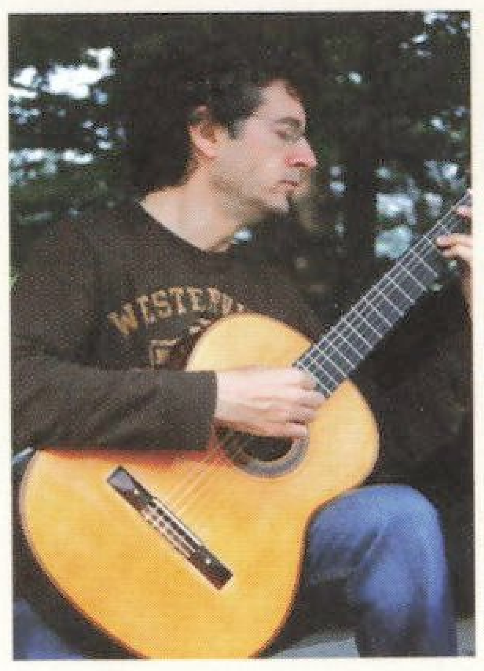
■ 문 의 강미정(010-4406-6169)

스페인 최고의 기타리스트 마르코 소시아스 in 부산 2010

2월 9일-10일 화-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스페인 최고의 기타리스트 마르코 소아시스 부산 연주회.

'Infanta Cristina'(Fundacion Guerrero, Madrid) 콩쿠르 1위, 벨기에 'Le Printemps de la Guitare'(Belgium) 1위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마르코 소시아스는 '아랑후에스 협주곡'의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로부터 '깊은 감정적 여행을 통해



진정한 음악적 표현과 현란한 기교를 구사한다'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로드리고/헤네랄리페 근처에서
도메니코니/코윤바바 작품 19
푸홀/세개의 스페인풍의 소품 '토나디아, 탱고, 구아히라' 등 수곡
· 찬조출연/올인스국악예술단 靜琴, 팝페라 테너 강신주(9일), 정금오케스트라 퓨전앙상블, 바리톤 조현수,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10일)
· 해설/곽근수

■ 관람료 일반 30,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주)올인스 문화사업부(070-7595-2032)

아페르토 키즈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2월 11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인세냔띠 플루트앙상블 단원들의 제자인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아페르토 키즈 플루트앙상블 창단연주회.

프로그램
바흐/관현악 조곡 제 3번 '가보트'
엘가/사랑의 인사
메르카단테/플루트협주곡 마단조 등 수곡

■ 문 의 강미정(010-4406-6169)

오윤복 · 안준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2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오윤복

안준희

연세대학교와 미국 피바디음대(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오윤

복과 부산대학교와 프랑스 에꼴 노르말 고등음악원, 뤠일 말메종 국립음악원,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메쓰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안준희가 함께 하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바장조 K.497
모차르트/소나타 다장조 K.521
슈베르트/환타지 바단조 작품 103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오윤복(010-4151-3667)

한낮의 유U; 콘서트 오페라 갈라 콘서트

2월 16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 아트홀

강혜정

전병호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콘서트인 한낮의 유U; 콘서트 2월 무대.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전병호, 바리톤 박대용, 베이스 김도형 등 부산 출신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출연,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갈라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도니제티/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
스트라빈스키/발레영상과 음악 '페트루슈카'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연주/가마뫼오케스트라

■ 관람료 균일 15,000원(부산문화회관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피아니스트 김현주 클래스연주회

2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글로빌아트홀

피아니스트 김현주의 제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클래스 연주회.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2010 평화장터 문화나눔 2월 공연 시(詩), 노래(歌)와 정분나다

2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대연성당 글라라홀

우창수

시와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시(詩), 노래(歌)와 정분나다'.

널리 알려진 시노래를 통해 관객의 서정을 일깨우는 1부 무대에 이어 동요 부르는 할아버지 모임인 '철부지'와 어머니노래모임인 '여고시절' 등이 출연, 세대를 아우르는 동요무대를 갖는다. 이밖에 영상과 창작노래가 함께하는 빛그림노래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시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낭송 무대도 함께 펼쳐진다.

· 출연/우창수의 노래나무심기, 동요를 부르는 할아버지 '철부지', 어머니노래모임 '여고시절', 김근영(동화구연), 강정이, 김수우, 동길산(이상 시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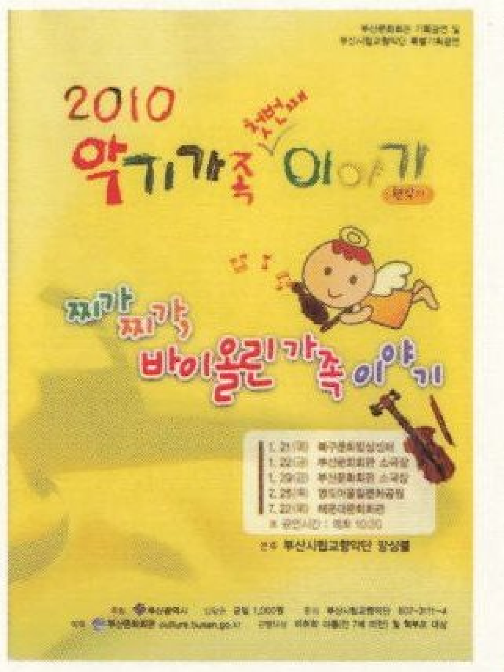
■ 문　의 대연성당
(622-0991, www.grouppeace.co.kr)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공연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30
영도문어울림문화공원

미취학 어린이들이 클래식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연주를 곁들인 동화구연과 악기설명,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명곡연주, 악기체험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앙상블
· 동화구연/이 소 영 (부 산 색동어머니회 총무)

■ 관람료 균일 1,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0년 겨울 음악페스티발

2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27일-28일 토-일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피아노 전공교사들의 재교육과 함께 음악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가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2010년 겨울 음악페스티발.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연구소장인 피아니스트 석경래와 아나운서 박현정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60여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출연,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와 드라마에 삽입된 주제곡과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찬조출연/김경환(비올라), 유명숙(소프라노), 고충진(클래식기타)

■ 문　의 박선연(010-8508-6846)

플루티스트 김명지 클래스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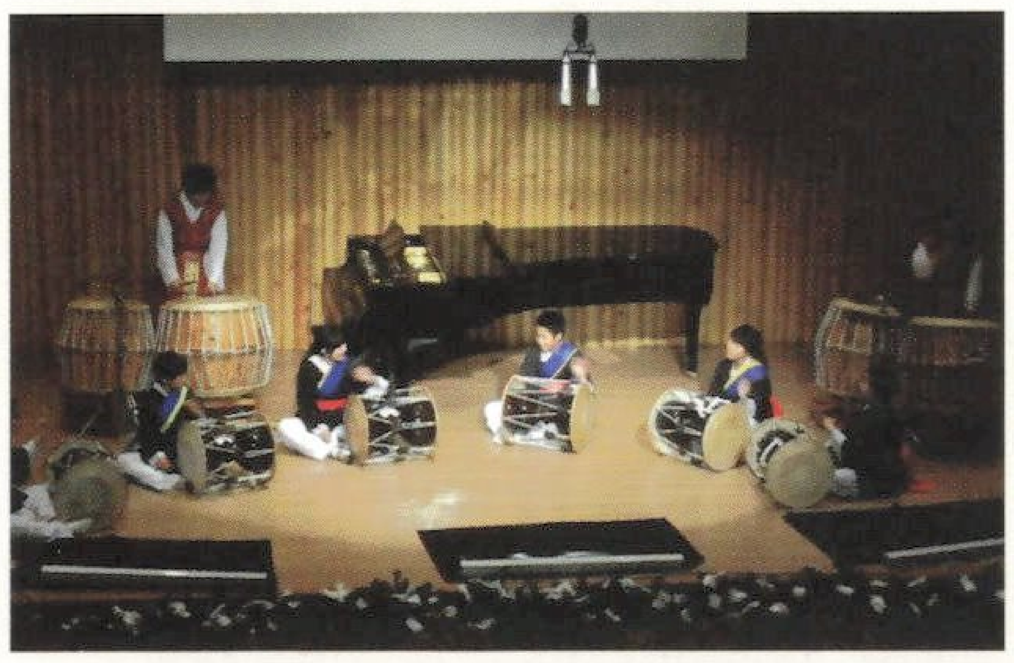
2월 26일 금요일 오후 6:30 글로빌아트홀

플루티스트 김명지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연주회.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제 26회 글로빌아트홀 행복음악회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글로빌아트홀이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부산시민을 위한 행복음악회.

독주, 합주,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무대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 문 의 글로빌아트홀(505-5995)

2010 부산클라리넷콰이어 특별기획연주 제 4회 협주곡의 밤

2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극장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클라리넷콰이어가 마련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스콧 조플린/The Eazy Winners
베버/협주곡 제 2번 작품 74 제 1, 3악장
스타미츠/협주곡 제 10번 제 1악장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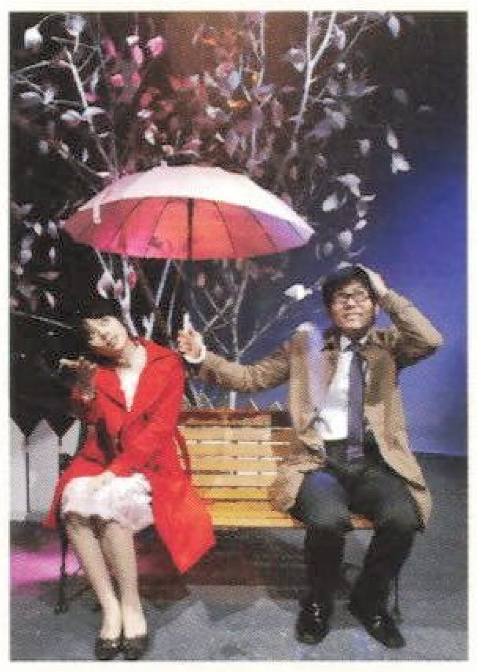
· 지휘/정우영
· 연주/부산클라리넷콰이어
· 협연/손예람(부산예고 3년), 박성빈(반려고 2년), 백지희(부산예고 2년), 지시경(하남중 2년), 이동형(신도중 1년)

■ 문 의 부산클라리넷콰이어 (010-8280-4646 , 010-4446-3321)

연극

연극 그남자 그여자

1월 22일(금)-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2/13~15일 오후 2:00, 5:00, 월요일, 2/16일 공연없음) 초콜릿 팩토리



운명적 만남에서 핑크빛 사랑과 쓰라린 이별, 아련한 추억까지 달콤쌉싸름한 사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연극 '그남자 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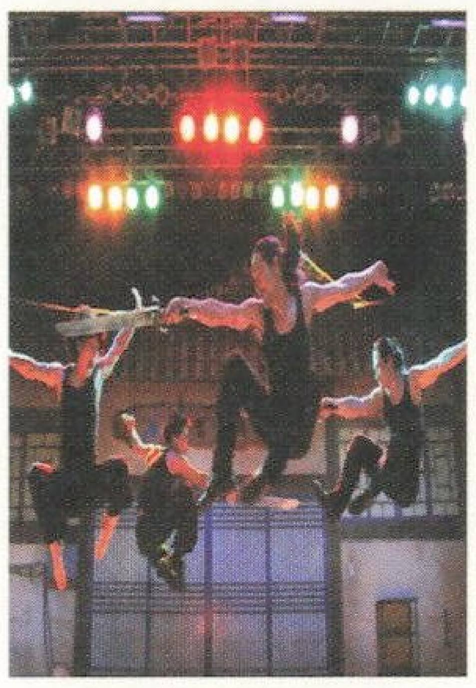
· 작/이미나
· 연출/추상욱, 이주영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초콜릿 팩토리(621-4005)

2009 점프 부산

2009년 9월 10일(목)-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 · 공휴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6:00
IBK 점프부산전용극장(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IBK점프부산전용극장(810-7000)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009년 12월 18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휴관) BB씨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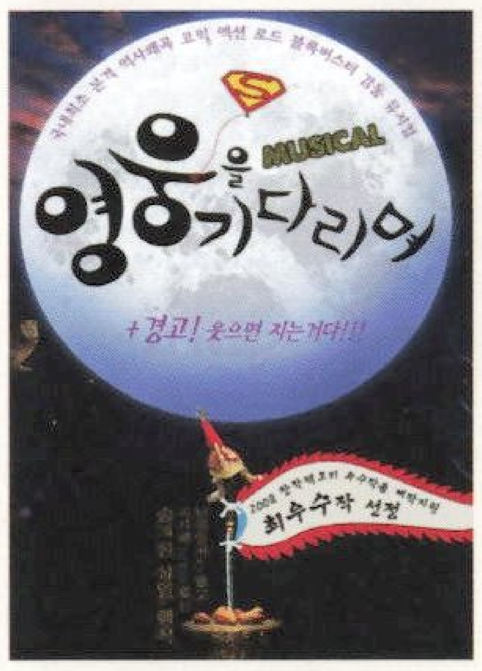
비보이와 사랑에 빠진 발레리나가 비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2005년 초연 이후 우리나라에 비보이 열품을 일으키며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한 호평을 받아왔다.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B씨어터(804-2252)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1월 7일(목)-3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2/13일, 15일 오후 4:00, 2/14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난중일기에서 사라진 이순신 장군의 3일간의 행적을 소재로, 영웅 속에 숨어 있음직한 소박한 인간 이순신을 풍자와 해학, 번뜩이는 재치로 새롭게 해석한 코믹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 예술감독/이현규 · 연출/황두수

■ 관람료 균일 4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뮤지컬 락시(樂時)터 -즐거운 시절

1월 8일(금)-3월 2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2/8-17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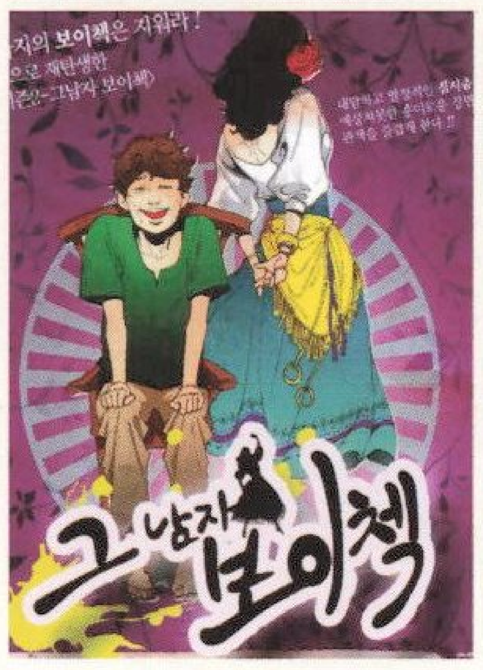
낚시터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군상들과의 헤프닝을 통해 공감과 웃음을 자아내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작사, 작곡/강민호
· 출연/오종훈, 이봉련, 오의식, 박태성, 김국희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그남자 보이첵-시즌 2

1월 15일(금)-2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매주 월요일, 2/13일-14일 공연없음)
사랑과혁명소극장



게오르그 뷔히너의 미완성 비극 '보이첵'을 음악극으로 탄생시킨 연극 '그 남자 보이첵'.

상사의 기분에 따라 조롱당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하급군인 보이첵이 장교에게 유혹당한 아내 마리를 살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작/게오르그 뷔히너 · 출연/정태윤, 황혜영

■ 관람료 균일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교수와 여제자 in Busan

1월 22일(금)-2월 7일(일) 평일 ·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4:00,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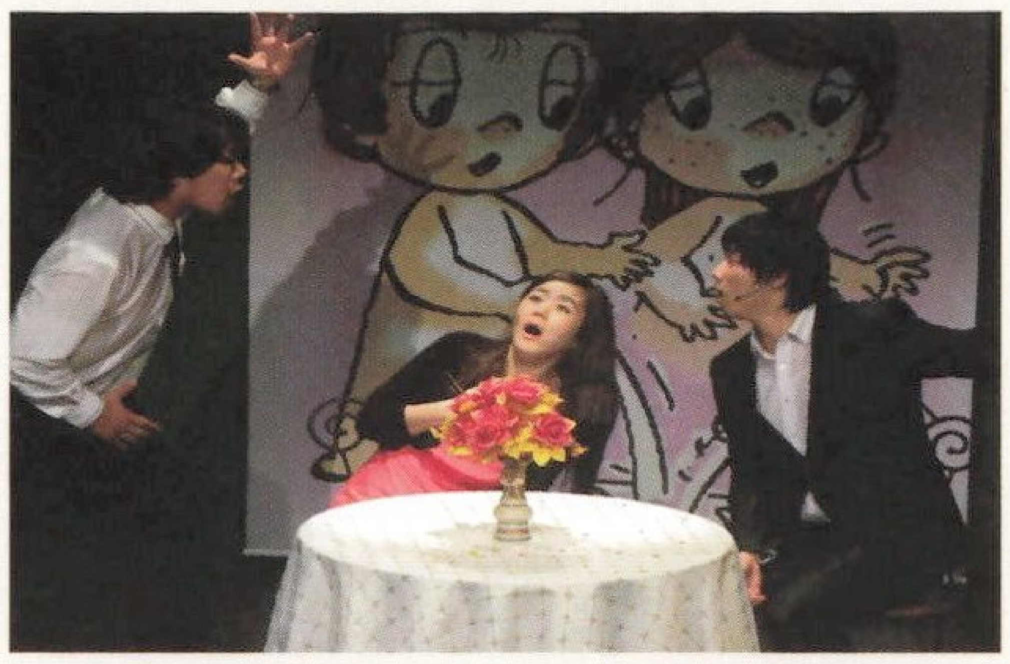
전라 성(性)묘사로 외설논란에 휩싸였던 연극 '교수와 여제자' 부산무대.

■ 관람료 균일 40,000원(만 19세이상 관람가)
■ 문 의 예술집단 참(02-2275-7104)

Love is 2

1월 23일(토)-2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물고 물리는 숨가쁜 상황 속에서 사랑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감미로



우면서도 경쾌한 선율 속에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 작, 연출/김만중 · 출연/박현민, 박유진, 박지훈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내가 가장 예뻤을 때

1월 23일(토)-3월 1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 AN아트홀.Red

2007 거창국제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한 연극 '내가 가장 예뻤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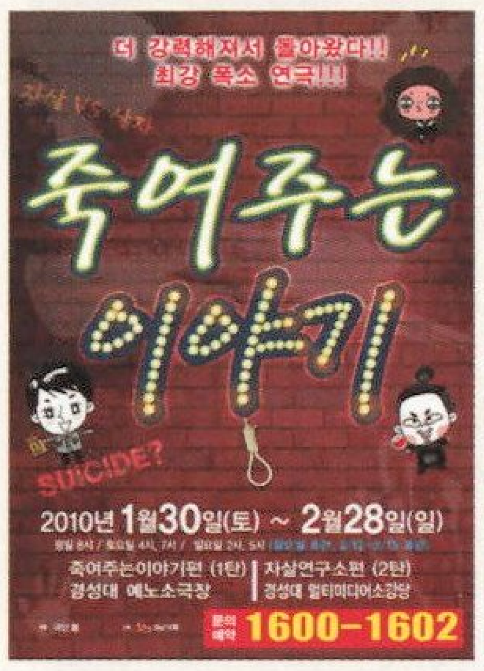
남자를 믿지 못해 결혼을 꺼리는 막내딸 시집보내기에 나선 유쾌한 동네 마당발 엄마의 가슴찡한 사랑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작, 연출/오승수
· 출연/안꽃님, 강유진, 이현정, 이정민, 문주희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AN아트홀.Red(758-9035)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1월 30일(토)-2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매주 월요일, 2/12일-15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사이트를 소재로, 자살마저도 하나의 흥밋거리가 되고마는 현대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린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죽여주는 이야기 2탄 -자살연구소편

1월 30일(토)-2월 2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매주 월요일, 2/12일-15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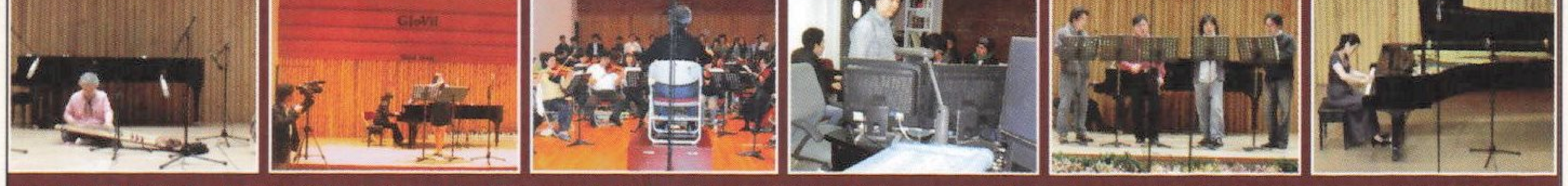
'자살'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코믹하게 그린 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2탄.

자살을 연구하는 황당한 연구소에서 펼쳐지는 엉뚱한 자살 실험들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낸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SM기획(1600-1602)

국내 최고 전문녹음홀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글로빌아트홀

첼로 김미나 줄리어드, NEC 동시합격(올해) - 2009년 10월 5일 글로빌아트홀에서 녹음한 CD제출곡으로



| 녹음사례 | 피아노 송정민 : 이스트만음대 수석합격 4년 전액 장학생, 바이올린 이슬기 : 피바디음대 합격, 성악 김혜원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합격 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빌아트홀 녹음 및 대관 문의 : 051-505-599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영어뮤지컬 신기한 스프

2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MBC롯데아트홀

상상의 우주선 선장과 선원들이 상상력의 근원이 되는 신기한 수프를 만들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모험이야기가 화려한 영상과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연주로 펼쳐지는 영어뮤지컬 '신기한 수프'.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60)

극단 아센 상상하는 여자

2월 5일(금)-3월 1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매주 화요일, 설연휴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깜찍하고 당돌한 주인공의 상상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네 사람의 좌충우돌 로맨스극 '상상하는 여자'.
· 연출/호민
· 출연/호민, 구민주, 김희지, 이성원, 안수정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어린이 뮤지컬 팥죽할멈과 호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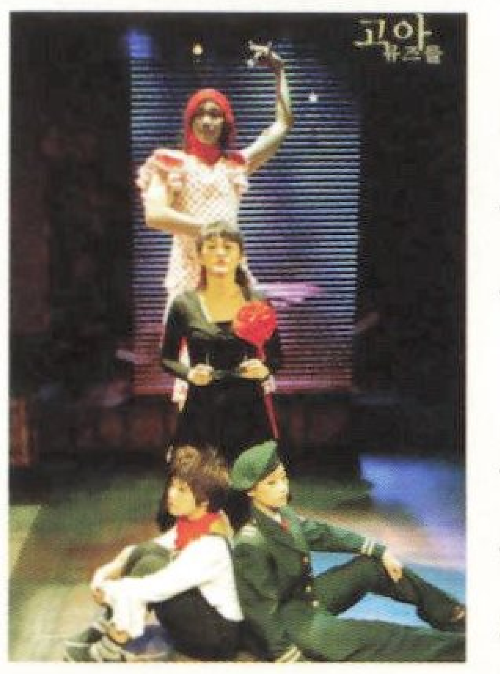
2월 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우리 선조의 지혜와 해학을 느낄 수 있는 전래동화를 흥겨운 사물놀이로 풀어낸 어린이 뮤지컬.

■ 관람료 균일 15,000원
■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가마골 국제교류연극전 고아 뮤즈들

2월 9일-11일 화-목요일 오후 8:00 가마골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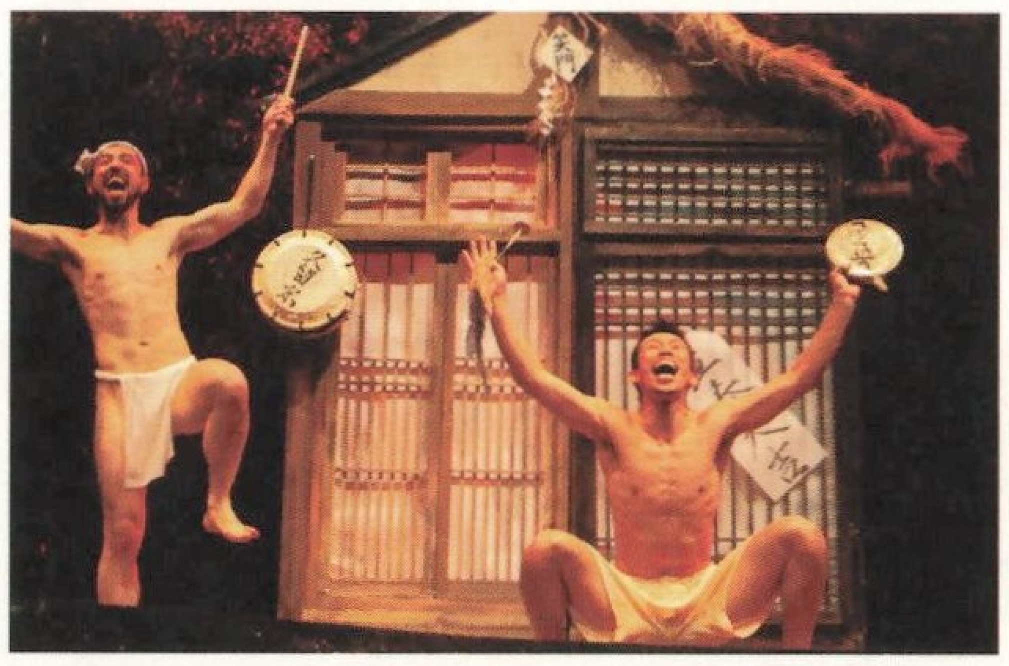
캐나다, 일본, 이라크, 튀니지 등 세계 각국의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가마골 국제교류연극전.

캐나다 작가 미셸 마크 뷰사르가 불어로 쓴 작품을 프랑스 연출가 카튀 라팽이 연출하고 한국의 배우들이 출연하는 '고아 뮤즈들'은 부모 없이 지낸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진 네 남매가 한 자리에 모이면서 드러나는 가족의 과거와 상처를 그린 작품이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0,000원(3편 프리티켓/일반 40,000원 · 대학생 30,000원 ·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
(1588-9155, www.kamagol.co.kr)

가마골 국제교류연극전 로빈손과 크루소

2월 13일 토요일 오후 8:00, 14일 일요일 오후 4:30, 7:00, 15일 월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무인도의 두 사람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이 일본 배우들과 함께한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0,000원(3편 프리티켓/일반 40,000원 · 대학생 30,000원 ·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 (1588-9155)

극단 사계 창작 단편 프로젝트 1 내 나이 마흔 살에는… 미구엘 빤따로네스 리

2월 17일-19일 수-금요일 오후 8:00, 20-21일 토-일요일 오후 5:00 공간소극장

공간소극장이 신인극작가 발굴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제 1기 극작교실(지도/김문홍) 수료생들이 펼치는 창작 단편 프로젝트 무대.

중년 여성의 새로운 자아찾기를 그린 '내 나이 마흔 살에는…'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사를 둘러싸고 펼쳐지는 '미구엘 빤따로스네 리' 등 두편의 창작단편극을 선보인다.

작품
내 나이 마흔 살에는 팬 미팅을 떠나자(작/김혜숙, 연출/허영길, 출연/임헌호, 황미애, 임선미)
미구엘 빤따로네스 리(작/유수현, 연출/김만중, 출연/이영봉, 박난희 외)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뉴 강풀의 순정만화

2월 19일(금)-3월 1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솜사탕아트홀 1관

12살 띠동갑 커플과 10살 연상 연하 커플의 순수한 사랑과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원작/강풀
· 작, 연출/추상욱
· 출연/임채홍, 김태형, 이초아, 이승은, 박상현, 윤동현, 보하라, 박미선 외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1566-7050)

가마골 국제교류연극전 아브그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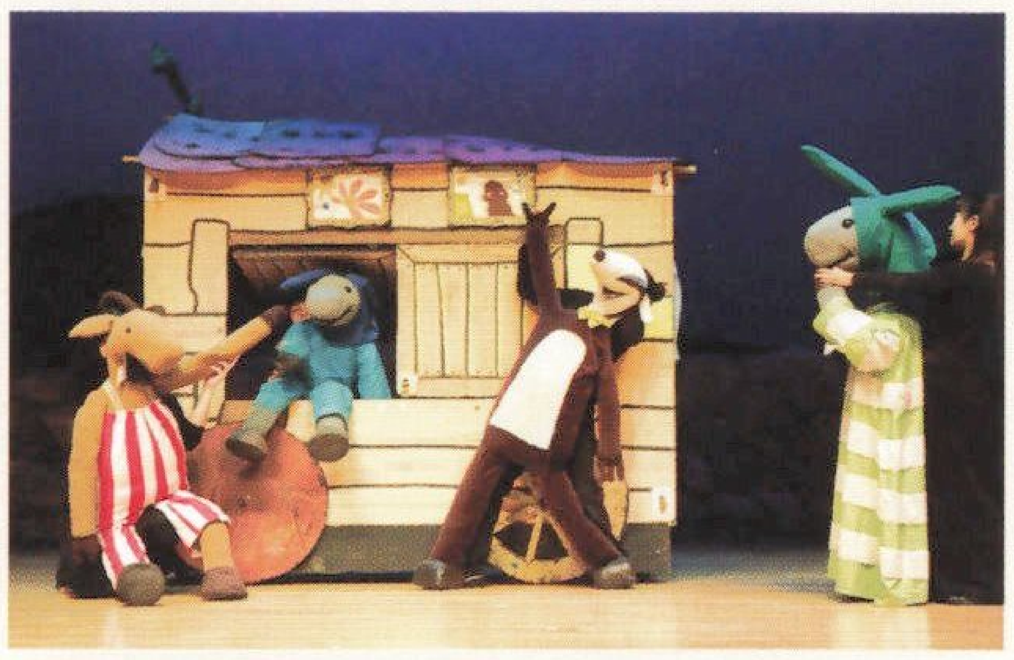
2월 19일 금요일 오후 8:00, 2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4:00, 7:30 가마골소극장

내전국가인 이라크와 튀니지 극단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무대로, 이라크만의 독특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0,000원(3편 프리티켓/일반 40,000원 · 대학생 30,000원 ·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가족인형뮤지컬 리틀동키

2월 20일(토)-28일(일) 화-수요일 오후 3:00, 목요일 오전 11:00(단체공연), 오후 3:00,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후 2:00(월요일 공연없음)
MBC롯데아트홀



착하고 용감한 꼬마당나귀 리틀동키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가슴따뜻한 이야기가 동화 속 세계를 표현한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20일 오전 11시, 23일 오후 3:00 공연 예매시 50%할인, 호랑이띠 가족 관람 예매시 3인까지 3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60)

가마골 세계명작무대 1 체홉전 큰 길가에서

2월 24일(수)-2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30 가마골소극장

2010년 탄생 150주년을 맞는 근대 사실주의 연극의 선구자 안톤 체홉을 기념하는 세계명작무대 1 '체홉전' 첫 번째 무대.

연극 '큰 길가에서는'은 선술집을 배경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사랑을 비극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 연출/이윤택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0,000원(3편 프리티켓/일반 40,000원 · 대학생 30,000원 ·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한자교육 뮤지컬 마법천자문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8일 일요일 오후 1:00, 3:30
시민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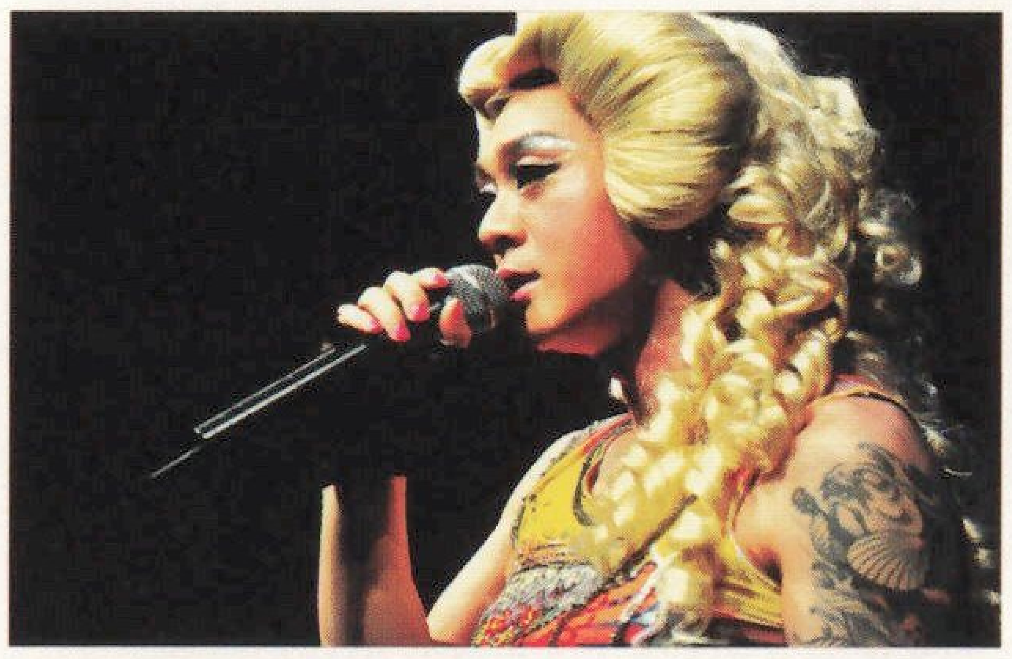
어린이들 사이에서 한자 교육 바람을 일으켰던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뮤지컬로 각색한 교육뮤지컬 '마법천자문'.

· 작, 연출/김진만
· 작사/장혁수 · 작곡/이동준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 문 의 초록공간(1566-9786)

뮤지컬 헤드윅

3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6일-7일 토-일요일 오후 3:00, 7:00 MBC롯데아트홀



2005년 국내 초연 후 유료 객석 점유율 역대 1위, 전회 매진 신화의 기록을 세운 뮤지컬 '헤드윅'.

가수 헤드윅의 삶의 여정을 통해 트랜스젠더 가수의 삶과 사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파워풀한 가창력의 가수 윤도현과 '제 2의 조승우' 최재웅, 4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이주광이 헤드윅으로 캐스팅되어 3인 3색 연기대결을 펼친다.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청소년, 대학생 S, A석에 한해 5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보잉보잉 1탄

3월 5일(금)-4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솜사탕아트홀 1관

바람둥이 남자주인공이 세명의 각기 다른 스튜디어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폭소 코믹극.

· 작/마르꼬 까블레디
· 번역, 연출/손남목
· 출연/김명철, 이현희, 김윤환, 김희준, 정주희, 박신혜, 이미래, 김원정 외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솜사탕아트홀(1566-7050)

가마골 세계명작무대 1 체홉전 곰, 청혼

3월 5일(금)-14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7:30 가마골소극장

남편이 죽은 후 남자를 멀리하는 여자와 빚을 받으러 온 남자, 그 두 사람의 사랑을 그린 '곰'과 청혼을 하러 갔다 사소한 일로 의견대립을 벌이는 두 남녀의 이야기 '청혼' 등 두 작품을 선보인다.

· 연출/오동식, 이소정

■ 관람료 일반 20,000원 · 대학생 15,000원
초중고생 10,000원(3편 프리티켓/일반 40,000원 · 대학생 30,000원 · 초중고 2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영화

우리 시대의 프랑스 영화

2월 2일(화)-4일(목)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현대 프랑스영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시대 젊은 감독들의 주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지역순회상영전 '우리 시대의 프랑스 영화'.

상영작
파수꾼(감독/아르노 데스플레생, 1992년 작), 이마 베프(감독/올리비에 아사야스, 1996년 작), 인력자원부

(감독/로랑 캉테, 1999년 작), 세실 카사르, 17번(감독/크리스토프 오노레, 2002년 작), 신참 경찰(감독/자비에 보브와, 2005년 작), 플랑드르(감독/브루노 뒤몽, 2006년 작)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 (742-5377, cinema.piff.org)

빌리 와일더 특별전

2월 5일(금)-28일(일)
시네마테크 부산(상영시간 미정)

풍자와 비판을 통한 독자적인 영화미학을 선보인 거장 빌리 와일더 감독 특별전.

초기작 '이중배상' '선셋대로'와 같은 걸작 누아르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좋아'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등 웃음과 날카로운 풍자가 어우러진 코미디 작품까지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콘서트

사와 도모에 한국 순회공연

2월 5일 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시인 김소운의 외손녀로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가수 사와 도모에 한국 순회공연.

동경예술대학 재학 중 가수로 데뷔한 사와 도모에는 1998년 일본레코드대상 아시아음악상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20개의 음반을 발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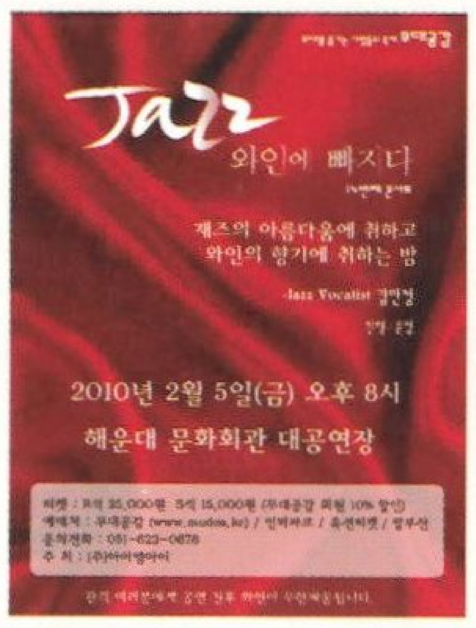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그의 대표곡인 '마음'을 비롯해 반전노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우리가요 '아침이슬'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로 들려준다.

· 연주/야마구치 토모(폐용품 악기 연출자 겸 퍼커션), 나카무라 사토시(색소폰 & 키보드)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시민회관(630-5200)

Jazz…와인에 빠지다 14번째 콘서트

2월 5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재즈 보컬리스트 김민정과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 진행/윤정

■ 관람료 R석 25,000원
S석 15,000원
■ 문　의 (주)아이엠아이 (623-0678)

2010 추억의 낭만콘서트-부산

3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7:30
KBS 부산홀

가수 최백호, 최헌, 이동원, 조경수, 백영규, 임희숙, 한경애, 김세화 등이 출연해 1970~80년대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주는 추억의 낭만콘서트.

■ 관람료 VIP석 77,000원 · R석 66,000원
S석 55,000원 · A석 44,000원
■ 문　의 스타라인(1644-7080)

행사

벡스코 KBS 도전지구탐험대와 매직버블쇼

2009년 12월 18(금)-2010년 2월 15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일반 11,000원 · 어린이 13,000원
■ 문　의 (주)ESK(740-8331~2)

키즈랜드 2010

2009년 12월 24(목)-2010년 3월 1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주)씨앤제이(740-8800)

부산시울림 제 91회 시낭송회

2월 3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경수, 김재홍, 김정호, 노준옥, 박영, 박치환, 이영옥, 조향미, 한경동
· 오카리나 연주/강정이　· 사회/한창옥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전시

신옥진 기증작품전

2009년 9월 5일(토)-2010년 2월 15일(월)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김창렬展

2009년 12월 5일(토)-2010년 2월 2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물방울'이라는 대상을 통해 동양 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렬 특별전.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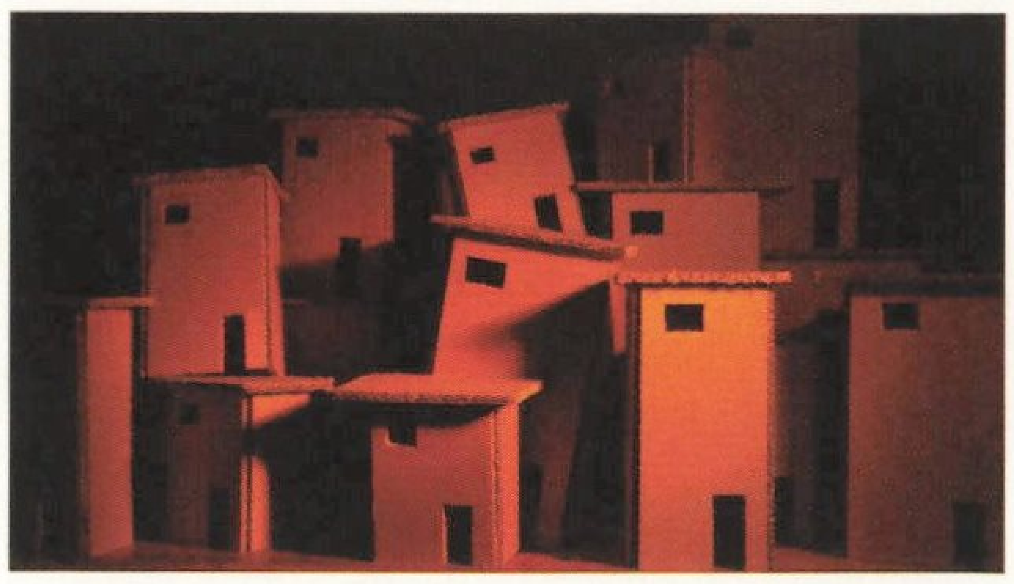
부산의 작고 작가-김경, 김천옥

2009년 12월 5일(토)-2010년 2월 15일(월)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김대홍, 김지문, 박성란-

2009년 12월 12일(토)-2010년 2월 15일(월)
부산시립미술관


김대홍 作 '어느날 목성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참신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을 선정, 현대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09'.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배병우 사진전

2009년 12월 19일(토)-2010년 2월 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한국과 한국인의 깊은 심상에 잠재한 소나무의 기상을 끌어내 '소나무 작가'로 알려진 배병우 사진전.

■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공생과 경쟁의 바다생물 사진전

1월 15일(금)-2월 28일(일) 수산과학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사는 해양생물과 천적관계로 살아가는 바다생물 등을 사진과 설명패널을 통해 보여주는 해양생물 테마전.

■ 문 의 수산과학관(720-3061~5)

노순택 사진전

1월 16일(토)-3월 28일(일) 고은사진미술관

■ 문 의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2010 호랑이띠 展

1월 19일(화)-3월 1일(월) 부산박물관

■ 문 의 부산박물관(610-7142)

2010 Love again

1월 20일(수)-2월 28일(일)
김재선갤러리 부산

· 참여작가/고근호, 고상우, 김동철, 남철희, 류명렬, 박영균, 박주현, 변대용, 설종보, 이창헌, 정우영, 최윤정

■ 문 의 김재선갤러리 부산(731-5438)

김재선갤러리 기획 밝은미래展

1월 22일(금)-2월 16일(금) 부산아트센터

· 1부(1월 22일-2월 5일)/이상하, 이수영, 이현지, 정지은, 조아랑, 지선희, 최선미, 홍희주
· 2부(2월 10일-2월 26일)/박미리, 박지희, 서평주, 손세원, 이아름, 이주은, 이준식, 이창운

■ 문 의 부산아트센터(461-4557~8)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신년기획 2010 희망 그리고 도약展

1월 22일(금)-2월 4(목) 롯데갤러리 부산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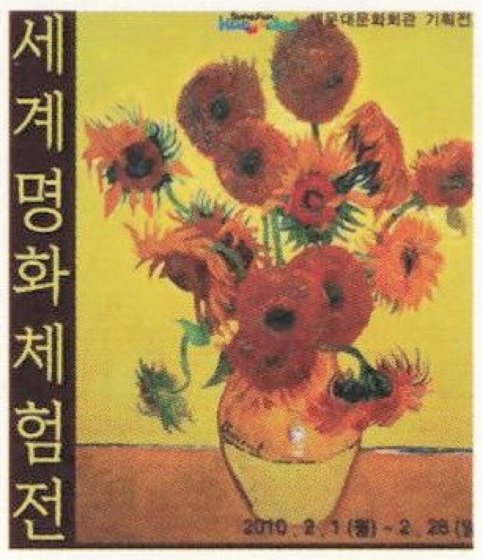
구본호 作 '까치와 호랑이'

곽태임, 구본호, 남정예, 박인관, 홍익종 등 호랑이와 소나무를 화폭에 담아온 작가 5인의 작품이 전시된다.

■ 문 의 롯데갤러리 부산본점(810-2328)

세계명화체험전

2월 1일(월)-2월 28일(일)
해운대문화회관 전시실



고흐 '해바라기'를 비롯해 인상파 작품 30여점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과 탁본, 판화 등 명화만들기, 가방, 티셔츠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함께 펼쳐지는 세계명화체험전.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이재구 사진전 'In & Out'

2월 1일(월)-2월 26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및 신문방송대학원, 미국 R.I.T 영상예술과학대학 대학원(M.F.A)을 졸업하고 경성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고은사진미술관 관장으로 있는 이재구 사진전 'In & Out'.

■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내 마음속 호랑이

2월 1일(월)-2월 12일(금) 갤러리 이듬

· 참여작가/구본호, 김성삼, 박근표, 최성환, 한오

■ 문 의 갤러리 이듬(743-0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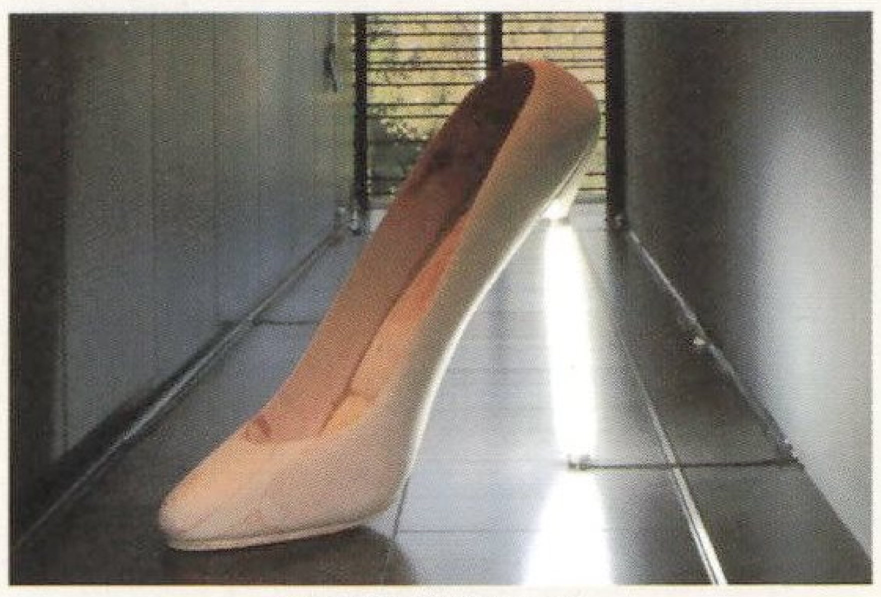
조세현 사진전

2월 5일(금)-2월 18일(목) 롯데화랑 서면점

■ 문 의 롯데화랑 서면점(810-2328)

Light on!

2월 5일(금)-2월 28일(일) 조현화랑 부산



장성은 作 'Shoe'

· 참여작가/김성수, 윤애영, 이광기, 장성은, 최수환, 홍승혜, 유이치 히가시오나

■ 문 의 조현화랑 부산(747-8853)

21세기 시대와 정신展

2월 5일(금)-2월 20일(토)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시민회관 한슬아트샵 참여작가 작품전

2월 17일(수)-2월 27일(토)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 문 의 부산시민회관(630-5200)

권미영 개인전

2월 19일(금)-3월 4일(목) 롯데화랑 서면점

■ 문 의 롯데화랑 서면점(810-2328)

백낙효 서양화 개인전

2월 23일(화)-3월 4일(목) 타워갤러리

■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부산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무용단 - 2010. 복지관 순회공연 개최

-영진종합복지관, 부산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7곳 공연-

부산문화회관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과 3월 '찾아가는 무용단-2010 복지관 순회공연' 을 개최한다.

2005년부터 펼쳐진 부산시립무용단의 복지관 순회공연은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어르신들을 방문,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멋과 흥을 직접 전하는 무대로 매년 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는 2월 1일 영진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7곳의 종합복지관에서 부채춤, 소고춤, 설장고춤, 꼭두각시춤, 성주허튼춤,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 등 남녀노소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를 선정, 흥겨운 무대를 열어준다.

2월 1일(월) 오후 1:00 영진종합사회복지관
2월 4일(목) 오전 11:00 부산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2월 12일(금) 오후 3:00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3월 2일(화) 오전 11:00 학장종합사회복지관
3월 3일(수) 오후 2:00 전포종합사회복지관
3월 4일(목) 오후 3:00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3월 11일(목) 오후 2:00 동원종합사회복지관
○ 예술감독 : 홍기태(수석안무자)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2월 일정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이 2010년에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2월에는 2월 1일 부산시립무용단의 찾아가는 복지관 공연을 시작으로 시청로비콘서트, 근로자 위문공연 등이 펼쳐진다.

■ 2월 공연 일정

2월 1일(월)	13:00	복지관 순회 공연-영진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2월 4일(목)	11:00	복지관 순회 공연-부산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출연/무용단)
2월 10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시청 로비콘서트'(출연/무용단)
2월 12일(금)	15:00	복지관 순회 공연-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출연/무용단)
2월 24일(수)	15:30	농심 녹산공장 '근로자 위문공연'(출연/국악관현악단)
2월 24일(수)	18:00	인재개발원 '주민어울림 한마당'(출연/합창단, 교향악단)

·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대관 안내

부산문화회관에서는 국제회의장을 2010년부터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확대 운영합니다.
문화 예술, 공익관련 시상식과 강좌, 세미나 등 문화 예술행사로 제한되어 있었던 국제회의장 사용을 2010년 부터 학술, 학예(어린이)발표회, 세미나, 워크샵 등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개방합니다.

- ■ 모집기간 : 연중
- ■ 규　모 : 133석
- ■ 사용료 : 1회 80,000원(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이라 함)
- ■ 접수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2)

시민클래식교실이 열린 국제회의장 내부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 필 앙상블 제 20회 아크로스 런치타임 콘서트 참가

부산시립교향악단 여성 현악주자들로 결성된 레이디스 필 앙상블이 (재)아크로스 후쿠오카 런치타임 콘서트에 초청받아 2월 10일, 일본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재)아크로스 후쿠오카 런치타임 콘서트는 부산과 자매 도시로 오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후쿠오카 시의 랜드마크이자 공연 예술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다.

여성다운 섬세한 연주로 호평 받아온 레이디스 필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앤더슨 '재즈 레가토' '재즈 피치카토', 드라마 '천국의 계단' 중 '보고싶다' '아베 마리아',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아메리카' 등 클래식 음악과 한국드라마 OST를 선곡, 한류의 열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주실황이 생방송으로 현지에 방영될 예정이다.

레이디스 필 앙상블

부산시립무용단 대만 카오슝시 '2010 등축제' 참가

부산시립무용단이 2월 20일부터 사흘간 부산시의 자매도시인 대만 카오슝시에서 열리는 '2010 등축제'에 참가한다.

대만 카오슝시의 '2010 등축제'는 매년 250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전통축제이다. 부산시립무용단은 2월 20일 아이허(愛河) 강변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21일 민속공연, 22일 장청노인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춤의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

등축제 개막식에서는 한국 민중들의 축제이자 일놀이 춤인 영남 덧배기 춤을 힘찬 역동성으로 표현, 배김새의 다양한 몸짓과 상모놀음 등을 통해 신명난 생춤의 세계를 펼쳐낸 '천지현황'을, 민속공연 무대에서는 바닷가에서 피어나 꽃의 신선이라 불리는 해당화를 그린 춤 '화중신선', 역동적인 설장고 가락과 맵시 있게 어우러지는 '설장고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화중신선

부산시립무용단 2010 정월대보름공연 '지신밟기와 기원무'

2월 24일 수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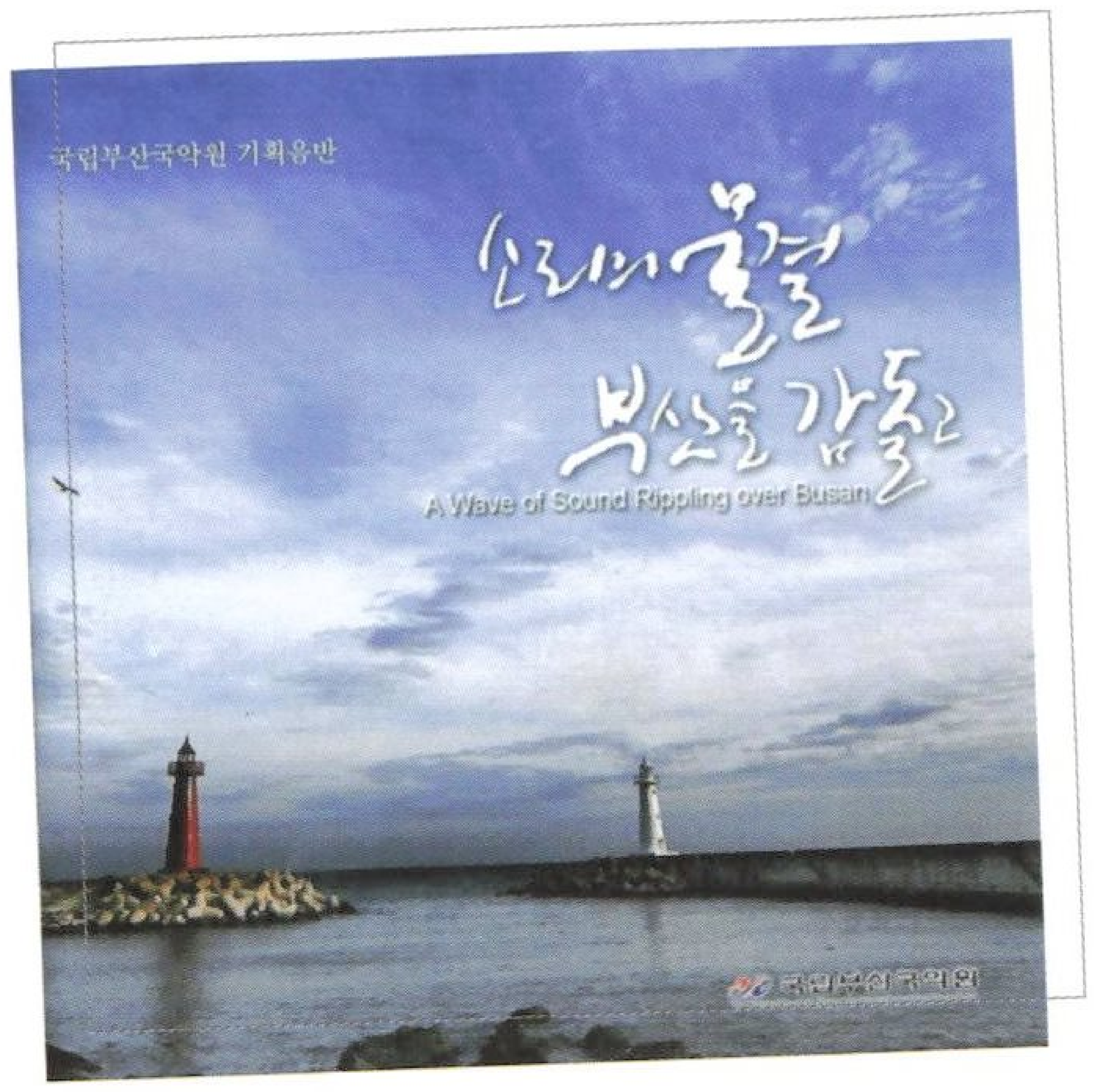
2010년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부산시립무용단의 정월 대보름 공연이 2월 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을 비롯해 전체 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날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문화회관의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며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등을 돌며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와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삶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전통적인 굿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멋스러운 '기원무'를 대극장 로비에서 공연한다.

국립부산국악원 기획음반

소리의 물결 부산을 감돌고

이 정 필_ 국립부산국악원 예술감독



부산 · 영남지역의 전통공연예술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국립부산국악원이 2008년 10월말에 개원하여 영남의 춤과 소리로 힘찬 항해를 시작한지 어느 듯 1년이 지나고 있다.

이번 달에 필자가 소개해 드릴 음반은 공연, 교육,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서 그간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는 다양한 전통공연예술의 아름다움을 지역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이 영남지역의 전통과 창작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국악을 전개하고자 제작한 기획음반 '소리의 물결 부산을 감돌고' 이다.

이 음반은 지역의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를 비롯해서 '영남민요연곡' '영남성주굿' 그리고 동부권지역의 메나리 토리를 새롭게 피리로 표현한 '춤을 위한 메나리' 를 수록하였으며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관련된 의미가 담겨있는 정통음악 '만파정식지곡' 과 창작음악 '청사포의 아침 해' , 선비들의 단아한 기풍과 아정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풍년' 을 통하여 전통의 계승과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지향하는 국립 음악 기관으로서의 의지를 반영한 음반이다. 정악, 민속악, 창작곡 등이 그간 발표되고 연주되어진 곡들이지만 젊은 단원들의 새로운 예술적 시각과 음악적 감각 그리고 열정과 정성이 담겨있는 음반이라 생각된다.

특히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해금과의 이중주로 새롭게 구성하여 해금의 아름다움과 가야금의 선율이 절묘한 음향의 조화로서 색다른 산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영남민요연곡은 지역의 민요들 중에서 대표적인 '상주모심기' '밀양아리랑' '쾌지나칭칭' 을 기악합주곡으로 재구성, 젊은 연주자들의 개인 기량이 돋보이면서 활발한 느낌의 가락과 선율을 통하여 한(恨)과 흥(興)의 감정이 동시에 수반되는 연주곡이다. 성악의 기능을 기악이 담당하여 육성으로 듣는 민요와는 또 다른 영남 민요의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성주굿은 풍물패들이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성주 즉, 집의 주인(성주신)을 위해 연행하던 풍물 굿이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복을 맞이하길 염원하는 사설의 내용이 진솔하다. 기존에는 사물장단에 소리가 첨가되어 담백하게 연주하던 것을 화려한 관현악 반주와 타악의 다이내믹한 리듬이 구성진 소리와 더불어 한층 더 신명을 불러일으킨다.

피리삼중주 곡으로 작곡된 최초의 작품인 '춤을 위한 메나리' 는 단피리, 향피리, 대피리가 타악의 장단에 맞추어 고음, 중음, 저음을 넘나드는 음색의 향연을 통하여 피리가 가진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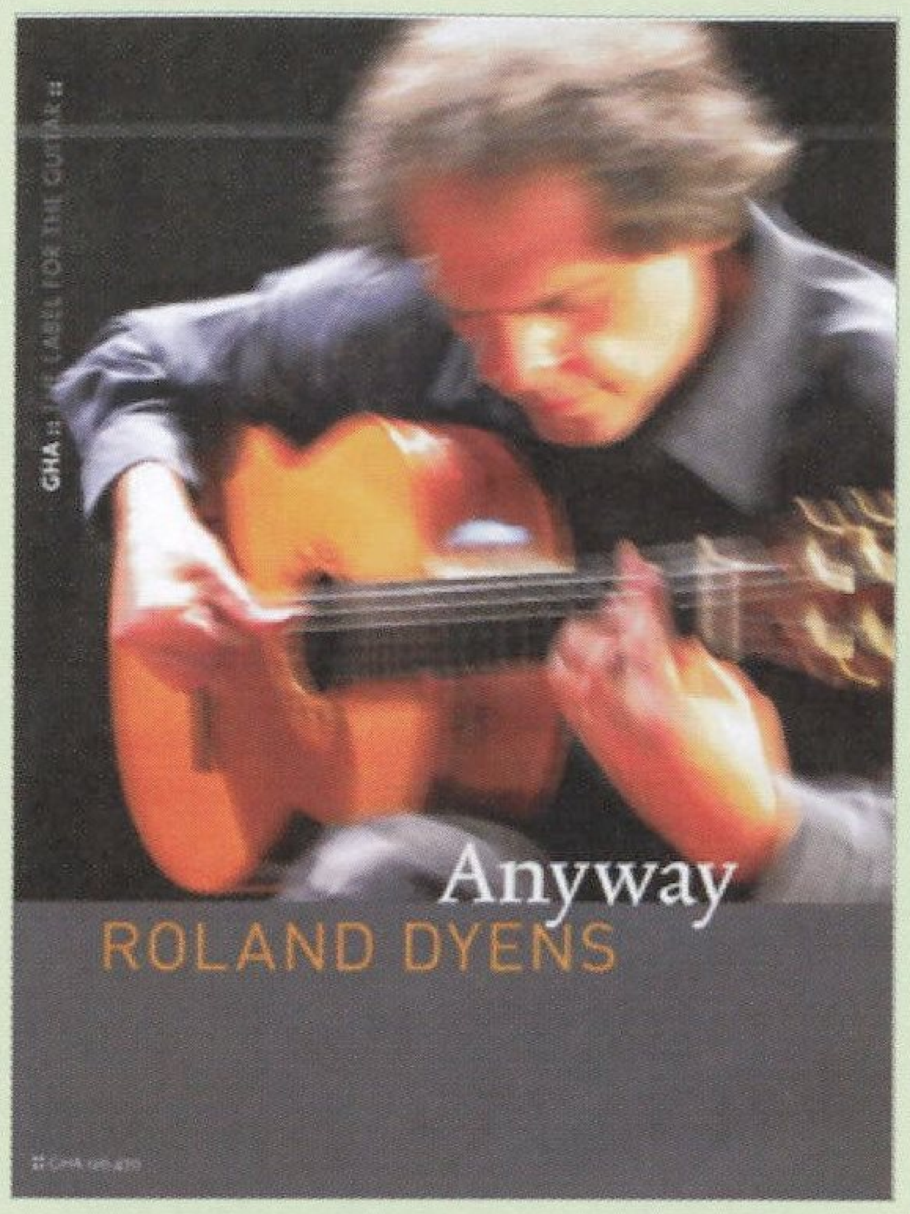
특히 경상도 지역의 메나리 가락을 작곡에 반영하여 소박하면서도 해맑은 목동의 피리 소리처럼 골짜기를 감돌아 전해 오는 듯한 피리의 여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사포의 아침해' 는 남편을 기다리는 애절한 사연과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낸 故 김기수 선생님의 곡으로 198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의해 위촉 초연된 국악관현악곡이다. 부산의 정서를 연주에 자주 쓰이지 않는 특수 악기 편성으로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으나 전장을 연주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여 녹음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립부산국악원 기획음반 '소리의 물결 부산을 감돌고' 는 영남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레퍼토리 선정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음반이 아닌가 생각한다.

NEW |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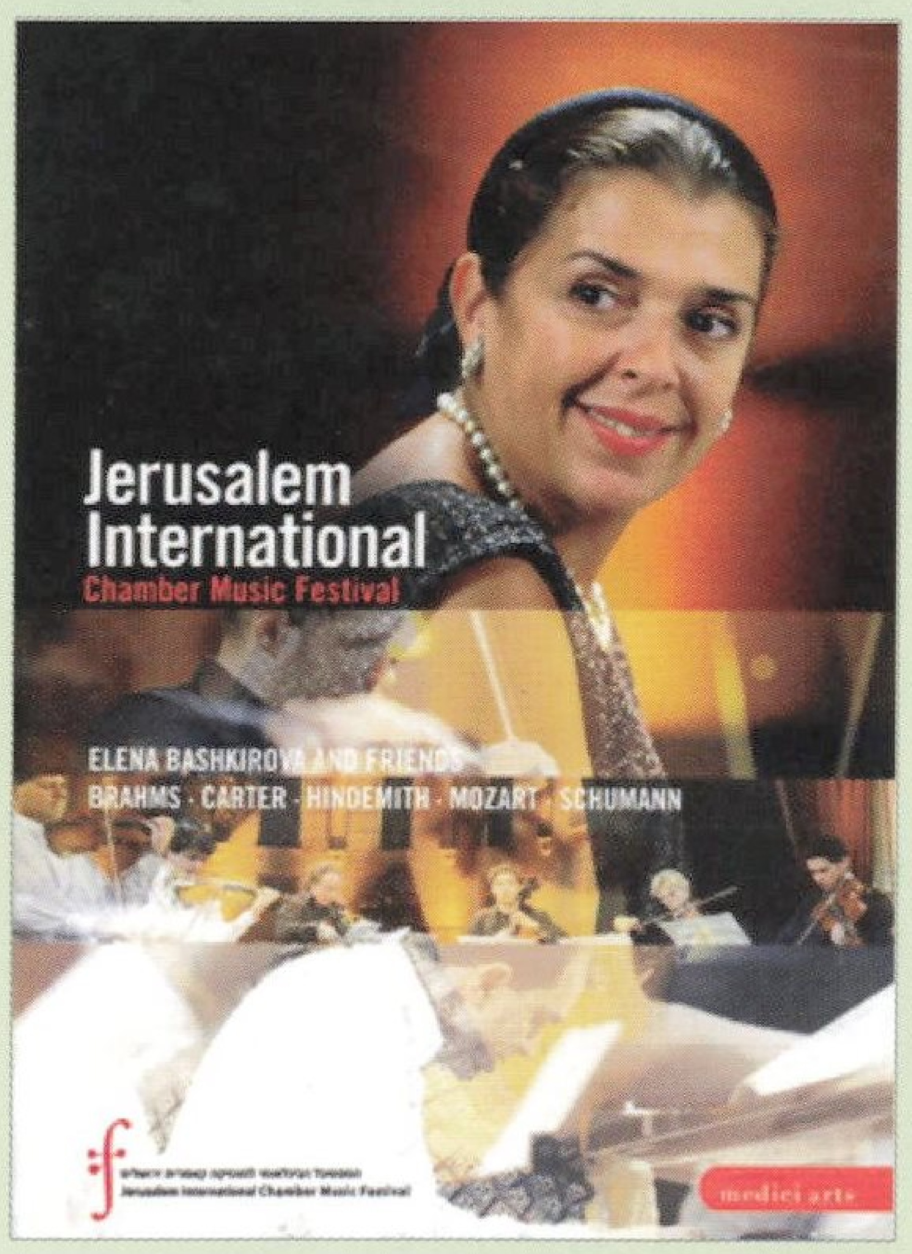
문 희 정_ GM뮤직(246-0752)제공



롤랑 디앙스 〈Anyway〉

▶ 전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롤랑디앙스의 첫번째 공식 DVD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 받고 있는 프랑스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롤랑 디앙스의 첫 번째 공식 DVD. '천재적' '마술적' '환상적' 등 그를 설명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의 의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영상에서 롤랑 디앙스는 가족, 기타에 대한 열정 및 철학을 희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자신이 담담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경이롭다고 평가 받는 그의 작곡, 편곡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채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롤랑 디앙스 자신이 작곡하거나 편곡한 작품만으로 구성된 연주 또한 환상적이다. 바덴 파웰, 조빔, 아리엘 라미레스의 주옥같은 남미작품들, 〈A Night in Tunisia〉, 〈Funny Valentine〉의 재즈 스탠다드의 맛깔스러운 편곡작품들, 롤랑 디앙스 자신이 작곡한 〈Anyway〉 등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가는 것을 잊게 만드는 놀라운 연주이다. 특히, 카메라가 환상적인 롤랑 디앙스의 연주 테크닉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듯이 클로즈업시켜 보여주고 있어 롤랑 디앙스의 연주법을 배우고 싶은 기타애호가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2008년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챔버 페스티벌

브람스 현악6중주 1번, 슈만 피아노5중주, 모차르트 피아노트리오 K.564 외

· 연주/엘레나 바슈키로바(피아노), 마이클 바렌보임(바이올린), 프란스 헬메르손(첼로) 외

▶ 브람스의 현악6중주와 슈만의 피아노5중주를 담은 최고의 실내악 DVD

예루살렘 인터내셔널 챔버 페스티벌은 1998년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엘레나 바슈키로바에 의해 시작되었다. 본 DVD는 이 세계적인 실내악 제전의 10주년이었던 2008년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를 수록하였다. 페스티벌의 산파인 엘레나 바슈키로바 외에도 그가 다니엘 바렌보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이클 바렌보임, 스웨덴의 정상급 첼리스트 프란스 헬메르손, 2001년 루빈시타인 콩쿠르 우승자인 러시아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스테인, 미국의 중견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플루트 수석 가이 에세드, 베를린 필의 악장인 가이 브라운스테인, 역시 베를린 필 단원인 마델라인 카루초, 그리고 베를린 필의 클라리넷 수석이었으며 현재는 지휘자로도 활동 중인 칼 하인츠 슈테판스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브람스의 현악 6중주와 슈만의 피아노 5중주와 같은 인기작들 외에도 힌데미트의 클라리넷 4중주, 모차르트의 피아노트리오 K.564 등을 최고의 화질로 만날 수 있다.

엠마 커크비의 마니피카트

J.S.바흐 칸타타 51번 '모든 땅에서 신을 환호하라' / 비발디 마니피카트

헨델 시편 113편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HWV237 / 헤이스 수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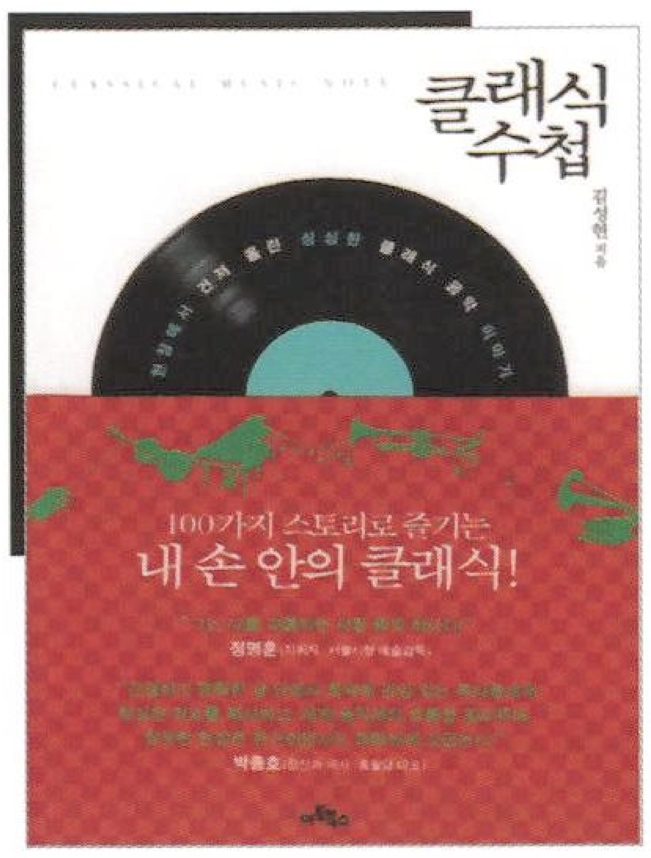
· 연주/엠마 커크비(소프라노), 고음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오브 더 안티포네스'(지휘/안토니워커), 칼틸레션합창단

Emma Kirkby(S), Cantilation, Orchestra of the Antipodes, Antony Walker

고음악 부분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엠마 커크비. 언제나 변함없는 청아한 미성의 소프라노로 순수하고, 명료한 딕션의 노래를 들려준다. 그녀가 부르는 아름다운 종교 성악곡집으로, 바흐 칸타타 51번 〈모든 땅에서 신을 환호하라〉와 비발디 〈마니피카트〉 헨델 〈시편 113편〉와 헤이스의 〈수난곡〉을 담고 있다. 안토니 워커가 지휘하는 고음악 앙상블 오케스트라 '오브 더 안티포네스'와 '칸틸레션' 합창단의 반주. '클리스탈 보이스'라는 애칭처럼 순수하고 청아한 그녀의 목소리는 세속을 초월한 듯 싶다.

NEW **BOOK**

박 현 주_ 동보서적 〈웹진 책소식〉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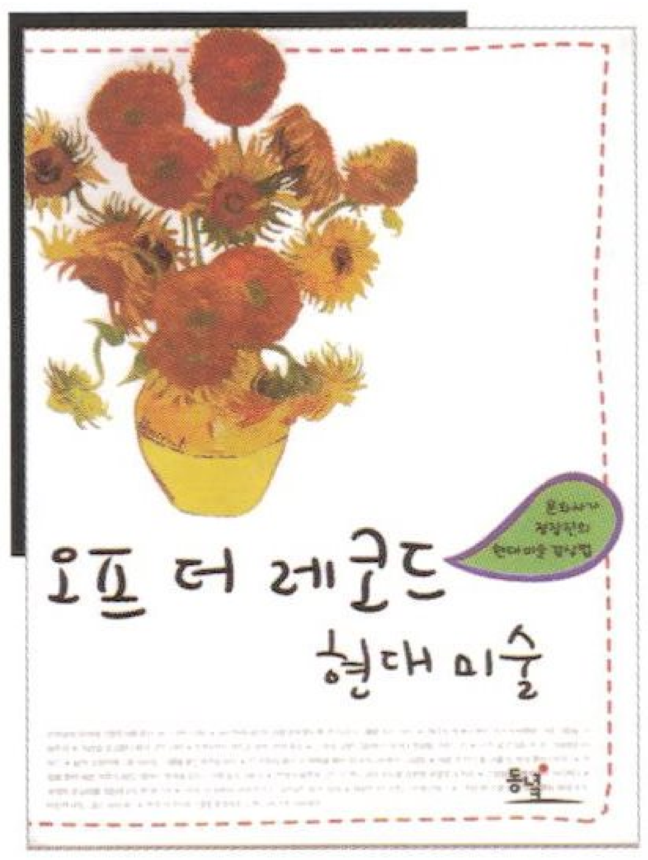


클래식 수첩

김성현 지음

아트북스 / 343p / 15,000원

조선일보 음악 담당 김성현 기자가 현장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클래식 음악 이야기. 2005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해 온 〈클래식 ABC〉라는 짧은 음악칼럼을 모아 새롭게 책으로 펴낸 것이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애호가들과 클래식을 사랑하려고 하는 입문자들을 위해 기자다운 생생함과 기지로 어려운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음악회장에서 박수는 언제 쳐야 할까?'–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음악회 종류에 따른 최고의 명당은 어디?'–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나 명당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하다. '엉덩이 가벼운 당신을 위한 딴전부리기 가이드'–음악회에 몰입하지 못해 괴롭다면 연주하고 있는 단원 수를 분야별로 꼼꼼히 세어보라. 이런 식으로 누구나 공감할 만한 화제 100가지를 던지며 클래식 감상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연주회장에 갔을 때 졸리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등 사소한 이야기부터 클래식의 높고 두꺼운 성벽을 허물어간다. 각각의 글들은 짧지만 날카롭고, 경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고루하지 않은, 친근하고 재미있는 클래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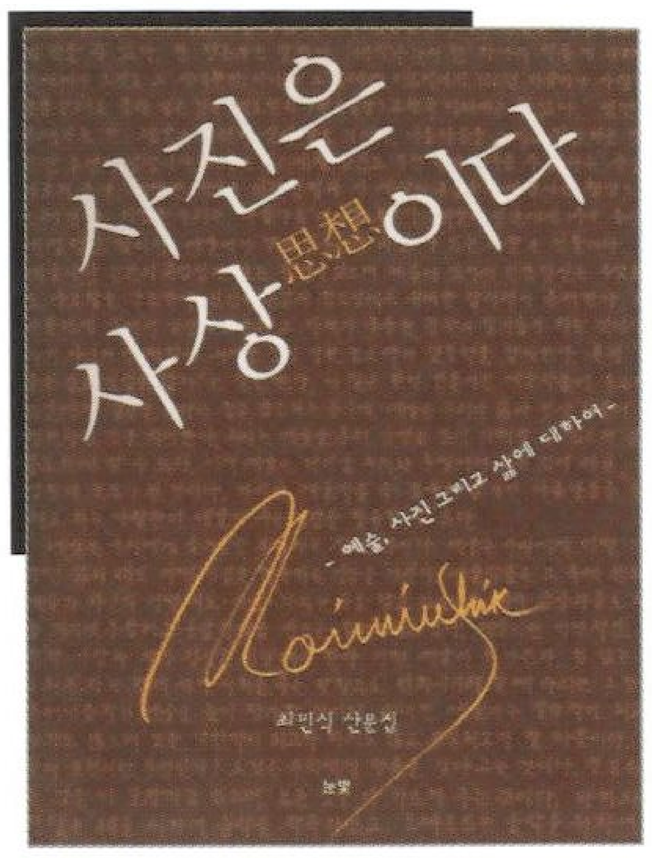


오프 더 레코드 현대미술

정장진 지음

동녘 / 340p / 16,000원

대학에서 프랑스 미술과 문학을 가르치며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해 온 정장진 교수의 미술 감상법. 이 책에서 말하는 현대 미술 속 '현대'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19, 20세기를 가르킨다. 고흐를 비롯한 마네, 밀레, 루소 등도 현대미술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책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미술을 현대미술 범주에 넣어 사회문화사적 흐름까지 짚는 색다른 미술 해설서의 자격을 얻었다. 현대미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그림 자체의 보이는 부분만이 아닌 그림 너머의 다양하고 독특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폭넓은 그림 읽기를 시도한다. 자신의 전공인 불문학을 살려 그림에 프랑스 문학 이야기를 함께 곁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림과 문학 장면의 연계가 더욱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의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그림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나온 것이라는 대목 등이 주목할 만하다. 문학과 그림,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 사이를 오가다 보면 현대미술이 점점 흥미로워 진다. 걸작 명화들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자.



사진은 사상이다

최민식 지음

눈빛 / 255p / 12,000원

사진은 사진가의 철학적 사상과 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라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잡아온 사진가 최민식의 사진론에 대한 글을 수록한 에세이집. 한국 리얼리즘 사진의 대가인 저자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생각과 사진을 대하는 견해,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글들을 담고 있다. 그는 인생 최대의 스승이자 정신적 벗으로 꼽은 베토벤의 말 '나의 예술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래서일까. 반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시선은 항상 당대의 비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정됐다. '가난한 자를 찍어 팔아 먹는다'는 비난과 오해를 받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사진에 나타난 시대의 적나라한 빈곤 때문에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머문 공간은 한결같이 시장터와 역전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실천해 온 사상 역시 예술관과 일맥상통하며 휴머니즘, 시대정신과도 닿아 있다. "사진가는 현장과 역사를 기록하는 관찰자다. 좋은 사진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찍는 것'이다. 당신의 사진이 불만스럽다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저자의 말이 예리하게 와 닿는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 신년 음악회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년 신년 음악회는 지휘자 곽승의 원숙미 넘치는 지휘와 소프라노 이윤경의 아름답고 힘찬 아리아로 겨울 속에서 새 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대를 120% 만족시켜준 멋진 시간이였습니다. 특히 슈트라우스의 왈츠 '봄의 소리' 는 2010년을 여는 최고의 음악 선물이 아니였나 생각이 되네요!!!

- **이 수 임**(남구 대연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이야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찌가 찌가 바이올린 가족 이야기' 를 관람하면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의 조상이 '비올' 이라는 한 악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다양한 소리를 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악기에 관한 책을 한 권 읽는 것보다 유익한 시간이었다.

- **김 주 현**(북구 덕천동)

루시드폴 부산콘서트

몇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루시드 폴의 음악. 공연소식을 접하고 당장 예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꾸며진 무대, 잔잔한 반주속에 조용하게 흐르는 목소리, 따뜻한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 요란하고 쿵쾅거리는 공연에 익숙해 있던 터라 신선함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들려주었던 썰렁한 듯한 루시드 폴만의 유머도 재미있었구요. 무척이나 추웠던 그날 날씨를 잊게하는 가슴 따뜻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 **진 영 숙**(영도구 영선동4가)

오페라뮤지컬 '테너를 빌려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테너가 피곤함과 음주로 인해 테너가수 지망생 청년이 대신 무대에 오르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오페라뮤지컬. 후반부로 가면서 진짜 테너와 가짜 테너가 주변 사람들과 얽키고 설키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만 결국 테너 지망생 청년은 실력을 인정받고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도 쟁취했다는 유쾌한 내용으로 끝이 났다. 중간중간 나오는 오페라 음악도 즐거웠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기회는 찾아온다는 주제를 맛깔나게 연출하여 2시간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던 재밌는 공연이었다.

- **이 혜 원**(연제구 연산6동)

재즈 루나틱

너무나도 유명한 공연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향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뒤웃어본 것 같다. 음악도 너무 좋았고, 연기자들의 연기력도 너무 훌륭했다. 재즈루나틱을 왜 국민뮤지컬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이 미친 세상 속에서 미치지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일인지…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쩌면 루나틱 환자일지도 모른다는 말, 그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 **석 상 훈**(부산진구 부암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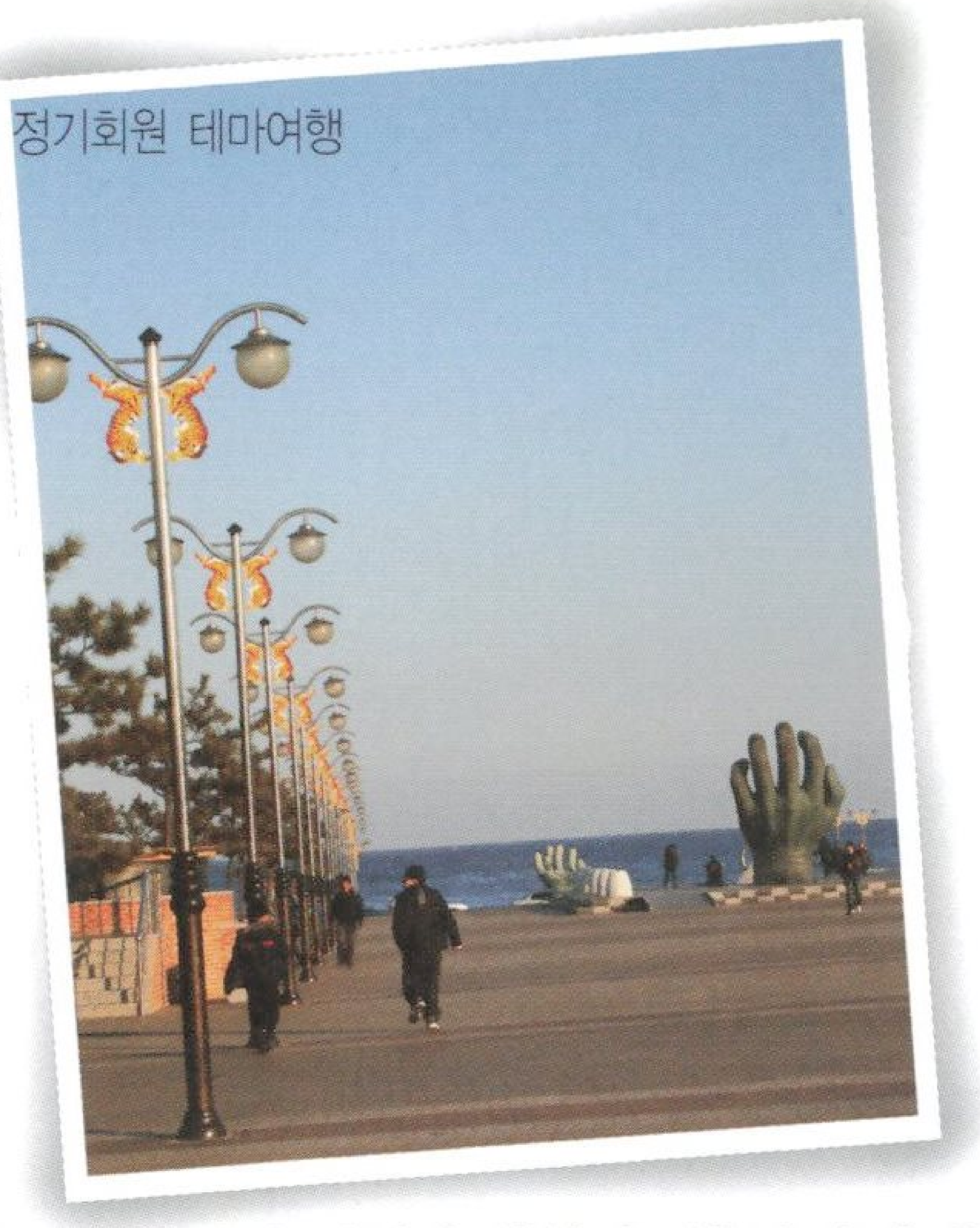
최고급 한우만을 고집합니다
나랏소 한우
한우 숯불구이 곰탕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해뜨는 도시 포항으로 떠난

2010년 첫 번째 테마여행

2010년 경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호랑이해' 첫 번째로 떠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은 신년을 맞은 회원가족들의 설레임과 희망이 가득한 하루였다.

1월 테마여행지는 해 뜨는 도시 포항. 이른 시각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 40명의 정기회원 가족들은 처음 보는 어색함 가운데서도 새해 덕담을 서로 나누며 테마여행 출발을 기다렸다. 이번 테마여행은 겨울방학을 맞은 자녀들과 함께 한 회원들이 많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그 어느때보다 시끌벅적했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정진희 씨가 동행하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2시간 30여분을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포항시 죽장면 상옥리에 위치한 상옥 참느리마을. 해발 400m 청정지역에 위치한 상옥 참느리마을은 동양 최대 규모의 경상북도수목원과 하옥계곡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휴양지로도 인기가 많다. 며칠 전 내렸던 눈이 채 녹지 않아 하얗게 덮힌 마을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주민 김정열 씨가 반갑게 회원들을 맞는다. 간단한 마을 소개 후 복지회관 뒤편에 조성된 야외 얼음썰매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을주민이 직접 제작한 썰매를 받아든 회원들은 김윤환 농촌지도사의 설명과 시범에 따라 썰매타기에 나섰다. 썰매를 처음 타보는 어린이들도, 옛 추억에 잠긴 어른들도 누구라 할 것이 없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신나게 얼음판을 누볐다. 한 시간가량 웃고 떠들며 썰매를 지친 회원들은 출출해진 배를 안고 먹거리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 다음 장소로 자리를 옮겼다. 고소한 기름냄새가 진동하는 넓은 방에 들어서자 두 분의 마을 어르신이 큰 무쇠솥 뚜껑에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다. 두 팔을 걷어부친 정기회원 몇 몇은 뒤집개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부침개 부치기에 나섰다. 한 쪽에서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색깔도 고운 3색 칼국수 만들기가 펼쳐졌다. 어린이들이 직접 홍두깨로 밀고 칼로 썰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칼국수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부산시립무용단 정진희 씨의 지도로 수건을 이용한 '우리춤 체조'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오전 썰매타기로 뻐근해진 몸을 우리 전통 춤사위를 이용한 스트레칭 동작으로 시원하게 풀어냈다.

오후 첫 방문지는 (주)포스코의 40 여년 역사와 기업정신이 담긴 포스코역사관. 2003년 7월 개관한 포스코역사관은 국내 최초의 기업역사관으로,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 정부자료를 비롯해 (주)포스코 40여년 역사를 증언하는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고 있다. 광장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2층 역사관 전시홀에 들어서자 해설사원들이 회원가족들을 반긴다. 창업전사, 창업기, 포항건설기, 광양건설기, 대역사 완성 이후, 테마존, 창의관, 청암관, 세계 속의 포스코 등 주제별 9개실로 구성된 전시실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시간 가량 돌아볼 수 있었다.

1월 테마여행 마지막 방문지는 새해 일출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는 호미곶.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에서 호랑이꼬리에 해당되는 호미곶은 해맞이 행사를 가장 크게 여는 곳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호미곶이 위치한 포항시 대보면이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미곶면'으로 명칭을 변경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28일 새천년역사관이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인근 국립등대박물관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985년 2월 개관한 국립등대박물관은 1982년 우리나라 최대의 유인등대였던 호미곶등대의 지방기념물 39호 지정을 기념해 건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등대전문박물관으로, 우리나라 등대의 발달사와 각종 해양수산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국립등대박물관을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호미곶 일출광장과 바다에 세워진 '상생의 손'을 바라보며 올 한해 안녕과 건강을 빌기도 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과메기 고장으로 유명한 구룡포에 잠시 들린 회원들은 제철 만난 과메기를 산지에서 직접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다.

2010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첫 테마여행, 백호의 정기를 듬뿍 받을 수 있었던 희망찬 하루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기억에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글, 사진/정복엽)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2010년 3월에는 **경주**로 역사기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감 2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월 테마여행 당첨자

엽서당첨자

김말자(연제구 연산 9동)
김백운(수영구 광안 3동)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박현비(남구 대연동)
신기연(금정구 구서 2동)
신필녀(남구 용호동)
양지원(남구 대연 3동)
오경원(남구 용호동)
이은주(북구 덕천 1동)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신규가입자

곽기만(영도구 봉래동 4가)
김미진(부산진구 부전동)
김수정(해운대구 좌동)
김옥자(수영구 망미동)
김철민(연제구 거제동)
박경순(동구 좌천 4동)
박성희(부산진구 초읍동)
박진용(남구 대연 3동)
이무형(북구 덕천 2동)
조경희(연제구 연산 9동)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0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Dance in Classic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균일 1만원

지휘
이동신

해설 및 진행
김문경

Vn. 김동욱 Fl. 정은지 MS. 강희영 Dance 김희쟁

Dance in Classic Ⅰ
2010. 3. 24 (수)
바로크 댄스 영혼의 춤, 인생의 변주

Tn. 김지호 MS. 김정화 Dance 김희쟁

Dance in Classic Ⅱ
2010. 5. 20 (목)
이탈리아, 스페인, 라틴댄스 남국의 관능과 정열

Vn. 이은옥 Dance 김희쟁

Dance in Classic Ⅲ
2010. 9. 30 (목)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교향곡의 식구가 된 댄스

Vn. 임가진 Sp. 성정하 Dance 김희쟁

Dance in Classic Ⅳ
2010. 11. 4 (목)
좋았던 시절 왈츠, 폴카, 마주르카, 차르다시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20% 할인 (단, 매수 제한이 있음)

부산시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헨리 IV세

-왕자와 폴스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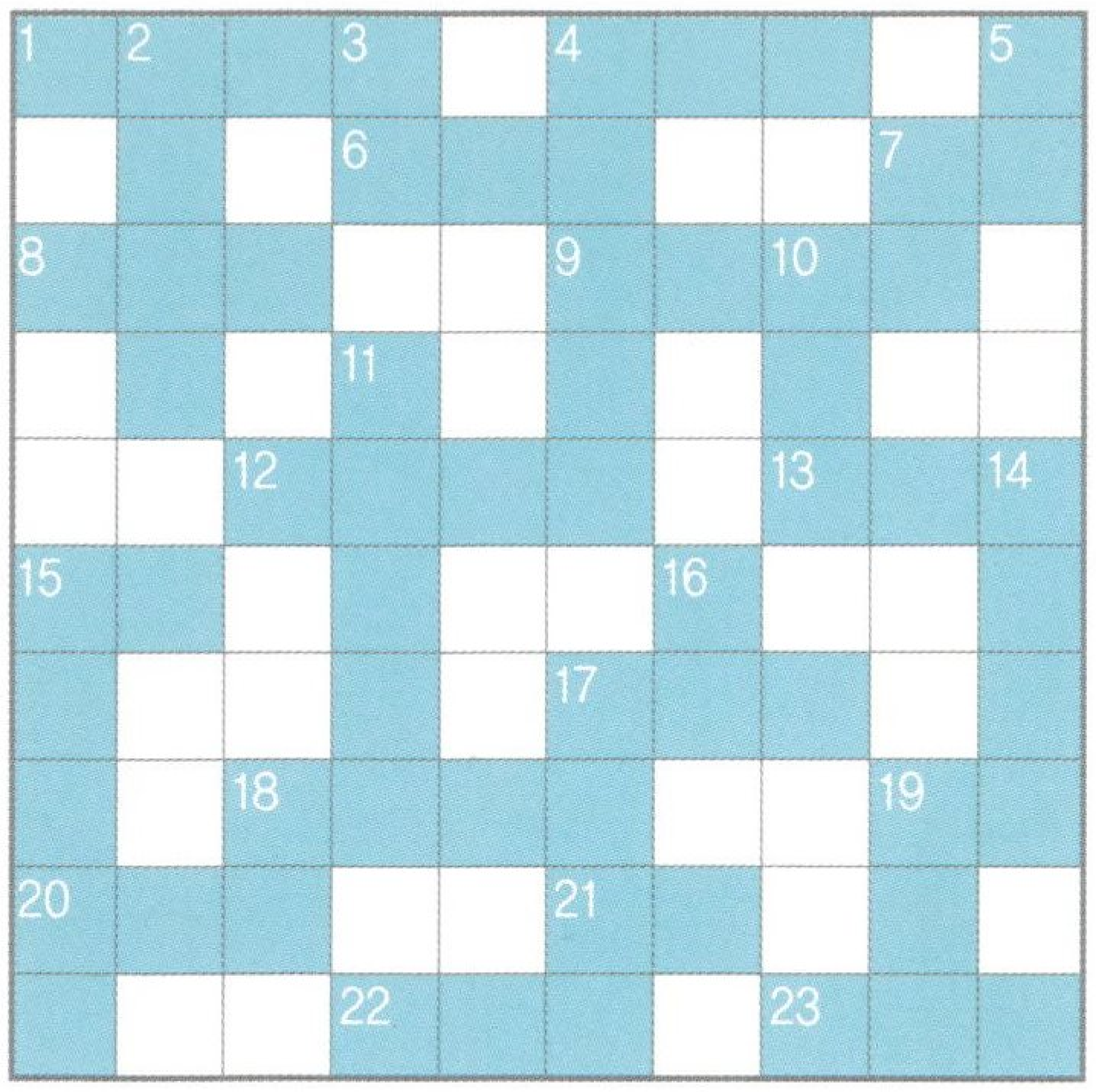
William Shakespeare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
이 태 주 번역
김 광 보 연출

재미있는 고전 명작무대 I
셰익스피어의 4대 사극 중 최고의 작품 !!

2010. 3.11(목) ~ 13(토)
평일 오후 7:30 /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문의: 부산시립극단 051-607-3151 http;//culture.busan.go.kr



가 로

1. 2월 19일, 20일 국립발레단 초청으로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오르는 발레공연. 원작인 동화를 현대적이면서도 파격적으로 해석한 프랑스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작품을 선보인다.
4. 방정환 선생과 함께 '색동회' 동인으로 어린이를 위한 문학활동을 펼쳤던 아동문학가. 대표작으로 '바위나리와 아기별', '어머님의 선물' 등이 있다.
6. 유럽의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국. 수도는 브뤼셀.
7. 1989년 서울연극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국내외 무대에 서 온 이윤택 작, 연출의 연극.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 한다.
8. 푸치니의 2막 오페라. 사랑 때문에 신성한 종교적 규율을 깨뜨린다는 비련을 그린 작품으로,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 '청명한 여신이여'가 특히 유명하다.
9. 인질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에게 동조하는 비이성적 현상을 가리키는 범죄심리학 용어로, 스웨덴의 수도인 이 곳에서 발생한 은행강도사건에서 유래되어 부쳐졌다. OOOO증후군.
12.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휴대인터넷. 2006년 6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이 것의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13. 원둘레와 지름의 비. 약 3.14:1이며 기호는 π.
15. 화초나 나무 등을 화분에 심어서 줄기나 가지를 보기 좋게 가꿈. 또는 그렇게 가꾼 화초나 나무를 일컫는다.
17.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네 친구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와 로돌포의 비련을 그린 푸치니의 오페라로, 뮤지컬 '렌트'의 원작이기도 하다.
18. 올해로 사후 100주기를 맞는 러시아의 대문호.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이 있다.
19. 사회적 인습에 희생된 불행한 여인의 삶을 그린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의 대표작으로, 1979년 로만 폴란스키 감독, 나스타샤 킨스키 주연의 영화로 유명하다.
20. 러시아 감독 예이젠시테인의 대표작으로, 몽타주 화법이 등장하면서 세계 영화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전함 OOO.
21. 고구려 평원왕 때의 장군. 어려서 바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평강 공주와 혼인하여 무예를 닦고 무장이 되었다.
22.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 해로(海路)를 통해 유럽 각지로 진출한 노르만 족의 다른 이름. 각지를 약탈하면서 해적을 뜻하게 되었다.
23. 육상 경기에서 길이가 가장 긴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 종목.

세 로

2.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수학자,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삼았다.
3.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 대표곡으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물의 장난', '볼레로' 등이 있다.
4. 마스터 또는 교사의 이탈리아어로,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의 지휘자, 음악감독, 작곡가, 스승의 경칭으로 사용된다.
5. 올해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은 이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7. 기생화산을 뜻하는 제주 방언. 제주도 한라산에는 약 370여개의 이 것이 분포한다.
10. 골프에서 처음 친 공이 단번에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일.
11.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범한다'는 신탁(神託)을 받고 버려졌으나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영웅.
14. 의식의 흐름과 내면의 독백을 활용한 서술로 종래의 소설 형식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면서 문학사의 걸작으로 남은 아일랜드 작가 J. 조이스의 장편소설.
15. 미국 대공황기 시대를 배경으로 캘리포니아 소작농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1940년 퓰리처상 수상자 존 스타인벡의 장편소설.
16.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기호를 써서 기록한 것. 주로 오선식(五線式) 보표가 사용된다.
17. 언제나 남의 이야기를 차용하던 디즈니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오리지널 스토리를 창작하여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로, 어린 사자 심바의 모험담을 그린 작품이다.
18. 판타지 소설의 고전 '반지의 제왕' 3부작 저자로, 현대 판타지 소설이라는 새 장르를 발전시킨 영국의 작가, 영문학자.
19. 용설란(龍舌蘭)의 수액을 증류해 만든 멕시코 고유의 술.

지난호 정답

호	랑	이		슈	트	라	우	스	
		무			롬		디		아
아		지	음		본		알		이
전	우	치		이		헬	렌	켈	러
인			독	립	문				니
수	잔	보	일		리	골	레	토	
		시		베	버			니	체
김	환	기		르		이	은	상	
	상		간	디		글			설
귀	곡	성			가	루	지	기	

퍼즐당첨자 명단

■ 큰집
- 강주찬(해운대구 반송 3동)
- 김병수(부산진구 양정 1동)
- 김영희(부산진구 범천동)
- 서순천(사하구 괴정 1동)
- 이은주(중구 광복동 1가)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이흥구(사하구 다대 1동)
- 신분주(양산시 물금읍)
- 형경민(동래구 온천 3동)
- 노경희(남구 용당동)
- 우준섭(수영구 망미동)

■ 공간 소극장
- 김명제(남구 문현 2동)
- 박유진(해운대구 반송 3동)
- 이중희(수영구 남천동)
- 정민영(사하구 하단 2동)
- 정화애(연제구 거제 1동)

■ 나랏소
- 강지태(금정구 서동)
- 김대은(서구 서대신 1동)
- 김미선(서구 초장동)
- 서순영(해운대구 반송 3동)
- 이창용(해운대구 좌동)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0년 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BUSAN CULTURAL CENTER Membership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을
편리하게 예약, 관람할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부산시내 전 공연정보를 담은
'예술에의 초대'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를 통해**
조기예매와 다양한 공연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종류 및 가입회비

구 분	가입회비	할인매수
특별회원	50,000원	공연시 4매 할인
일반회원	30,000원	공연시 2매 할인
청소년회원	20,000원	공연시 1매 할인
단체가입	30명이상 **가입** 10%할인	

□ **회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할 인 율** · 기획공연 5~30% · 시립예술단공연 5~20%
□ **좌석선택**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좌석선택
□ **할인횟수** · 제한없음
□ **가입신청**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가입비 납부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탈 퇴 - 5일 이후 탈퇴시는 일정액 (수수료) 제외 후 환불
□ 예약취소 - 공연 당일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혜 택**
· 월간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무료우송, 조기예매 기회제공, 문화강좌할인, 테마여행
· 부산시내주요 공연장 및 관람시설, 할인쿠폰발행 등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051) 051-607-3100 Fax 051-607-3109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2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비 5% 할인 받자!!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ANATOUR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가족n연인
주말데이트
럭셔리 해외 데이트♡
道頓堀
[비자포함]
특전 빵빵~! 상해 3일
CCP730
279,000원~
[1일자유]
오사카 3일 퓨전여행
JOP701
549,000원~
[코비]
북큐슈 겨울 온천여행 3일
5209
799,000원~
부산출발
국내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국내투어
[대한항공]
당일 눈꽃 한라산 등반
AKPK55
139,000원~
[온천여행]
덕산스파캐슬 1박2일
AKFK23
144,000원~
[관광1급]
제주 세계자연유산 탐방
AKPK57
236,000원~
럭셔리
중국여행
다양한 매력 중국
[아시아나탑승]
여유만만 항주/소주/상해 4일
CCP753
199,000원~
[계림일주]
상해/계림 5일
CCP759
699,000원~
[미식/효도]
대만 4일(온천/체험 선택)
CTP702
699,000원~
겨울탈출
세부여행
아름다운 자연
휴양지 세부
[실속상품]
세부 비스타마 리조트 4일
APP754
599,000원~
[하이하나 자체상품]
세부/마이크로텔+호핑포함 6일
별도문의
619,000원~
[세부퍼시픽]
세부 자유여행 4일
APA751
64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팀장 070-8270-4217 / 김수현 070-8270-4209
전국 대표전화
070-8270-420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월 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부산 MBC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문화도시부산 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2009년 7월 창단한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 오케스트라는 클래식을 넘어서 영화음악, 재즈, 팝,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만들어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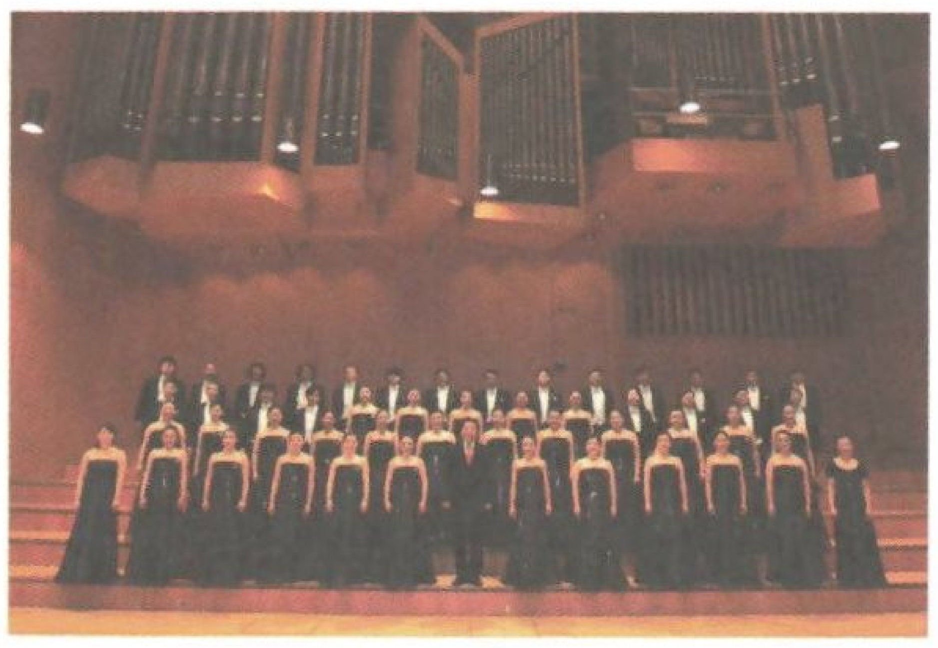
▣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폴 데스몬드/Take Five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레드제플린/Stairway to Heaven
윤일상/보고싶다
이동준/태극기 휘날리며
하차투리안/칼의 춤 등 수곡

· 지휘/김병수

· 연주/김은조, 김경현, 김진영, 곽성은(이상 제 1바이올린), 이인경, 모소현, 윤성진(이상 제 2바이올린), 신요한, 김민주(이상 비올라), 최광섭, 임수지(이상 첼로), 김민영(플루트), 안상은(클라리넷), 이장호(타악기), 민강은(피아노)

2월 20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봄~새로운 희망의 노래'



▣ 프로그램

아직 겨울이에요
호손/희망의 속삭임
윤용하/고독
김동진/내마음

봄이 와요
김규환/남촌
김동진/목련화
현제명/나물캐는 처녀
슈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희망의 노래
슈트라우스/라데츠키 행진곡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수곡

· 지휘/박광하(부산시립합창단 트레이너)

· 출연

이정란, 기미현, 최난영, 유수정, 이정희, 엄남이, 권순유(이상 소프라노)
손미숙, 박성혜, 김성미, 김미경, 정은영, 장은경, 신소운, 김보경(이상 앨토)
김진영, 조성기, 김추리, 권정은, 김웅태, 강은태, 이재원(이상 테너)
최기호, 최성규, 김태우, 장용균(이상 베이스)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관악영산회상 '상령산'(집박/유경조 · 소금/조은경 · 대금/강영진, 김수일, 이만형 · 피리/박춘석, 최성교, 권미정 · 해금/최윤정, 정수경, 윤해승 · 아쟁/최희정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김용실/거문고 중주 '출강'(거문고/엄애리, 이대하, 박하혜)

기악합주 '남도굿거리, 금강산타령, 동백꽃 타령'(대금/강은주 · 피리/박순자 · 해금/방병원 · 아쟁/홍영혜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송강수)

판소리(판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경수 · 해금/방병원 · 아쟁/박일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전학수 · 징/이주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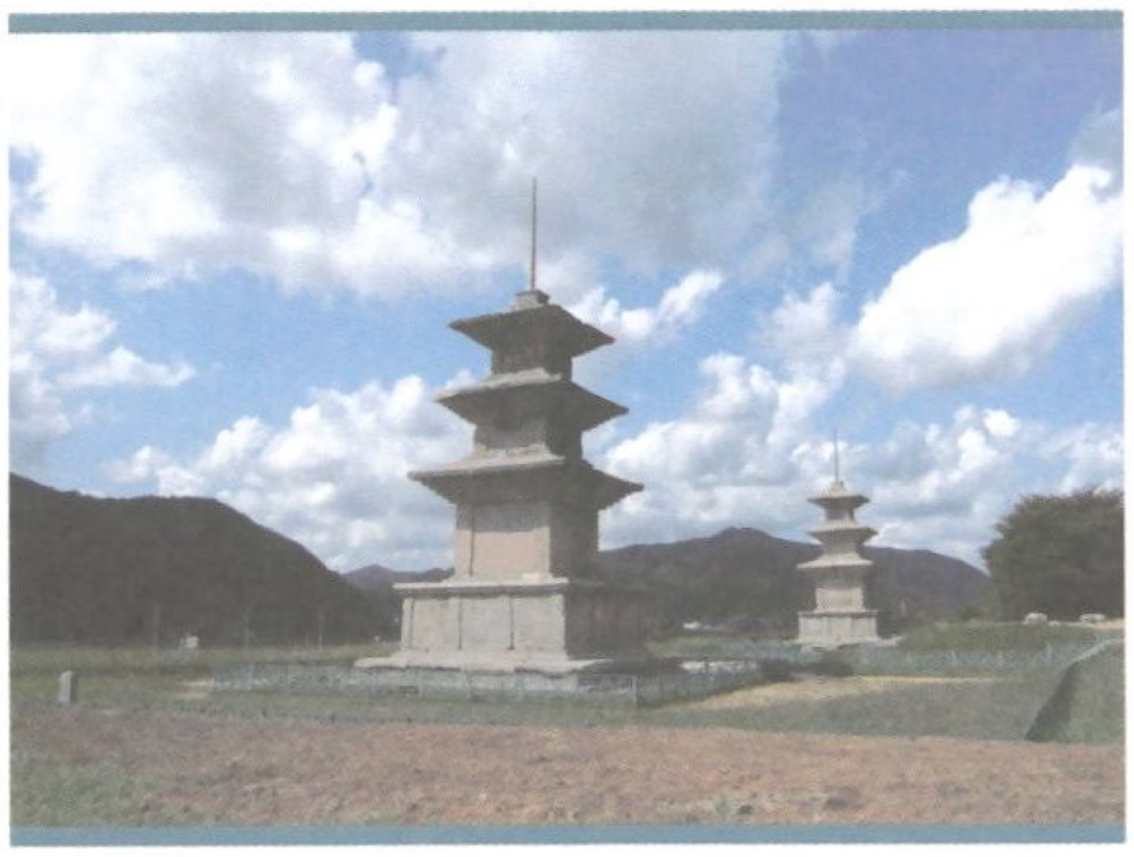
· 악장/유경조　　· 해설/백규진

• 관람료 : 선착순 무료 입장(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감은사지

▶ 2010년 3월 12일(금) 다시 떠나는 경주수학여행

신라 천년 고도 경주로 떠나는 역사기행.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마주한 기림사, 골굴사, 감은사지,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킨 문무대왕릉 등 경주 동해권역을 돌아보며 찬란한 문화를 이룩한 신라의 정신을 배워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경주도착, 기림사, 골굴사, 감은사지 답사

▷ 12:30 중식

▷ 13:30 문무왕릉, 장항리사지 5층 석탑

▷ 15:30 전통문화체험(은귀걸이 만들기, 솟대 만들기 등)

▷ 16: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7:00 부산으로 출발

청도복숭아 시험장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2010년 4월 9일(금) 복사꽃 향기 가득한 청도 봄나들이

아름다운 복사꽃이 만개한 청도로 떠나는 봄나들이.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 전문연구기관인 청도 복숭아 시험장을 시작으로 청도의 명물 감물염색체험, 조상들의 생활 철학이 담긴 고택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워본다.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청도 도착, 복숭아시험장 방문

▷ 11:30 유호연지, 청담갤러리 전시관람

▷ 12:30 중식

▷ 13:30 감물염색체험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5:30 청도문화유적 답사-삼족대, 운강고택, 임당리고택 등

▷ 17:30 부산으로 출발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024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4. 4.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 184 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02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영웅을 기다리며 20% 할인

2010. 1. 7(목)～3. 7(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40,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810-7000
JUMP
Comic Martial Arts Performance
점프 20% 할인
평일 20:00 / 토 · 공휴일 17:00, 20:00 / 일요일 18:00
IBK (부산롯데호텔 롯데아트홀) 50,000원(R석) / 40,000원(S석)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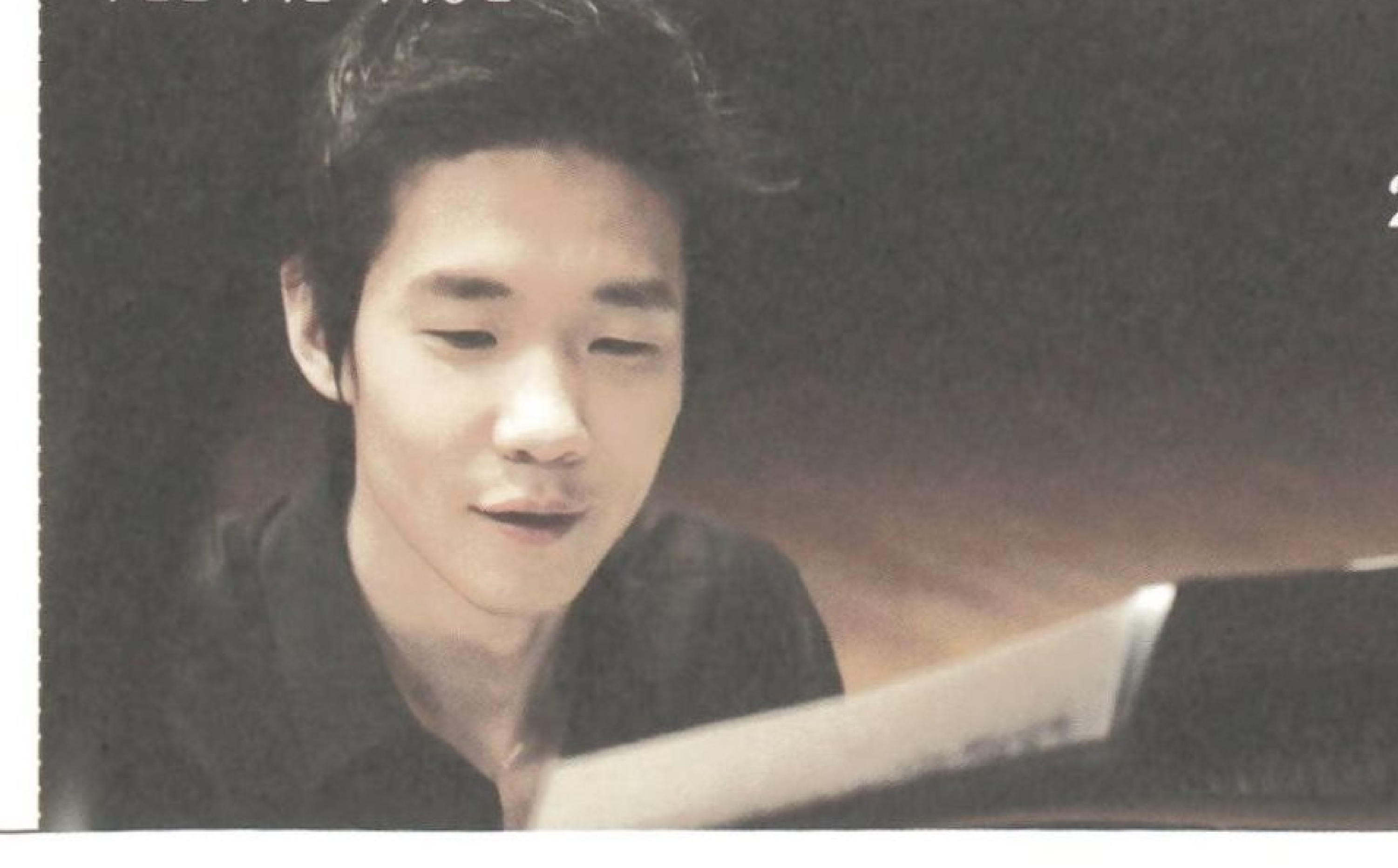
참존 직영점
참존 스킨타운 부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마사지무료 체험권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부산시 남구 대연4동 733번지 유안빌딩 051-626-6760

금경(한식퓨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박물관 옆 ☎051-611-196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차갑고도 신비로운...... 봄을 노래하다
2010 Dong-hyek Lim Piano Recital
피아니스트 임동혁 리사이틀
2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607-3100)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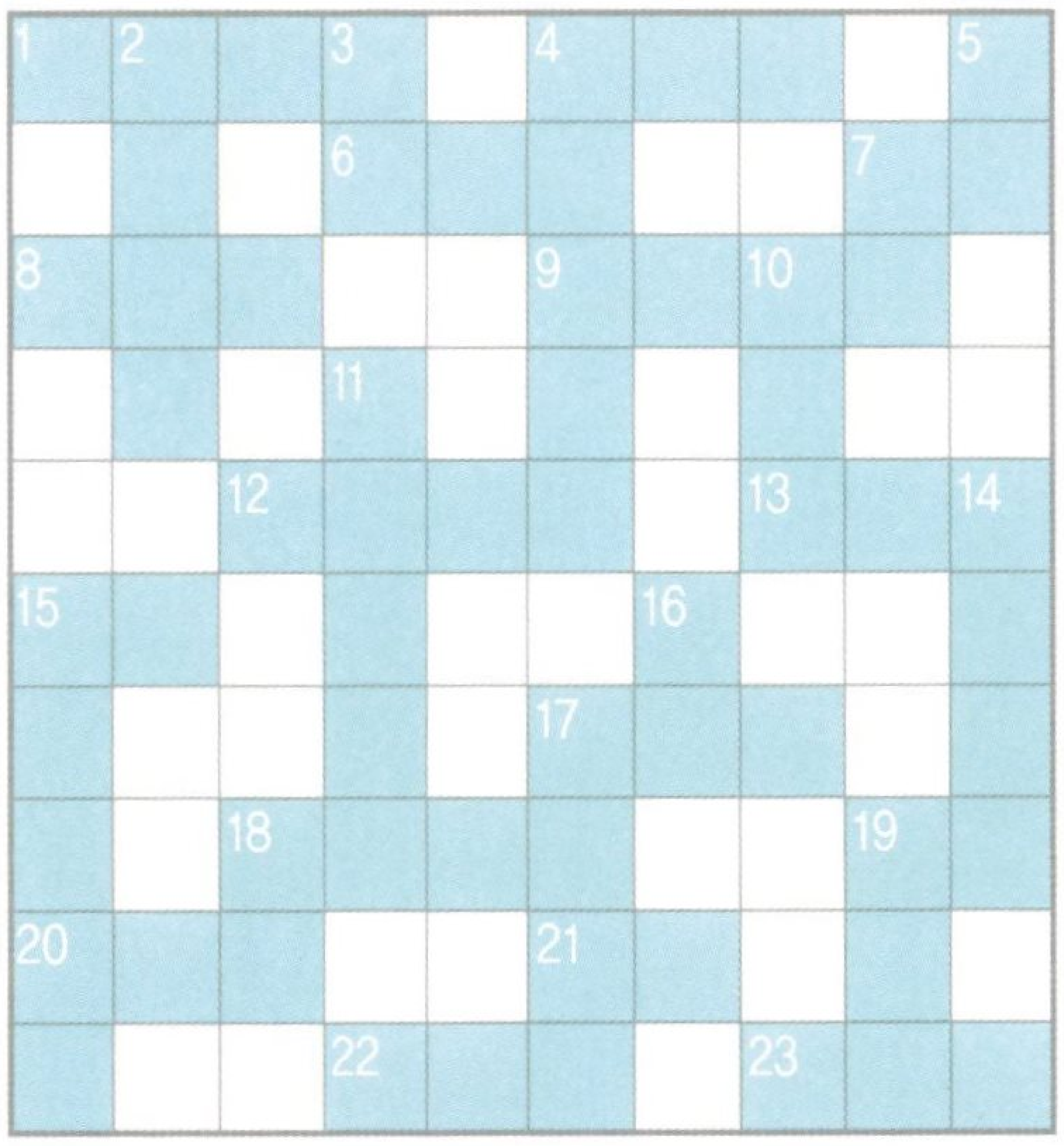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2010년 3월 응모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 이름
  - · 주소
  -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퍼즐 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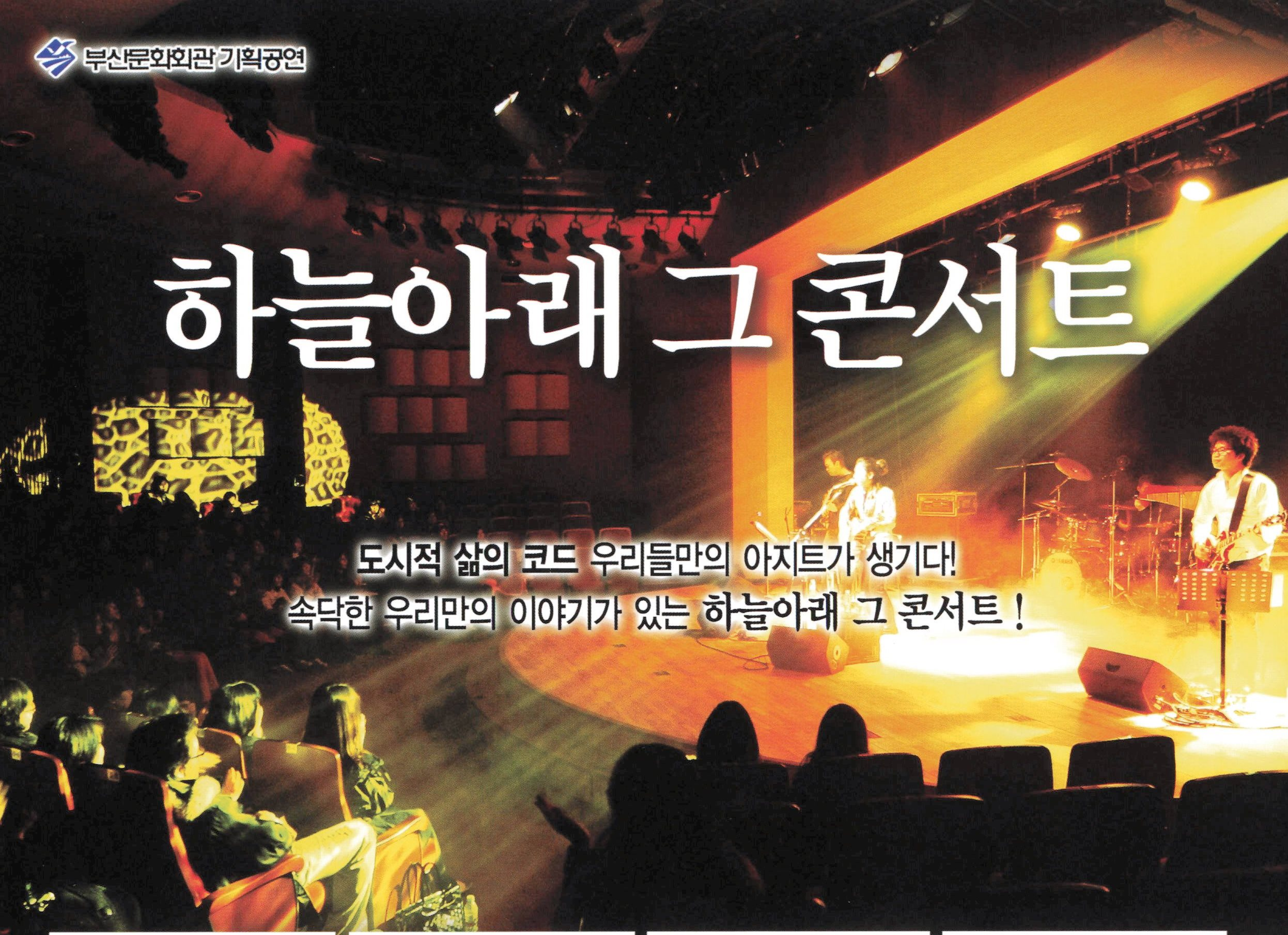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담당 : 정현철 010.8741.055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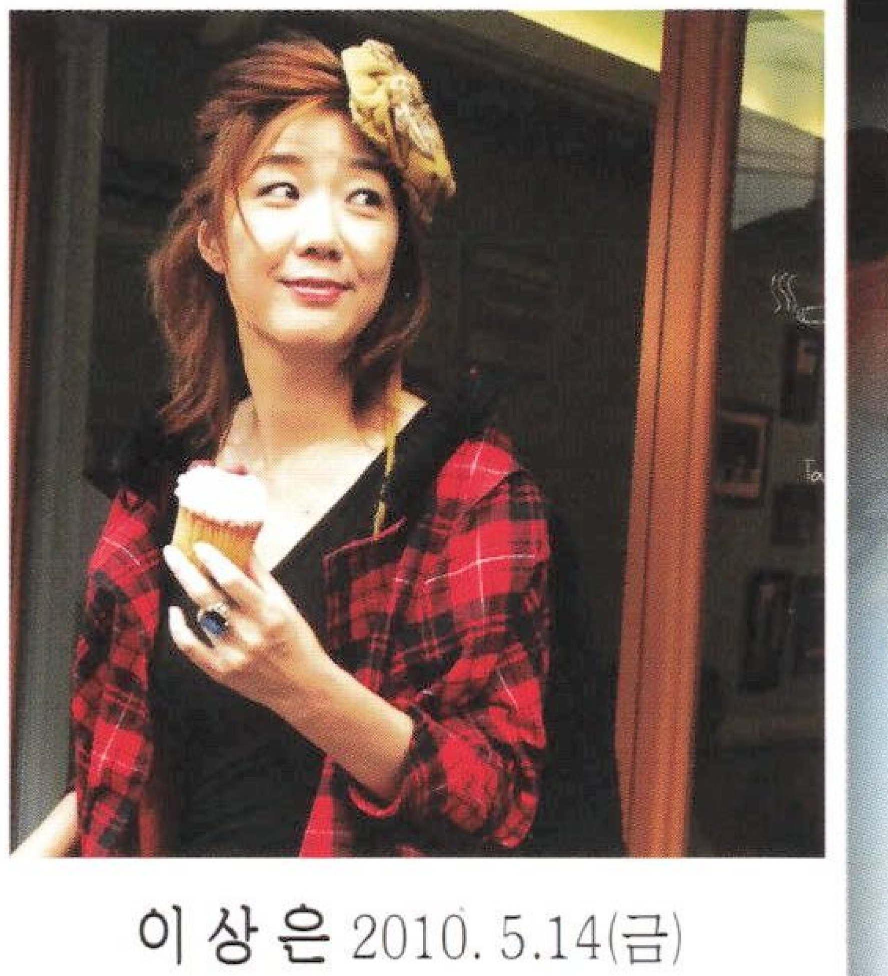
하늘아래 그 콘서트

도시적 삶의 코드 우리들만의 아지트가 생기다!
속닥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는 하늘아래 그 콘서트!

세렝게티 2010. 2.19(금)

소규모아카시아밴드
2010. 3.19(금)

오지은 2010. 4.16(금)



이상은 2010. 5.14(금)

※ 이 공연은 출연진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우리만의 흥미진진한 라이브쇼
자신만의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는 도시남녀들과 인생의 터닝포인트 앞에 선 그들의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다.

10.02.19 (금) ~ 10.08.13 (금) 오후8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균일 30,000원 예 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문의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오직 그리움을 아는 이만이...

리처드 용재 오닐

2010 리사이틀 노래

Richard Yongjae O' Neill <NORE-Songs without words>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를 들려주는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이번에는 비올라로 진짜 '노래'를 부른다.

솔로 5집 앨범 〈NORE-Songs without words〉 발매 기념,
앨범 수록곡
히나스테라의 슬픈 노래, 브람스 네 개의 엄숙한 노래,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선사

2010년 3월 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주 최 |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문화회관 |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8)

| 예 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